

서초구 성인지 통계(2022) -경제활동·의사결정 분야-



서초구·서초구 양성평등활동센터

서초구 성인지 통계(2022) -경제활동·의사결정 분야-



서초구·서초구 양성평등활동센터

서초구 성인지 통계

— 경제활동·의사결정(정치/사회참여)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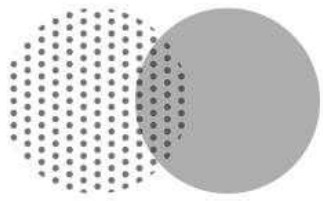
참여연구진 : 문은영·조연숙

SEOCHO
WOMEN&
FAMILY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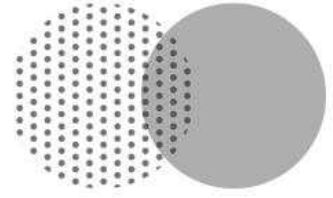
서 초 구 · 서 초 구 양성평등활동센터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 차

연구요약	11
Ⅰ 개요	19
1. 성인지 통계 작성 근거	21
2. 작성 방법 및 내용	25
3. 지표체계의 구성 방향	28
Ⅱ 서초구 경제활동·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주요결과	35
1. 경제활동분야	37
2. 의사결정분야	48
Ⅲ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	61
1. 경제활동분야 통계 개요	63
2. 경제활동분야 기초통계	66
3. 경제활동분야 구민인식조사 결과	83
4. 경제활동분야 특성	112
Ⅳ 서초구 의사결정(정치/사회참여)분야 성인지 통계	115
1. 의사결정분야 통계 개요	117
2. 의사결정분야 기초통계	119
3. 의사결정분야 구민인식조사 결과	134
4. 의사결정분야 특성	175



목 / 차

• 참고문헌	178
• 부록	179
1. 설문지	181
2. 통계용어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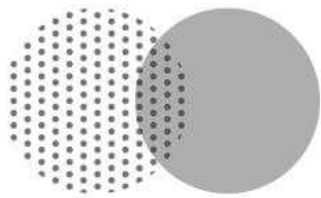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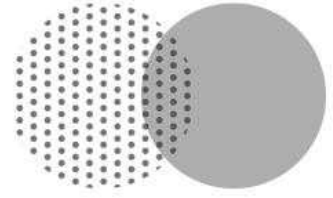


표 / 목 / 차

[표 I-2-1] 조사방법 및 기간	26
[표 I-2-2] 서초구 인구비례에 따른 성별/연령별 표본할당	26
[표 I-2-3] 조사내용	26
[표 I-2-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I-3-1]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영역 및 세부지표	29
[표 I-3-2]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지표 구성	30
[표 I-3-3]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의사결정분야 지표 구성	31
[표 I-3-4]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영역 및 세부지표	32
[표 I-3-5]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지표 구성	33
[표 III-1-1]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지표영역별 세부지표	64
[표 III-1-2]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주관적 인식 세부지표	65
[표 III-2-1] 성별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인구(2021)	66
[표 III-2-2] 연령·혼인상태별·교육정도별 미취업자(2021)	67
[표 III-2-3] 성별·연령별 퇴직기간 1년 이상인 구민(2021)	68
[표 III-2-4] 성별 전 직장 그만둔 이유(2021)	69
[표 III-2-5] 연령별·교육정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2021)	70
[표 III-2-6]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71
[표 III-2-7]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21)	72
[표 III-2-8] 연령·혼인상태별·교육정도별 취업자(2021)	73
[표 III-2-9] 최근 3개월 성별 월평균 임금(2021)	74
[표 III-2-10] 서울시 성별 소득만족도(2021)	74
[표 III-2-11] 성별 평균 주당 근로시간(2021)	75
[표 III-2-12] 서울시 근로자의 근로만족도(2021)	76
[표 III-2-13] 서초구 동별 사업체 수 및 성별 대표자 수(2019)	77
[표 III-2-14] 서초구 동별 사업체 수 및 성별 종사자 수(2019)	78
[표 III-2-15] 서초구 성별·산업분류별 대표자 및 종사자 수(2019)	79



표/목/차

[표 Ⅲ-2-16] 서울시 성별·산업분류별 대표자 및 종사자 수(2019)	81
[표 Ⅲ-2-17] 서울시 근로자의 직업선택요인(2021)	82
[표 Ⅲ-3-1]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83
[표 Ⅲ-3-2]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	84
[표 Ⅲ-3-3] 서초구는 일자리가 풍부하다	85
[표 Ⅲ-3-4] 서초구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86
[표 Ⅲ-3-5] 서초구는 일자리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87
[표 Ⅲ-3-6] 서초구는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가 좋은 편이다	88
[표 Ⅲ-3-7] 서초구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다	89
[표 Ⅲ-3-8] 주중 평균 활동 시간	90
[표 Ⅲ-3-9] 주말 평균 활동 시간	91
[표 Ⅲ-3-10] 주요 소득원	92
[표 Ⅲ-3-11] 고용형태	93
[표 Ⅲ-3-12] 직업군	94
[표 Ⅲ-3-13] 현재 근무환경 만족도	96
[표 Ⅲ-3-14] 근무환경 만족 요인	97
[표 Ⅲ-3-15] 근무환경 불만족 요인	98
[표 Ⅲ-3-16]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태 변화	99
[표 Ⅲ-3-17] 근로활동 의사	100
[표 Ⅲ-3-18] 근로활동 어려운 이유 1순위	101
[표 Ⅲ-3-19] 근로활동 어려운 이유 종합순위(1+2순위)	102
[표 Ⅲ-3-20] 일자리 관련 정보 경로(중복응답)	103
[표 Ⅲ-3-21]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104
[표 Ⅲ-3-22] 기술(IT, 자격증) 및 경력관리(커리어) 교육 확대	105
[표 Ⅲ-3-23] 서초구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	106
[표 Ⅲ-3-24] 돌봄자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여건 지원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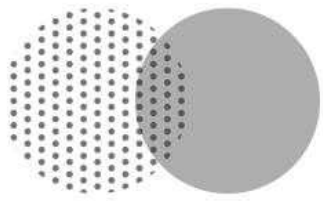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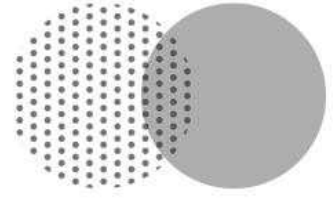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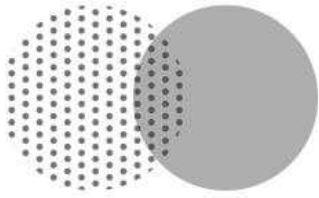
표 / 목 / 차

[표 Ⅲ-3-25]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108
[표 Ⅲ-3-26] 은퇴 및 이·전직 지원서비스 확대	109
[표 Ⅲ-3-27] 청년인턴 프로그램 지원	110
[표 Ⅲ-3-28] 서초구 사업체 고용지원금 지원	111
[표 Ⅳ-1-1]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지표영역별 세부지표	118
[표 Ⅳ-1-2]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주관적 인식 세부지표	119
[표 Ⅳ-2-1] 서초구 지방선거 유권자 및 투표참여 현황	120
[표 Ⅳ-2-2] 서초구 국회의원선거 성별·연령별 후보자·당선자 수	121
[표 Ⅳ-2-3] 서초구청장 성별·연령별 후보자/당선자수	122
[표 Ⅳ-2-4] 서초구 지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당선자수 및 비율	123
[표 Ⅳ-2-5] 서초구 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당선자수 및 비율	124
[표 Ⅳ-2-6] 서초구 성별·직급별 공무원 현황(2019-2021)	125
[표 Ⅳ-2-7] 서초구 성별·부서별(담당관/국별) 공무원 현황(2019-2021)	126
[표 Ⅳ-2-8] 서초구 성별 위원회 참여 현황(2020-2021)	128
[표 Ⅳ-2-9] 서초구 성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현황(2019-2021)	128
[표 Ⅳ-2-10] 자원봉사자 현황(2018-2020)	129
[표 Ⅳ-2-11] 사회참여 현황(중복응답)	130
[표 Ⅳ-2-12] 계층이동 가능성(본인/자녀)	131
[표 Ⅳ-2-13] 지역사회소속감-잘 알고 지내는 편	132
[표 Ⅳ-2-14] 지역사회소속감-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132
[표 Ⅳ-2-15] 지역사회소속감-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133
[표 Ⅳ-2-16] 지역사회소속감-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134
[표 Ⅳ-3-1] 서초구 지역뉴스를 관심갖고 보고 있다(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135
[표 Ⅳ-3-2] 우리지역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137
[표 Ⅳ-3-3] 우리지역 주민은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138
[표 Ⅳ-3-4]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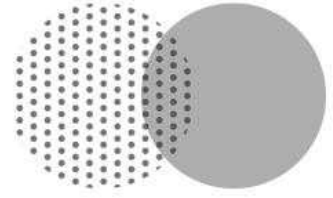
표/목/차

[표 IV-3-5] 나의 의견이 구정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0
[표 IV-3-6]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의 성비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41
[표 IV-3-7] 최신 구정 정보 접하는 경로	142
[표 IV-3-8] 가장 관심 있는 구정 행정 분야	143
[표 IV-3-9] 우리 사회 공정성	144
[표 IV-3-10] 경제적 계층의 차이(양극화, 불평등)	145
[표 IV-3-11] 우리사회의 젠더 갈등의 문제	146
[표 IV-3-12] 우리사회의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	147
[표 IV-3-13] 노력과 경력에 대한 대우	148
[표 IV-3-14] 소득이나 자산형성	149
[표 IV-3-15]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150
[표 IV-3-16] 정치와 사회참여	151
[표 IV-3-17] 구민중심의 정책결정	152
[표 IV-3-18]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153
[표 IV-3-19] 정보공개: 결정 과정 및 결정된 내용의 공개	154
[표 IV-3-20] 결정된 내용이 구민에 미칠 영향의 설명	155
[표 IV-3-21] 의견 혹은 정책제안(구청장/구청 온라인 소통창, 홈페이지, 전화 등)	156
[표 IV-3-22] 정치사회적 의견달기(트윗, 보도물에 리플이나 댓글 달기 등)	157
[표 IV-3-23]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동 차원의 지역활동)	158
[표 IV-3-24]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	159
[표 IV-3-25] 지역 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	160
[표 IV-3-26]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161
[표 IV-3-27]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	162
[표 IV-3-28]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	163
[표 IV-3-29] 구정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경험이 없는 이유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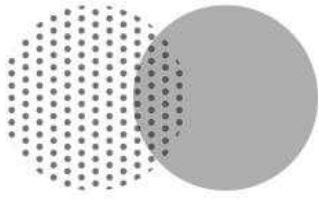
표/목/차

[표 IV-3-30] 의견 혹은 정책제안 참여계획	165
[표 IV-3-31]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참여계획	166
[표 IV-3-32]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계획	167
[표 IV-3-33]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계획	168
[표 IV-3-34] 지역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계획	169
[표 IV-3-35]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계획	170
[표 IV-3-36]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계획	171
[표 IV-3-37]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계획	172
[표 IV-3-38]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 활동참여 변화	173
[표 IV-3-39] 가장 필요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 지원	174
[표 IV-3-40]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175



그림/목차

[그림 II-1-1] 경제활동인구	40
[그림 II-1-2] 경제활동참가율	41
[그림 II-1-3]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21)	42
[그림 II-1-4] 서울시와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비중과 사유	43
[그림 II-1-5]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44
[그림 II-1-6] 성별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45
[그림 II-1-7] 주중 성별 평균 활동 시간	46
[그림 II-1-8] 주말 성별 평균 활동 시간	47
[그림 II-1-9]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	48
[그림 II-1-10] 일자리 관련 정보 경로	49
[그림 II-2-1] 최신 구정정보 접하는 경로	51
[그림 II-2-2]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52
[그림 II-2-3] 소득이나 자산 형성에 대한 인식	53
[그림 II-2-4] 사회 공정성(경제적 계층, 젠더 갈등,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54
[그림 II-2-5]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55
[그림 II-2-6] 서초구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56
[그림 II-2-7] 코로나19 이후 활동 변화	57
[그림 II-2-8] 구정참여 경험	58
[그림 II-2-9] 구정참여 계획	58
[그림 II-2-10] 지역사회 참여 경험	59
[그림 II-2-11] 지역사회 참여 계획	59
[그림 II-2-12]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 지원	60
[그림 II-2-13]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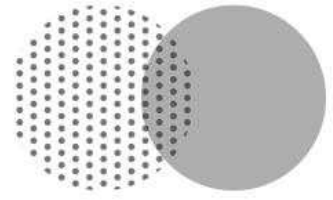


I

개요

□ 성인지 통계: 2022 서초구 성인지 통계 주요내용

- 단계별 분야 선정: 1차(2021년)로 ‘안전분야’와 ‘가족분야’에 대한 성인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 2차(2022년)에는 ‘경제활동분야’와 ‘의사결정분야’를 실시함.
-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서초구 경제활동현황, 취업현황, 근로조건 등에 대해 기초통계를 조사하고,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일자리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서초구민의 정치참여, 행정참여 현황 및 사회 및 단체활동 참여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조사하고 서초구민의 구정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과 참여 현황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연 / 구 / 요 / 약

□ 성인지 통계 작성방법 및 내용

1) 각종 통계자료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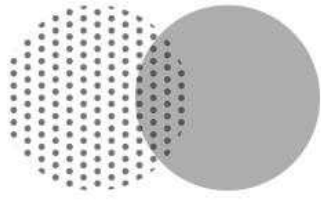
- 경제활동분야 통계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와 2021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내려받아 분석·활용함.
- 의사결정분야 통계지표 중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통계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서울서베이 등의 원자료 중에서 서초구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활용함.

2) 서초구 통계 및 행정통계자료 수집·분석

- 행정에서의 여성대표성 및 자원활동 관련 자료는 행정통계 및 내부자료를 서초구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함.
- 서초구가 조사하여 작성한 서초구 통계, 서초구 사업체 조사 보고서 등 서초구 통계자료 중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 지표에 적용·분석함.

3)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분야 서초구민의 인식조사 성별 통계 활용

-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분야 통계 지표 중 주관적 지표는 서초구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성별로 분석하여 해당 통계지표 값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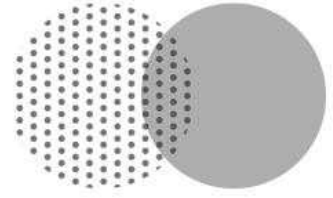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 조사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 서초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표 본 크 기	• 500명(인구비례에 따라 성별 할당)
조 사 기 간	• 온라인: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15일 • 오프라인: 2022년 7월 18일 ~ 2022년 7월 22일
조 사 방 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병행 •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전문리서치 조사업체 패널 활용 • 60대 이상의 경우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에서 복지관 등 통해 협조 요청
자료처리 및 분석	•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량 분석

○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경제활동, 결혼여부, 자녀여부
경제활동분야	• 서초구민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 평일 및 주말 시간활용 실태 • 서초구민 소득활동 상태 • 취업 및 근무환경 실태 • 실업 및 취업희망 실태 •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의사결정분야	• 서초구 구정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의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의 사회문제(경제적 계층, 젠더갈등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 서초구 정책결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 활동 참여 경험 및 정책수요 • 구정참여를 위한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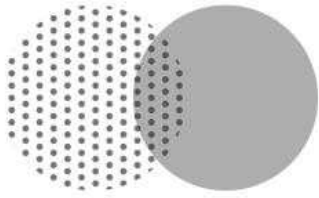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II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분야 구민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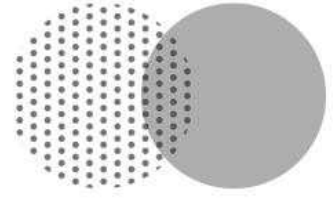
□ 경제활동분야 구민인식조사 결과

-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서초구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일자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로 응답함. 여성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일-생활 균형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 순으로 응답하였고, 남성은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 실제 선택하는 일자리로 여성은 ‘일-생활 균형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 ‘당장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높았으나, 남성은 ‘안정적 일자리’, ‘급여가 높은 일자리’로 성별에 따라 선택하는 일자리가 차이가 있음.
- 서초구민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평가를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여성 3.3점, 남성 3.5점으로 남성이 0.2점 높게 나타났음. 여성은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다’(3.38점)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반면, 남성은 ‘일자리가 풍부하다’(3.54점)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 성별 응답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초구민의 주중평균 활동 시간에서 근로 활동은 여성 7.24시간, 남성 7.87시간으로 남성이 0.63시간 긴 반면, 가사활동 및 돌봄활동에서 여성은 각 2.61시간과 3.13시간으로 남성 1.61시간, 1.82시간으로 여성의 가사 및 돌봄활동 시간은 거의 2배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주말 평균 활동시간에서 성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항목은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남성 3.58시간으로 여성 3.24시간보다 0.34시간 길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근로 활동 3.08시간(남성 3.67시간), 가사활동 3.17시간(남성 2.30시간), 돌봄활동 4.07시간(남성 2.87시간) 등으로 주말에 근로와 가사 및 돌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 / 구 / 요 /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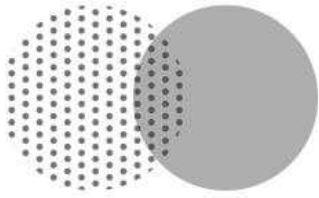
- 소득 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의 고용형태는 한시직/기간제/계약직, 시간제, 특수형태 근로, 일용직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85.1%로 여성 61.8%에 비해 23.8%p의 성별 차이를 보임. 직업군은 여성은 교육서비스 및 강사, 보건·의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여성 3.27점, 남성 3.36점). 여성의 근무환경 만족 요인은 근로시간, 출퇴근 거리, 일·생활균형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된 반면, 남성은 업무내용, 급여, 고용안정성에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서초구 취업지원에 대한 정책수요의 시급성 정도를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여성은 ‘기술 및 경력관리 교육확대’,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인턴 프로그램 지원’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반면, 남성은 ‘돌봄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여건지원’, ‘은퇴 및 이·전직 지원서비스 확대’ 항목에서 여성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성별에 따른 정책수요의 시급성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음.



연 / 구 / 요 / 약

□ 의사결정분야 구민인식조사 결과

- 최신 구정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지에 대해, ‘서초구 소식지’와 ‘서초구청 홈페이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은 서초구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남성보다 많이 접하는 반면, 신문기사와 지역방송은 남성들이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4%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함. 관련하여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또한 ‘우리사회에서 소득이나 자산형성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2.2%)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함. 관련하여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차이(양극화, 불평등)’, ‘젠더갈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5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 전체적으로 3점 이하의 점수가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평균값이 낮을수록 매우 심각함을 의미).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경제적 계층의 차이’로 5점 만점 중 평균 2.12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세대간 불평등’ 2.19점, ‘젠더갈등의 문제’도 2.2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경제적 계층의 차이’이며, 남녀간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젠더갈등의 문제’로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심각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다음의 활동에 대해 구정참여 경험여부와 계획여부를 조사함. 여성의 경우 의견(정책) 제안(33.2%)과 주민자치센터 활동(32.7%)의 경험이 남성에 비해 많았고, 남성은 정치사회적 의견달기(36.1%)에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구정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계획 여부를 물은 결과, 의견제안이 여성 60.4%, 남성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 / 구 / 요 / 약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다음의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 경험여부와 계획여부를 조사함.
여성의 경우 지역온라인 커뮤니티 활동(45.6%)과 지역동아리/동호회/모임 활동(41.2%)의 경험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지역사회 참여 경험에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참여계획 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여성 47.2%, 남성 41.7%)과 자원봉사활동(여성 45.1% 남성 40.3%)이 높게 나타남.
- ‘서초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서초구민은 ‘지역소식 홍보의 다각화’에 대한 응답률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 활성화(게시판, 어플 등)’이 26.0%, ‘정보의 공개 및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24.0% 순임. 성별로 살펴볼 때, 남성이 지역소식 홍보 다각화’에서 32.6%로 여성(30.7%)보다 1.9%p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 활성화’에서 28.0%로 남성(23.8%)보다 4.2%p 높게 나타남.



I

개요

1. 성인지 통계 작성 근거
2. 작성 방법 및 내용
3. 지표체계의 구성 방향

I

개요

1

성인지 통계 작성 근거

1) 2022 서초구 성인지통계 개요

(1) 추진 목적

- 서초구 성평등 정책 및 사업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경제활동분야와 의사결정분야에
서의 성인지 통계 기초자료를 조사함.
- 해당 분야에서 서초구 지역주민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인지 통계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2) 2022 서초구 성인지통계 주요내용

- 단계별 분야선정: 1차(2021년)로 ‘안전분야’와 ‘가족분야’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고, 이어, 2차(2022년)에는 ‘경제활동분야’와 ‘의사결정분야’를 실시함. 1)

- 1) 「2022 서초구 성인지통계」는 2021년에 추진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구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성
인지통계(안전,가족분야)와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었으며, 분야선정은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 구분에 근거함.
서초구의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표현황 파악과 구민의 분야별 인식조사를 목적으로 함.

영역	분야	개별 지표
성평등한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비율, 5급이상 공무원비율, 관리자 비율
	교육·직업훈련	남녀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강력범죄(홍악법)피해자 비율
성평등한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출처: 주재선 외(2020). 2020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서초구 경제활동 현황, 취업 현황, 근로조건 등에 대해 기초통계를 조사함. 또한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일자리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함.
- 의사결정분야에서는 서초구민의 정치참여, 행정참여 현황 및 사회 및 단체활동 참여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분석함. 또한 서초구민의 구정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과 참여 현황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2) 성인지통계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통계법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③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통계청, 여성가족부)

- 국가승인통계의 조사 방법, 대상, 문항, 결과 등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안 제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성평등 기본조례

제37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인지 통계의 활용

- ‘성인지 통계’는 기본적으로 성별이 구분된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차이를 통계로 제시함
 - 협의로는 개별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를 말하며, 광의로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임(여성가족부, 2018,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 개선 연구」).
- 즉 성인지 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의미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알기쉬운 성인지통계」).
-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정책의 시행 및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분석과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 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함.

2

작성 방법 및 내용

1) 각종 통계자료 원자료 분석

- 경제활동분야 통계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2021, 2022)와 사회조사(2021)의 원자료를 내려받아 분석·활용함.
- 의사결정분야 통계지표 중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통계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서울서베이 등의 원자료 중에서 서초구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활용함.

2) 서초구 통계 및 행정통계자료 수집·분석

- 행정에서의 여성대표성 및 위원회 활동 관련 자료는 행정통계 및 내부자료를 서초구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함.
- 서초구가 조사하여 작성한 서초구 통계연보, 서초구 사업체조사 보고서 등 서초구 통계자료 중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 관련 지표에 적용·분석함.

3)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분야 서초구민의 인식조사 성별 통계 활용

-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분야 통계 지표 중 주관적 지표는 서초구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성별로 분석하여 해당 통계지표 값으로 활용함.

[표 I-2-1] 조사방법 및 기간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표본 크기	500명(인구비례에 따라 성별 할당)
조사 기간	- 온라인: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15일 - 오프라인: 2022년 7월 18일 ~ 2022년 7월 22일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병행 -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조사 - 전문리서치 조사업체 패널 활용 60대 이상의 경우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에서 복지관 등 통해 협조 요청
자료처리 및 분석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량 분석

[표 I-2-2] 서초구 인구비례에 따른 성별/연령별 표본할당

구분	모집단			표본 할당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320,078	168,722	151,356	500	257	243
20대 이하	54,871	28,423	26,448	92	47	45
30대	57,640	31,182	26,458	95	50	45
40대	73,159	39,005	34,154	107	55	52
50대	61,369	30,932	30,437	100	50	50
60대 이상	73,039	39,180	33,859	106	55	5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월간자료(22년 4월 기준)

[표 I-2-3] 조사내용

구분	내 용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경제활동, 결혼여부, 자녀여부
경제활동분야	- 서초구민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 평일 및 주말 시간활용 실태 - 서초구민 소득활동 상태 - 취업 및 근무환경 실태 - 실업 및 취업희망 실태 -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의사결정분야	- 서초구 구정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의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의 사회문제(경제적계층, 젠더갈등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 서초구 정책결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 활동 참여 경험 및 정책수요 - 구정참여를 위한 정책수요

[표 I-2-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전체	500	100.0
성별	여성	257	51.4
	남성	243	48.6
연령	20대 이하	92	18.4
	30대	95	19.0
	40대	107	21.4
	50대	100	20.0
	60대 이상	106	21.2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2.2
	방배권	93	18.6
	서초권	218	43.6
	양재/내곡권	78	15.6
거주기간	1년 이하	46	9.2
	2년 이상 5년 미만	95	19.0
	5년 이상 10년 미만	102	20.4
	10년 이상 20년 미만	120	24.0
	20년 이상	137	27.4
경제활동 여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369	73.8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31	26.2
결혼상태	비혼 또는 미혼	168	33.6
	기혼	325	65.0
	기타	7	1.4
자녀유무	있다	317	63.4
	없다	183	36.6

3

지표체계의 구성 방향

1)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지표 개발 방향

(1)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표와 연계

- 지역성평등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성평등 지수를 개발·보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 지수를 개발·보급하여야 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중 경제활동 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속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3개 지표로 구성됨.
-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영역은 크게 인력 현황, 여성 취업, 근로조건, 고용안정, 노사관계, 취업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함.
- 아래의 경제활동분야 영역별 세부지표는 전국 또는 시도별로 산출할 수 있는 지표로 변수 특성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지표는 ‘비고’로 표시함.
- 영역별 세부 지표는 전국 또는 시·도 수준의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통계자료는 생산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성 있음.

[표 I-3-1]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영역 및 세부지표

지표영역	세부지표	비고
인력현황	• 경제활동인구	• 성·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별
	• 실업자 및 실업률	• 성·연령·교육정도 등
	• 비경제활동인구	• 성·활동상태별
	• 구직단념자	• 성별
여성취업	• 고학력 경력단절 인구규모	• 성·교육정도별
	• 취업자	• 성·연령·교육정도·산업·종사상지위·취업시간별
	• 36시간 미만 취업자 직업분포	• 성·혼인상태·산업별 및 직업별
	• 사업체 대표자 분포 • 사업체 종사자 분포	• 시도 산업·성별
	• 여성경영인 종사자수	• 성·산업·기업규모별
	• 경력단절여성 현황	• 시도, 연령·교육정도별
	• 경력단절 사유	• 시도, 연령·교육정도별
근로조건	• 근로자의 평균임금	• 성·산업대분류별·직종·연령·교육정도별
	• 소규모사업체근로자 평균임금	• 성·산업중분류별·직종·연령·교육정도별
	• 근로자의 초임월급 비교	• 성·산업중분류별
	• 임금격차	• 성·교육정도별
고용안정	•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 성·종사자규모별
	• 입직자수	• 성·교육정도·산업대분류별
	• 이직자수	• 성·근무연수·산업대분류별
	• 산업재해자수	• 성·산업별
	• 장애인의 구인·구직 및 취업현황	• 성·연령·임금대·장애유형별 등
	• 사업체의 장애인 구인 및 취업	• 성·산업별
	• 임직율 및 이직률	• 성·산업·규모별 등
노사관계	• 노조연맹별 조동조합, 조합원수	• 성별
취업에 대한 태도	• 직업선택요인	• 성·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취업여부별
	•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 성·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취업여부별
	• 여성취업 장애요인	• 성·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취업여부별
	• 근로만족도(업무·인사관리·임금·복리후생·직장 미래성 등)	• 성·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근로상태별
	• 근무환경·인간관계·근로시간·직장성희롱 방지노력·근로만족도	• 성·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근로상태별
	•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 성·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별

자료: 성인지통계시스템(gsis.kwdi.re.kr)

(2) 구민의 서초구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반영

-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 구성은 전국 및 서울시가 생산한 객관적 지표 외에 실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민의 일자리 환경 및 소득활동 상태, 미취업 사유 및 취업 희망 여부,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등 서초구민의 경제활동 관련한 주관적 상태 및 인식 정도를 주관적 통계 지표로 구성함.
- 따라서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의 지표 구성은 객관적 통계지표와 주관적 인식지표로 구성하며, 각 통계지표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기초통계는 통계청, 서울시 및 서초구가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함. 지역별고용조사 및 서울서베이 자료의 경우 서초구 자료를 다운받아 재분석함. 서초구 사업체조사 보고서는 서초구가 생산한 조사보고서 통계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 한편, 주관적 인식 통계는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총 500명을 성별로 비례 할당하여 설문조사 하였음. 웹 기반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가 구조화된 질문에 응답·제출함.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웹 접근성이 낮은 한계로 인하여 연령대의 할당인원이 미충족된 경우에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함.

[표 I-3-2]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지표 구성

구분	기초통계	주관적 인식 통계
자료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서울시: 서울서베이 • 서초구: 서초구 사업체조사·사회조사 보고서	• 구민대상 설문조사(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병행실시) • 조사규모: 500명(성별/연령별 할당)
지표 영역	• 경제활동 현황 • 취업현황 • 근로조건 • 사업체현황 • 취업에 대한 태도	•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 시간활용 실태 • 소득활동 상태 • 근무환경 만족도 • 구직 및 취업희망 인식 • 취업지원 및 정책 수요

2)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지표 개발 방향

(1)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표와 연계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중 의사결정분야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속해 있으며, 관련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위원회 비율 등 4개의 지표로 구성됨.

[표 I-3-3]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의사결정분야 지표 구성

구분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비고(계산방법)
의사결정 분야	• 국회의원 비율	• 광역 및 기초의원비율	•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광역의원 성비와 기초의원 성비 평균
	•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대상 남녀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 관리자 비율	• 관리직 비율	• 대상 남녀 취업자 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비율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	•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출처: 김경희 외(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주재선 외(2020). 2020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영역은 크게 정치 및 사회참여, 행정참여, 사회 및 단체활동 등으로 구성함.
- 영역별 세부지표는 전국 또는 시·도 수준의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통계자료는 생산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표 I-3-4]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영역 및 세부지표

지표영역	세부지표	비고
정치 및 사회참여	•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 유권자수 및 투표율	• 성, 연령(투표가 가능한 만 19세 이상 유권자수)
	•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 성, 시도별, 정당별
	•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 성, 시도별, 정당별
	•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선거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	• 성, 시도별, 선거별
	•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	• 성, 시도별, 선거별
	•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의 입후보자 및 당선 자수	• 성, 시도별
행정참여	• 5급 이상 자치단체 공무원 현황	• 성, 시도별
	• 공무원 채용고시 합격자	• 성별
	• 공무원수	• 성, 직급별, 기관별
	• 관리직 여성 공무원 현황	• 일반직 공무원 대상 • 중앙은 4급, 지자체는 5급 기준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광역/기초자치단체) 참여 현황	• 과제건수, 기관별, 예산규모별
	• 근무연수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	• 성, 직급별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 분야, 성비
	• 여성 법조인 현황	• 직업별
사회 및 단체활동	• 단체참여	•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 자원봉사활동	•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가 여부	•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	•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 현금 기부비율 및 기부방법	•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 15세 이상 인구의 계층 의식 및 다 음세대 계층 이동	•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 가구주의 계층의식 및 다음 세대 계층이동	•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 종교인구	• 성, 연령, 행정구역별
	• 사회생활에서 성차별 인식	•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자료: 성인지통계시스템(gsis.kwdi.re.kr)

(2) 구민의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활동에 대한 인식 반영

-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 구성은 전국 및 서울시가 생산한 객관적 지표 외에 실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민의 구정활동 참여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 구정 참여 또는 지역사회참여 활동 경험 및 정책수요 등 서초구민의 의사결정분야 활동 관련한 주관적 상태 및 인식 정도를 주관적 통계 지표로 구성함.
- 기초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및 서초구가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함. 서초구 행정통계자료는 서초구에 자료요청을 통해 내부자료를 재구성함.
-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I-3-5]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지표 구성

구분	기초통계	주관적 인식 통계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서울시: 서울서베이 • 서초구: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 구민대상 설문조사(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병행 실시) • 조사규모: 500명(성별/연령별 할당)
지표영역	• 선거참여현황 • 정치참여(의원, 기초단체장) • 행정참여 • 사회 및 단체활동	• 구정활동참여 인식 • 공정성에 대한 인식 • 구정참여 경험 및 참여계획 • 지역사회 참여경험 및 참여계획 • 구정참여 정책수요



서초구 경제활동·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주요결과

1. 경제활동분야
2. 의사결정분야

II

서초구 경제활동·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주요결과

1

경제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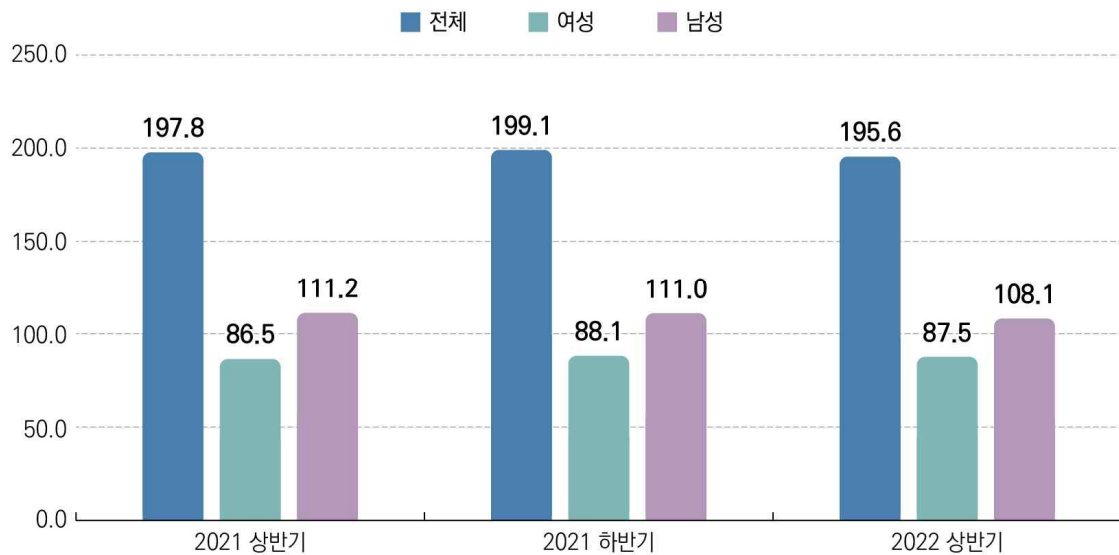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기초통계를 활용한 ‘서초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인구’의 성별통계와 ‘경력단절 여성 및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봄.
- 본 보고서에서 서초구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서초구민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주말 및 주중 성별 평균 활동시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 ‘서초구민 일자리 관련 정보’ 등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함.

□ 경제활동인구

- 서초구 2022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는 195.6천명이며 이는 2021년 상반기에 197.8천명에 비해 2.2천명 감소함.
- 2022년 상반기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87.5천명, 남성 108.1천명으로 여성 44.7%를 차지함. 2021년 상반기에 비해 여성은 1천명 증가한 반면, 남성은 3.1천명 감소함.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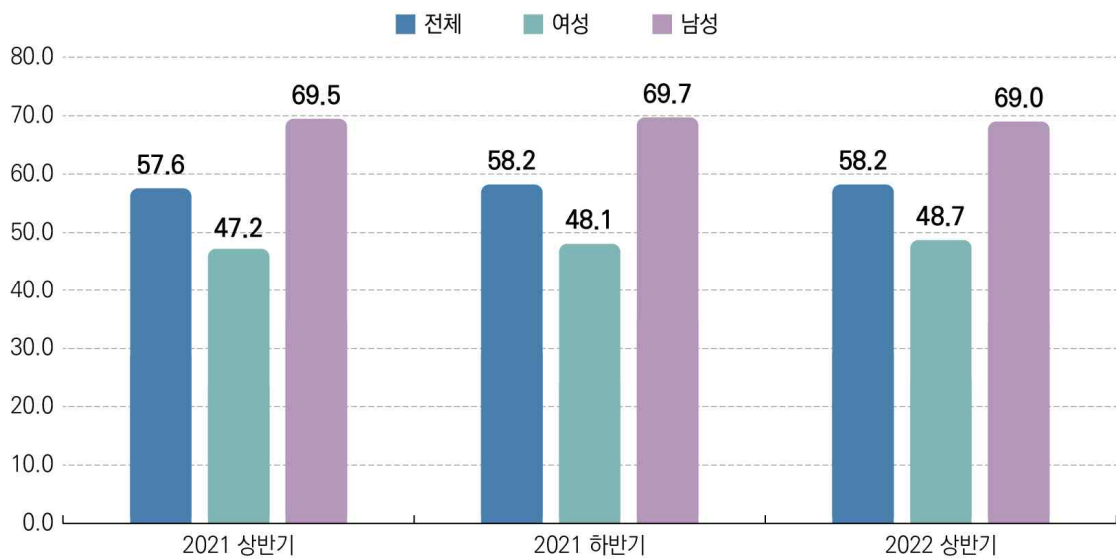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상·하반기, 2022 상반기).

[그림 II-1-1]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서초구 2022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58.2%이며, 2021년 상반기 57.6%에 비해 0.6%p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8.7%. 남성 69.0%로 20.3%p 성별 격차를 보임.
- 2021년 상반기에 비해 여성은 1.5%p 증가한 반면, 남성은 0.5%p 감소하였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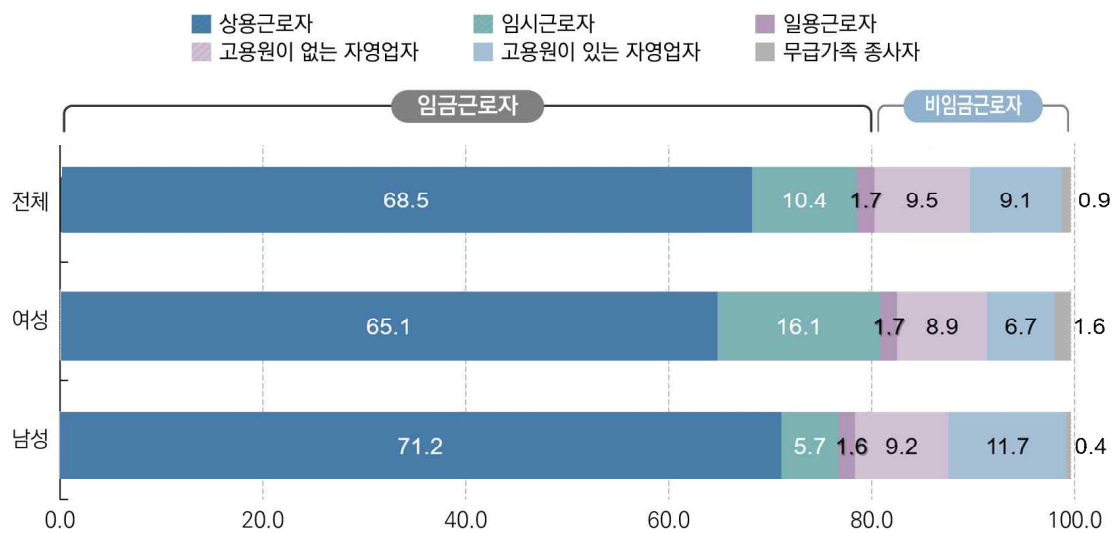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상·하반기, 2022 상반기).

[그림 II-1-2]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자

- 2021년 하반기 서초구 취업자는 191,005명으로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가 68.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임시근로자 10.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1% 순임.
- 성별로 여성은 상용근로자가 65.1%로 남성 71.2%에 비해 6.1%p 낮음. 반면 임시근로자는 여성 16.1%, 남성 5.7%로 여성이 10.4%p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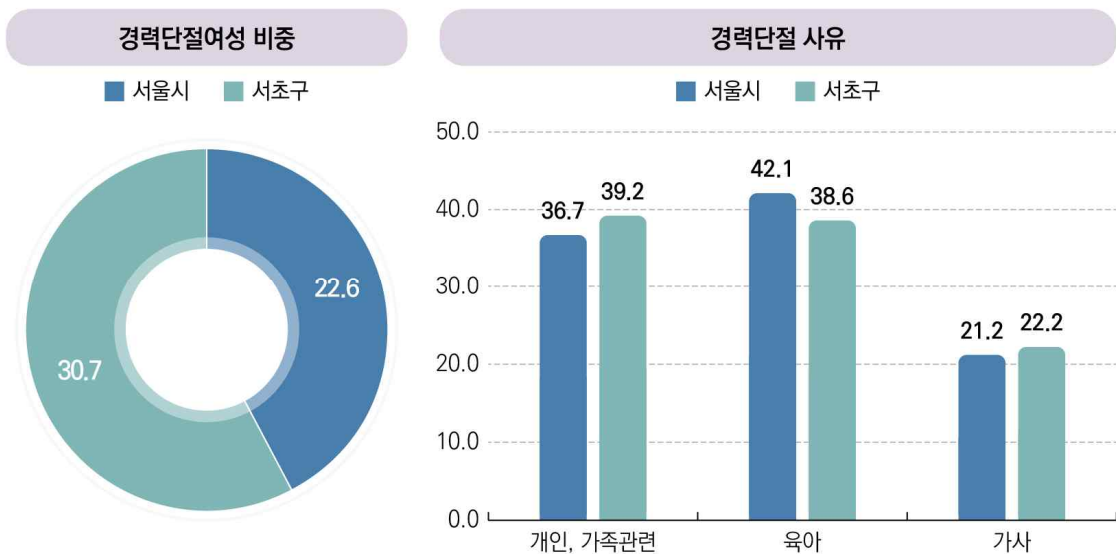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그림 II-1-3]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21)

□ 경력단절여성 및 경력단절 사유

- 서초구의 15~54세 기혼여성 69,648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30.7%로 서울시 전체 평균 22.6%에 비해 8.1%p 많음. 이는 서초구 여성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 수요가 그만큼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됨.
- 경력단절여성의 사유 중 결혼, 임신·출산 등을 ‘개인 및 가족적’ 사유로 보고, ‘육아’, ‘가사’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 서울시는 개인·가족 관련 이유가 36.7%, 육아 42.1%, 가사 21.2%로 육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서초구는 개인·가족 관련 이유가 39.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육아로 인한 이유는 38.6%로 그 차이는 크지 않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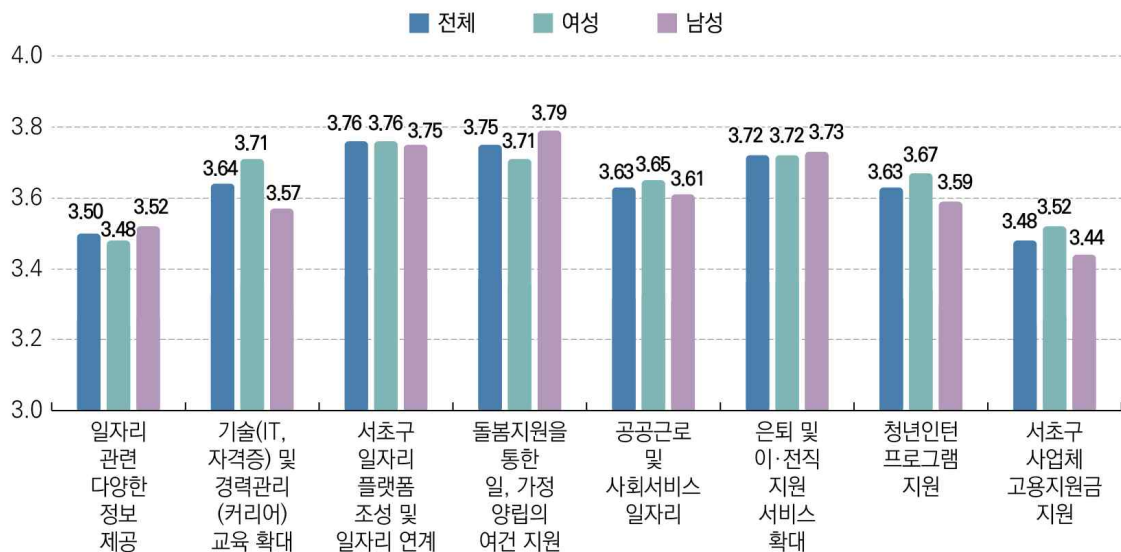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상반기)

[그림 II-1-4] 서울시와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비중과 사유

□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요의 시급성 정도를 파악한 결과, ‘서초구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 ‘돌봄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각 3.76점, 3.7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냄.
- 성별로 여성은 ‘기술 및 경력관리 교육확대’,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인턴 프로그램 지원’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돌봄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여건지원’, ‘은퇴 및 이직 지원서비스 확대’ 항목에서 여성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성별에 따른 정책수요의 시급성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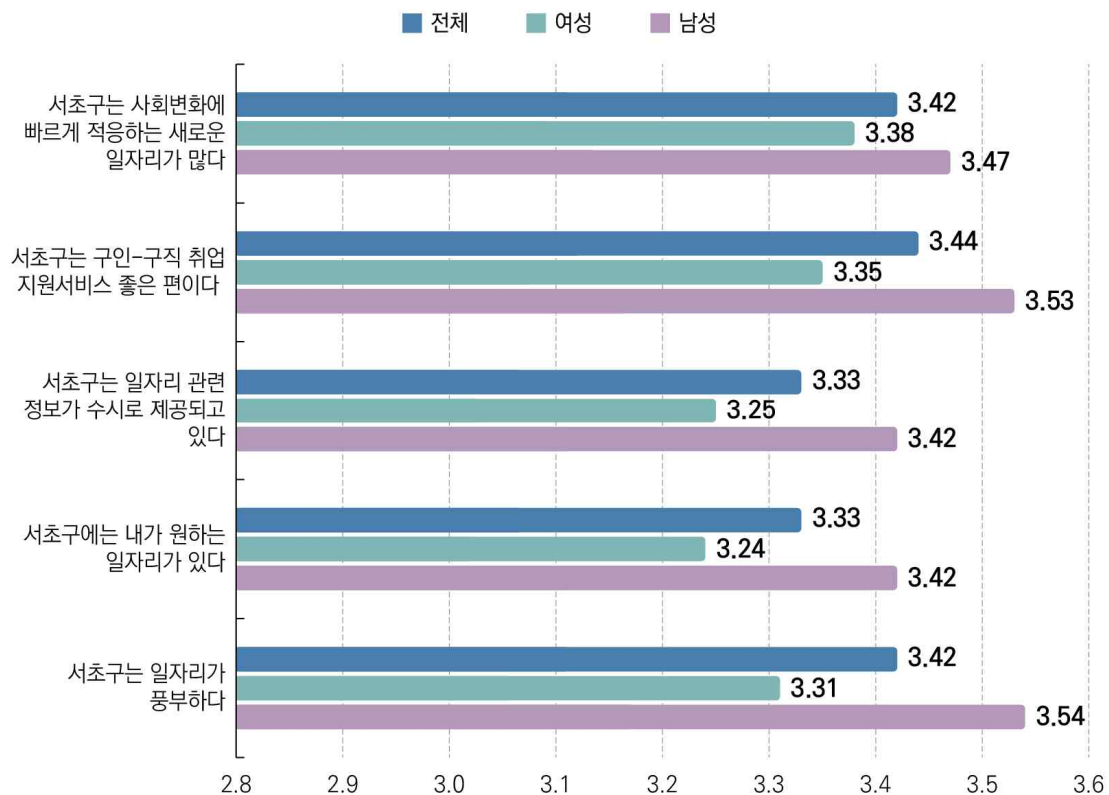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1-5]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 서초구민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이 생각하는 서초구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를 다섯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그림 II-1-6 참고)
- 5개 항목 모두에서 남성의 인식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를 볼 수 있음. ‘일자리가 풍부하다’에 대해 5점 척도 일 때, 남성 3.54점으로 여성 3.31점에 비해 0.23점 높게 나타남. ‘서초구는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가 좋은 편이다’는 남성 3.53점, 여성 3.35점으로 0.18점 남성의 긍정인식이 높았음.
- 여성의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항목은 ‘서초구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3.24점으로 남성 3.42점에 비해 0.18점 차이를 보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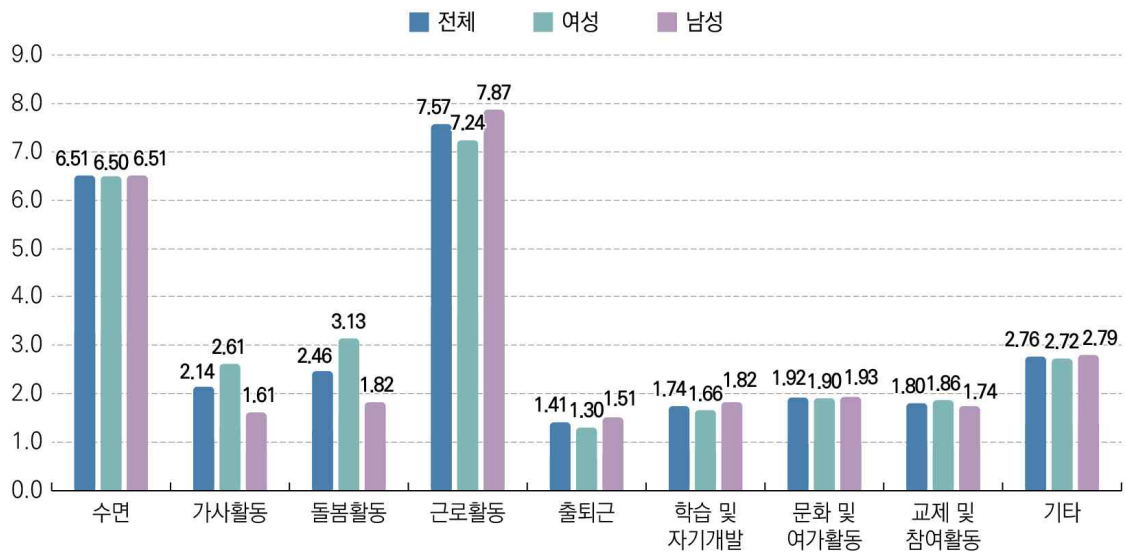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1-6] 성별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 주말 및 주중 성별 평균활동 시간

- 성별 주중 평균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활동은 가사활동, 돌봄활동임. 이중 가사활동은 2.61시간으로 남성 1.61시간에 비해 1.00시간 길고, 돌봄활동은 여성 3.13시간, 남성 1.82시간으로 1.31시간 차이가 남.
- 한편, 남성이 상대적으로 긴 활동시간은 근로활동, 출퇴근시간, 학습 및 자기개발로 분석되었고, 특히 근로활동은 여성에 비해 0.63시간 길게 나타남.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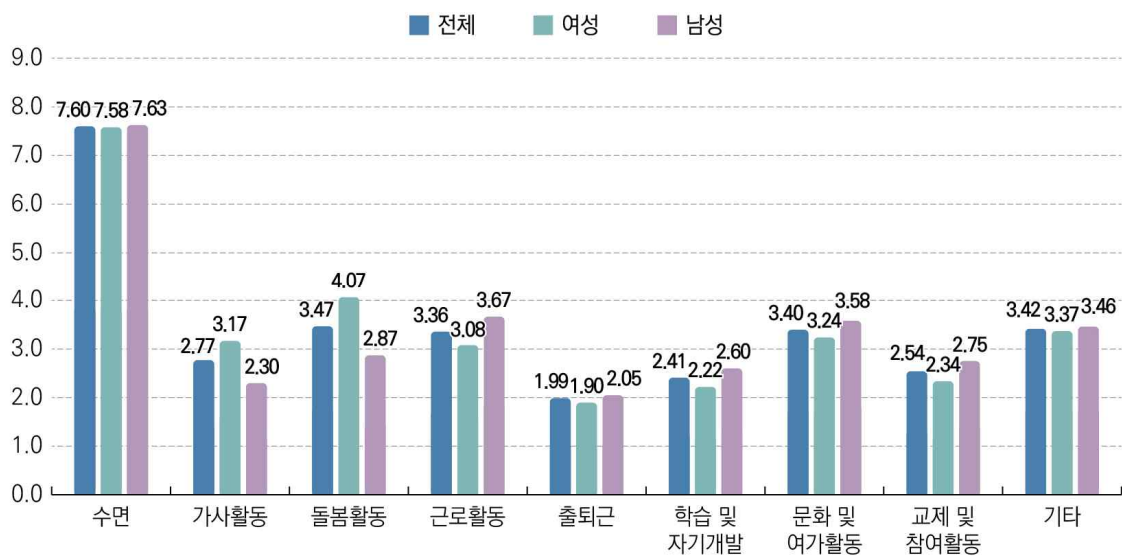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1-기] 주중 성별 평균 활동 시간

- 한편, 주말 평균 활동시간의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활동 항목은 가사활동과 돌봄활동으로 여전히 여성의 평균 활동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됨(가사활동 여성 3.17시간, 남성 2.30시간, 돌봄활동 여성 4.07시간, 남성 2.87시간).
- 남성이 상대적으로 긴 활동시간은 근로 활동(여성 3.08시간, 남성 3.67시간), 문화 및 여가활동(여성 3.24시간, 남성 3.58시간), 교제 및 참여활동(여성 2.34시간, 남성 2.75시간)으로 나타남.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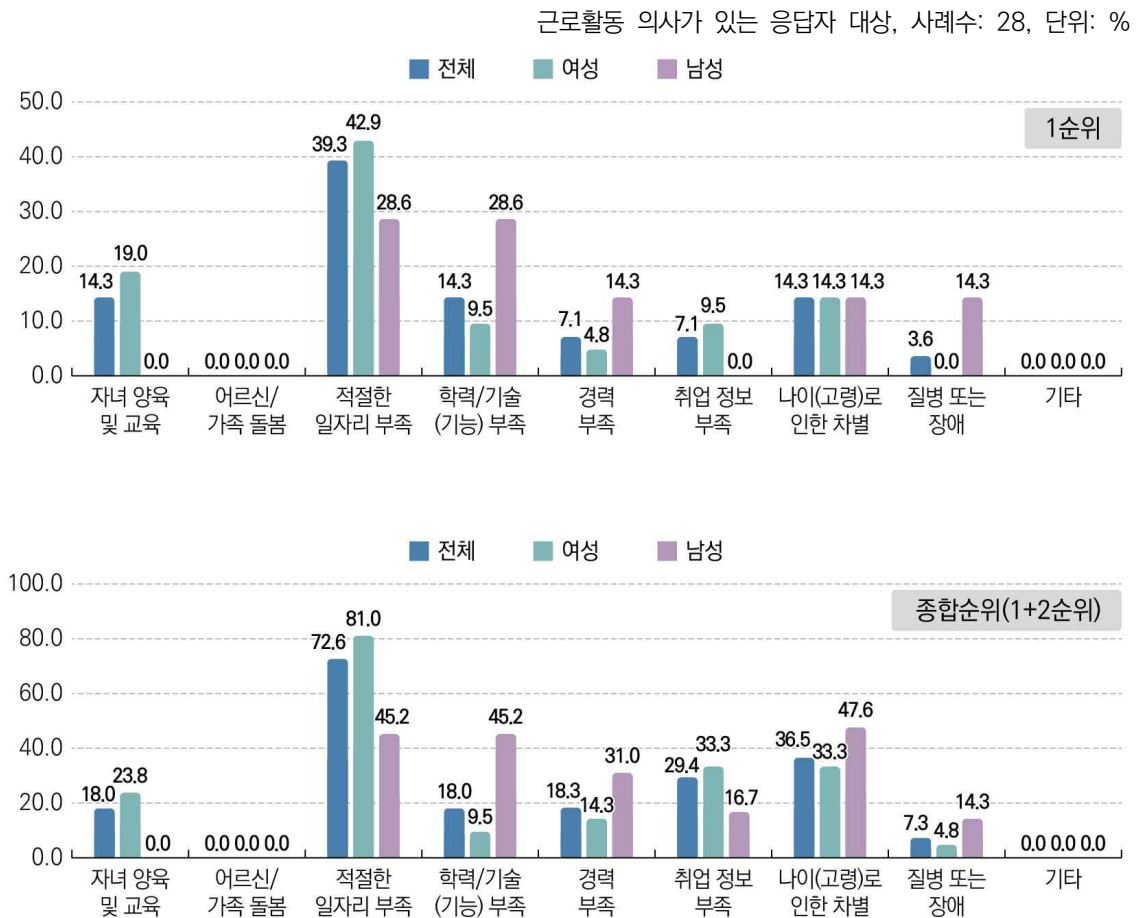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1-8] 주말 성별 평균 활동 시간

□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

-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서초구민에게 근로활동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성 80.8%, 남성 77.8%가 근로활동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성의 경우, ‘적절한 일자리 부족’(42.9%), ‘자녀양육 및 교육’(19.0%)을 1순위로 꼽음. 남성의 경우, ‘적절한 일자리 부족’과 ‘학력/기술부족’(28.6%)을 1순위로 꼽아, 여성이 ‘자녀양육과 교육’을 이유로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2순위로 꼽은 것과 비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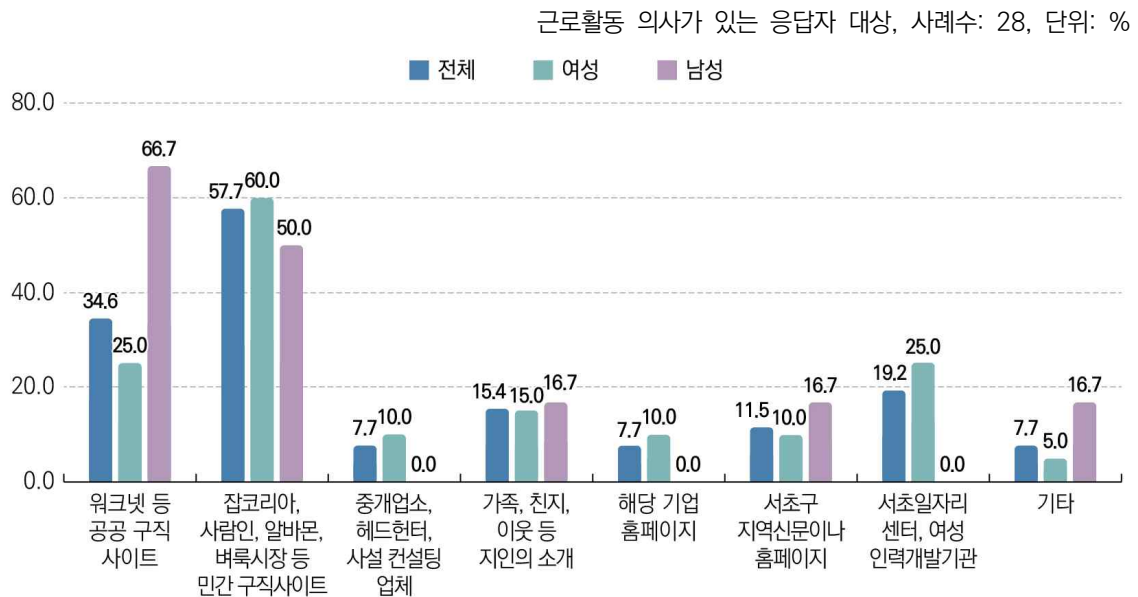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1-9]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

□ 서초구민 일자리 관련 정보

○ 구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귀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아보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벼룩시장 등 민간 구직사이트 57.7%, 워크넷 등 공공구직 사이트 34.6%, 서초일자리센터 및 여성인력 개발기관 19.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민간구직 사이트(60.0%), 남성은 공공구직 사이트(66.7%)를 통한 일자리 정보 획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1-10] 일자리 관련 정보 경로

2

의사결정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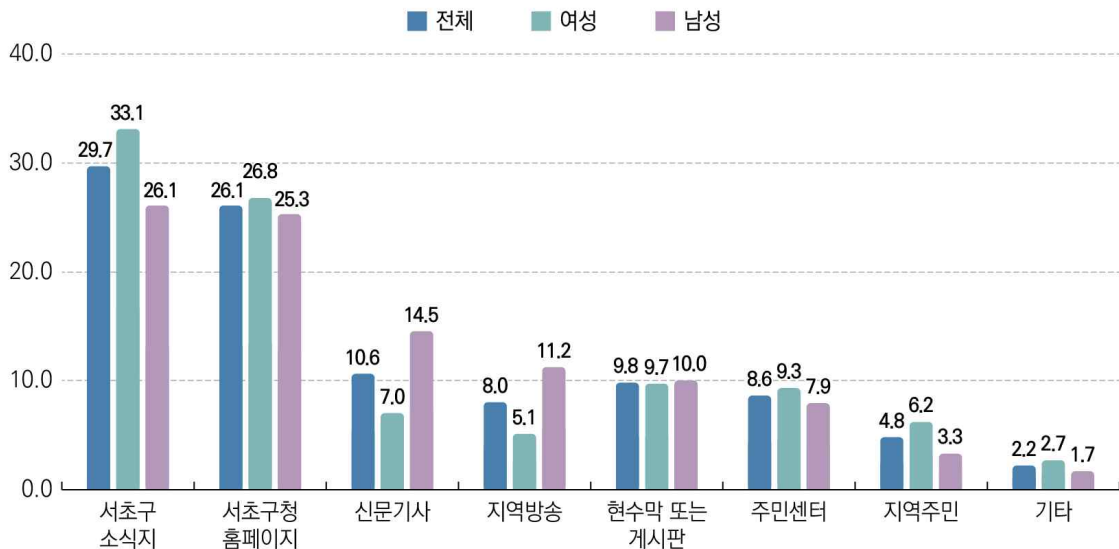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본 보고서에서 서초구민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함. ‘최신 구정정보 접하는 경로’와 ‘남녀성별에 따른 대우’, ‘소득과 자산형성’에서의 성별차이를 살펴봄. 또한 ‘서초구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서초구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코로나 19 이후의 활동변화’, ‘서초구민 구정참여 경험 및 참여계획’, ‘서초구민 지역사회 참여경험 및 참여계획’, ‘가장 필요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 지원’,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과 관련하여 성별의 차이를 분석함.

□ 최신 구정정보 접하는 경로

- 최신 구정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지에 대해, ‘서초구 소식지’와 ‘서초구청 홈페이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은 서초구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남성보다 많이 접하는 반면, 신문기사와 지역방송은 남성들이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초구 소식지 29.7%로 가장 높고, 서초구청 홈페이지 26.1%, 신문기사 10.6%, 현수막 또는 게시판 9.8%, 주민센터 8.6%, 지역주민 4.8%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서초구 소식지(33.1%)와 서초구청 홈페이지(26.8%)를 통해 구정 정보를 접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남성은 신문기사(14.5%), 현수막 또는 게시판(10.0%)을 통해 접근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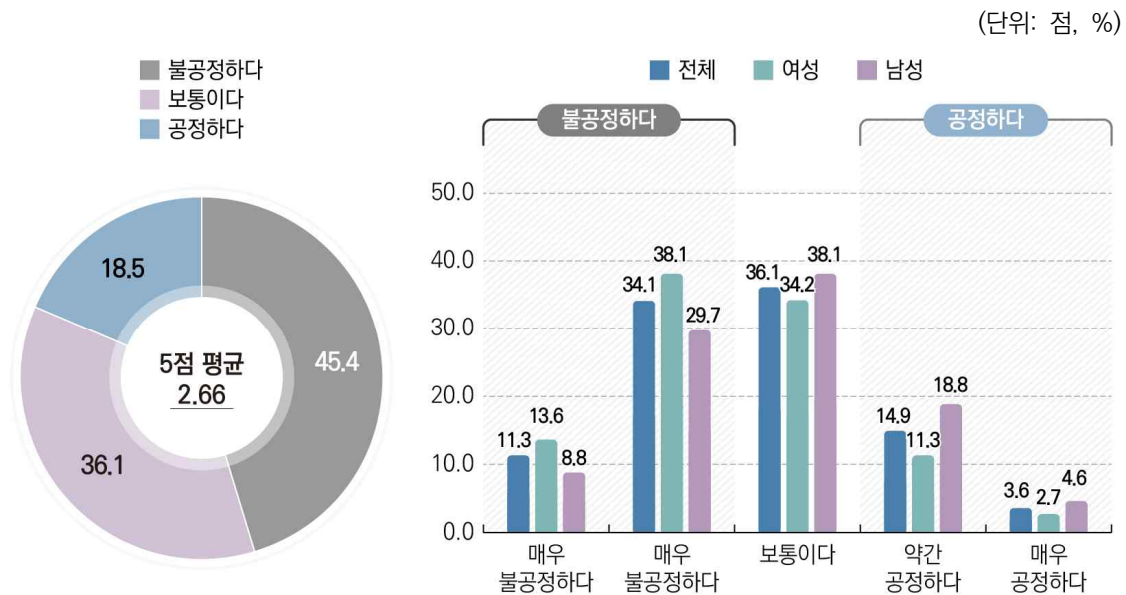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2-1] 최신 구정정보 접하는 경로

□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4%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함. 관련하여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가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8.5%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45.4%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66임. 여성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51.7%로 나타나, 남성 38.5%와 비교할 때 13.2%p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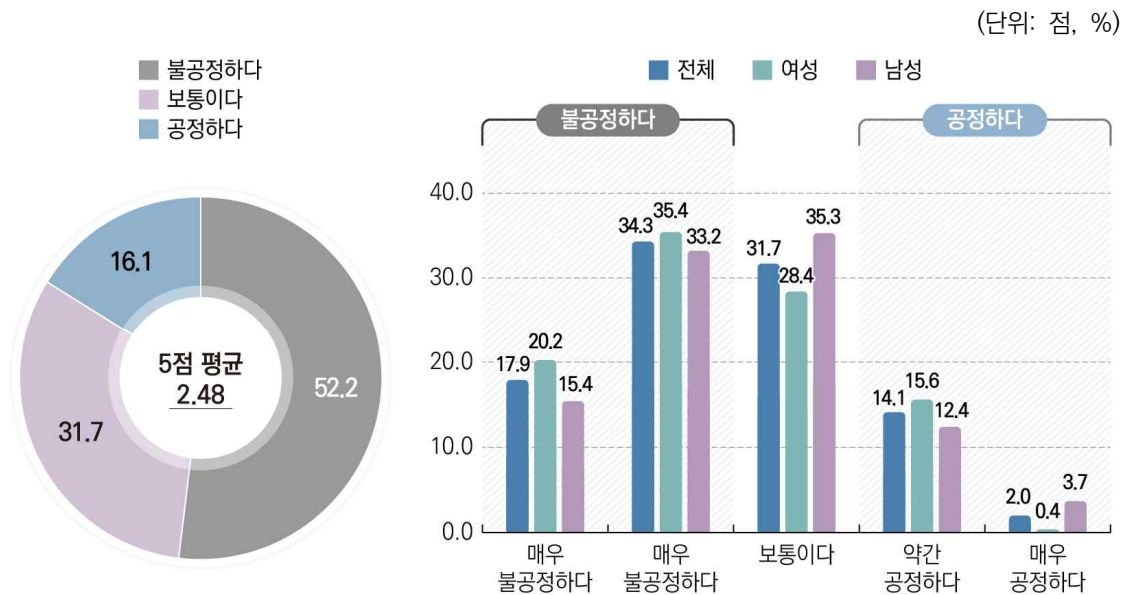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2-2]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 소득과 자산 형성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서 소득이나 자산형성이 어느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2.2%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함. 관련하여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16.1%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52.2%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48점임. 성별로 여성은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55.6%로 남성 48.6%와 7.0%p 차이가 나타남.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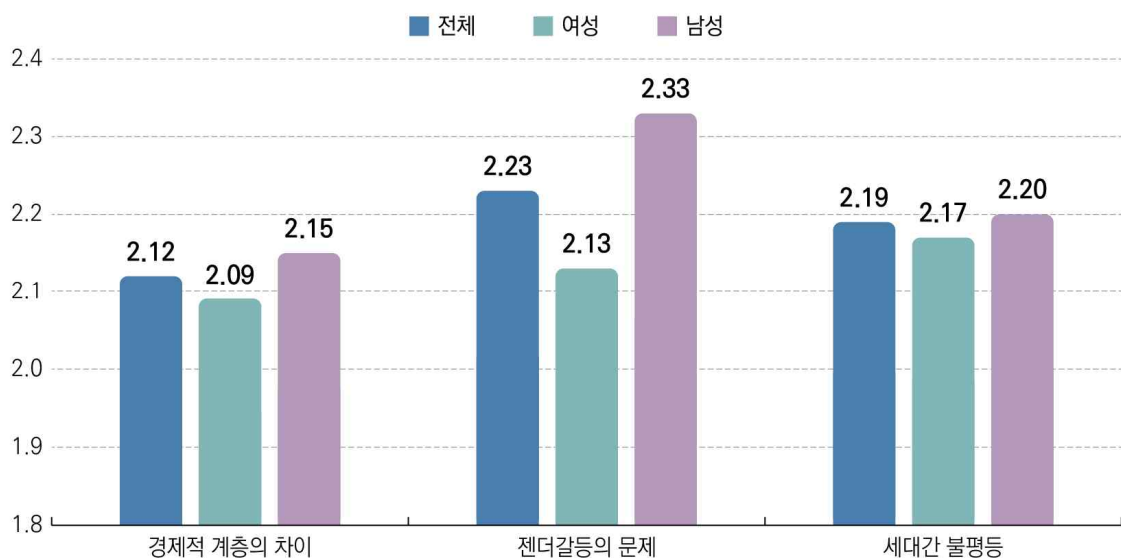
[그림 II-2-3] 소득이나 자산 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차이(양극화, 불평등)’, ‘젠더갈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5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3점 이하의 점수가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점수가 낮을수록 매우 심각함을 의미).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경제적 계층의 차이’로 5점 만점 중 평균 2.12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세대간 불평등’ 2.19점, ‘젠더갈등의 문제’도 2.2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경제적 계층의 차이’로 여성이 2.09점 남성이 2.15점임. 남녀간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젠더갈등의 문제’로서 여성이 2.13점인데 비해 남성은 2.33점으로 0.2점 차이가 나타남.

(단위: 점)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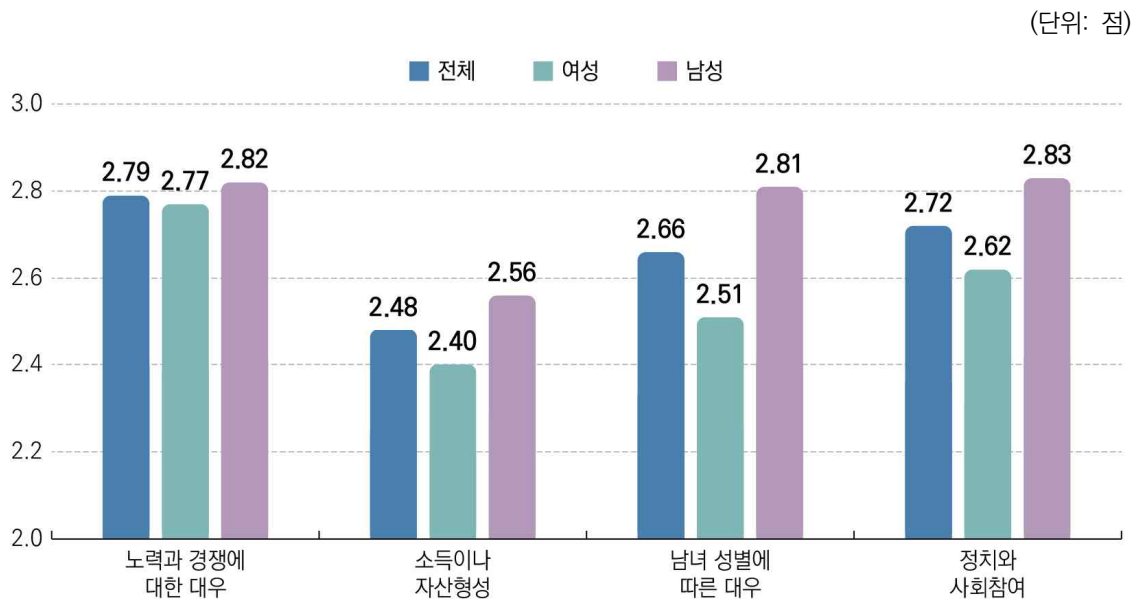
주: 본 문항의 평균값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역코딩(1점 매우 심각하다~5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하여 산출된 값으로, 평균값이 낮을수록 매우 심각함을 의미함

[그림 II-2-4] 사회 공정성(경제적 계층, 젠더 갈등,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항목이 어느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5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 ‘경력에 대한 대우’가 평균 2.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치와 사회참여’ 2.72점,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2.66점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형성’이 2.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여성은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소득이나 자산형성’이 2.40점임. 남녀 간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로서 여성이 2.51점 인데 비해 남성은 2.81점으로 0.3점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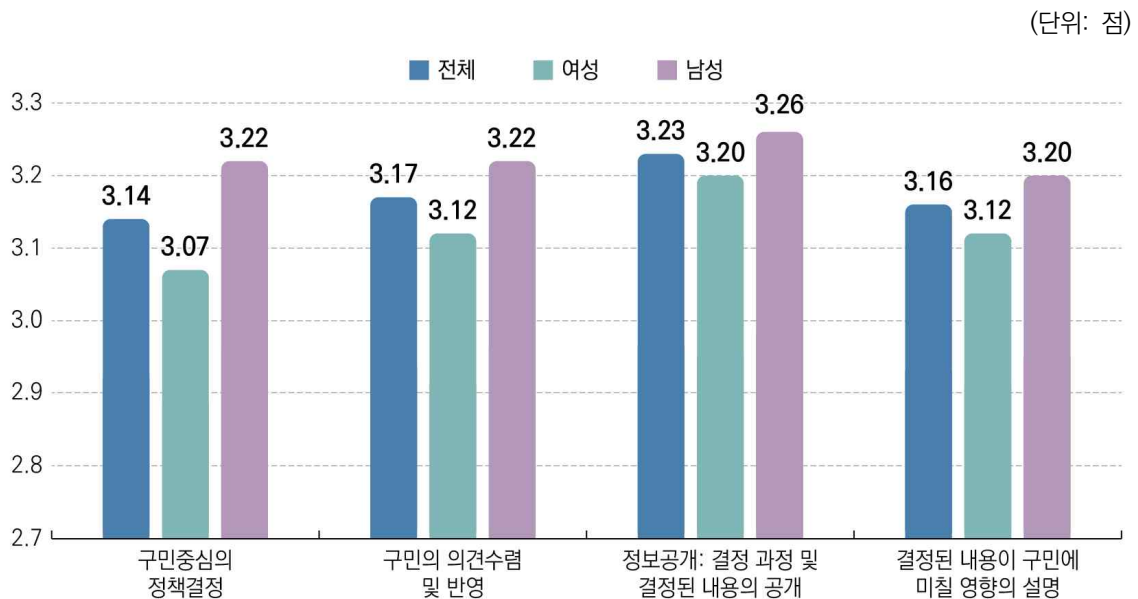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2-5]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서초구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5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 ‘정보공개’가 평균 3.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구민중심의 정책결정’의 경우, 여성이 3.07점인데 비해 남성은 3.22점으로 나타났고,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의 경우, 여성이 3.12점, 남성이 3.22점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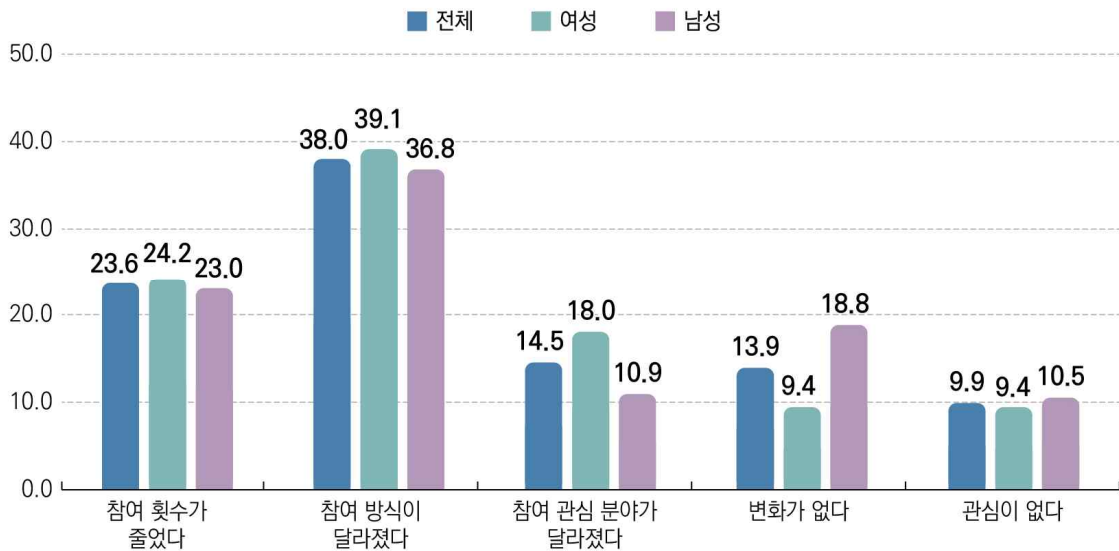
[그림 II-2-6] 서초구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 이후의 활동 변화

○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의 활동참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참여 방식이 달라졌다’(39.1%)와 ‘참여 횟수가 줄었다’(24.2%)에 다수가 응답함. 남성의 경우 ‘변화가 없다’고 인지한 경우가 여성보다 많았고, 여성은 ‘참여관심 분야가 달라졌다’에 대해 남성보다 많이 응답함.

- ‘참여 방식이 달라졌다(온라인/비대면 등)’이 3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참여 횟수가 줄었다’ 23.6%, ‘참여관심 분야가 달라졌다(건강, 안전문제 등)’이 14.5%로 나타남. ‘참여관심 분야가 달라졌다’에 대해 여성이 18.0%로 남성(10.9%)보다 7.1%p 높게 나타났고, ‘변화가 없다’의 경우, 남성이 18.8%로 응답하여 여성(9.4%)보다 9.4%p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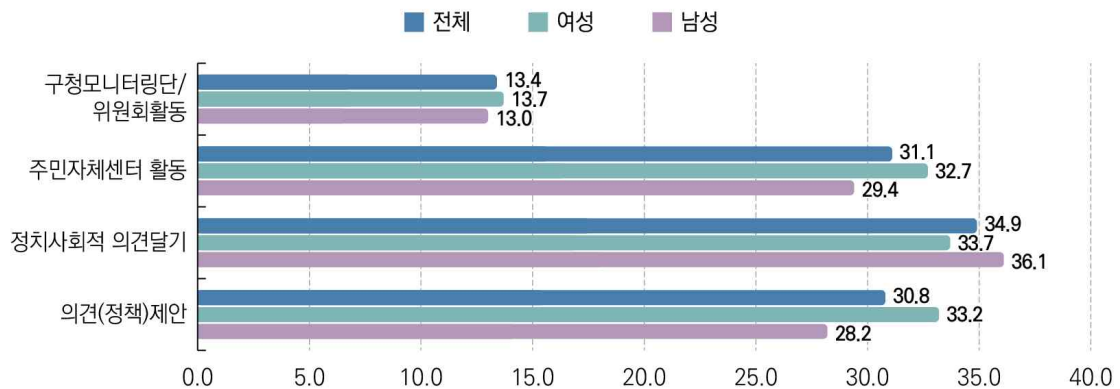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2-7] 코로나19 이후 활동 변화

□ 서초구민 구정참여 경험 및 참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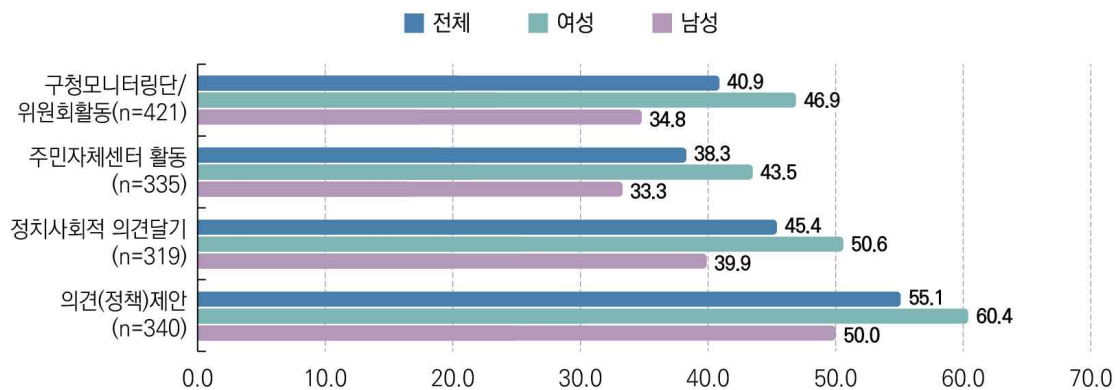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다음의 활동에 대해 구정참여 경험여부와 계획여부를 조사함.
여성의 경우 의견(정책)제안(33.2%)과 주민자치센터 활동(32.7%)의 경험이 남성에 비해 많았고, 남성은 정치사회적 의견달기(36.1%)에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구정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계획 여부를 묻은 결과, 의견제안이 여성 60.4%, 남성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 II-2-8] 구정참여 경험

(구정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서초구민 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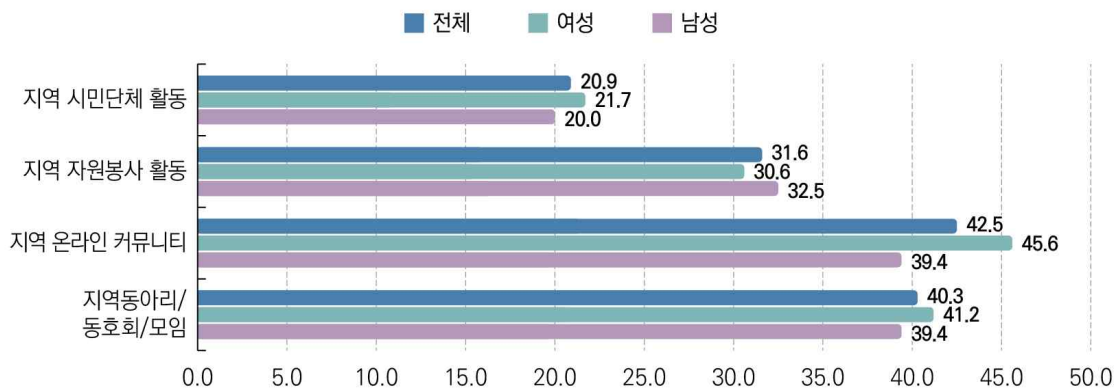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2-9] 구정참여 계획

□ 서초구민 지역사회 참여 경험 및 참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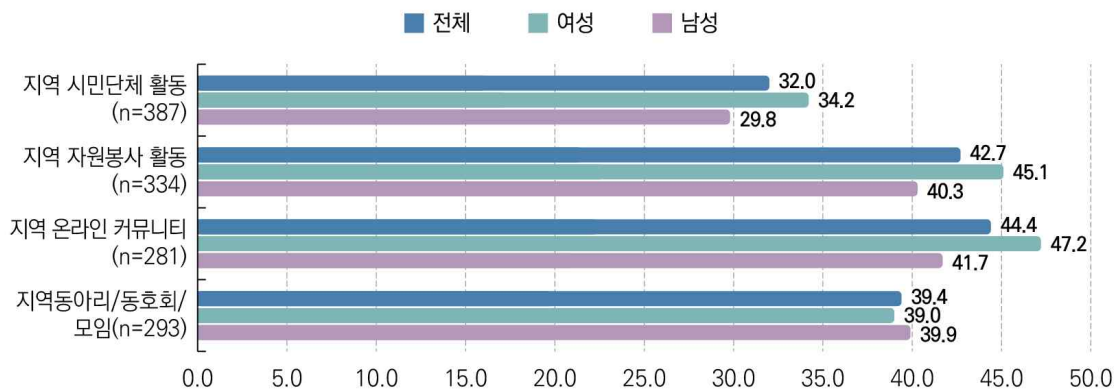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다음의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 참여 경험여부와 계획여부를 조사함. 여성의 경우 지역온라인 커뮤니티 활동(45.6%)과 지역동아리/동호회/모임 활동(41.2%)의 경험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참여계획 여부를 묻은 결과, 지역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여성 47.2%, 남성 44.4%)과 자원봉사활동(여성 45.1%, 남성 42.7%)이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 II-2-10] 지역사회 참여 경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서초구민 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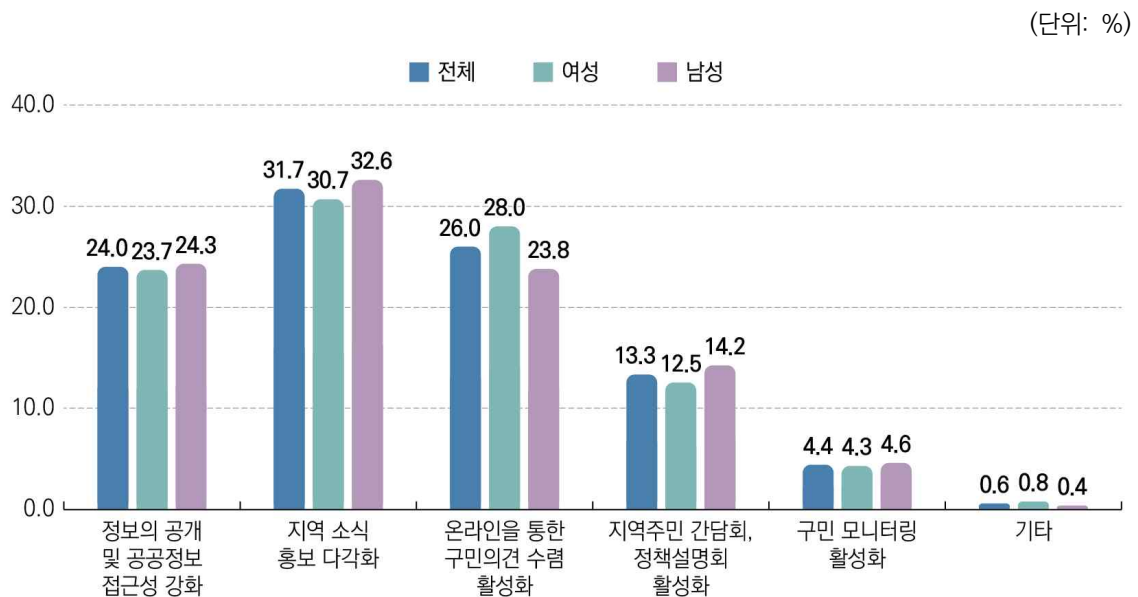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2-11] 지역사회 참여 계획

□ 가장 필요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 지원

- ‘서초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서초구민은 ‘지역소식 홍보 다각화’를 전체 응답자의 31.7%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이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 활성화(게시판, 어플 등)’이 26.0%, ‘정보의 공개 및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24.0% 순임. 성별로 살펴볼 때, 남성이 ‘지역소식 홍보 다각화’에서 32.6%로 여성(30.7%)보다 1.9%p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 활성화’에서 28.0%로 남성(23.8%)보다 4.2%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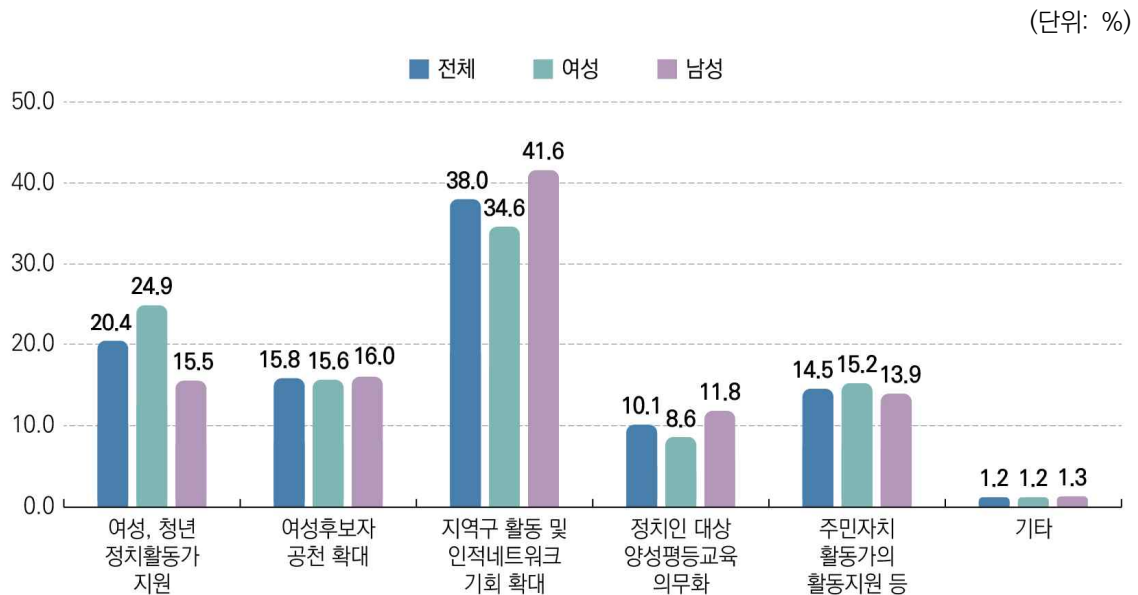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2-12]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 지원

□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한 필요한 지원

- ‘서초구에서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와 관련하여 높은 비율로 서초구민 전체 응답자의 38.0%가 ‘지역구 활동 및 인적네트워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여성, 청년 정치활동가 지원’이 20.4%, ‘여성 후보자 공천 확대’ 15.8% 순임. 성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지역구 활동 및 인적네트워크 기회 확대가 각 34.6%, 41.6%로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7.0%p 높게 나타남.



자료: 2022 서초구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II-2-13]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III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

1. 경제활동분야 통계 개요
2. 경제활동분야 기초통계
3. 경제활동분야 구민인식조사 결과
4. 경제활동분야 특성

III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

1

경제활동분야 통계 개요

- 이와 같은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 지표를 토대로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성인지 통계지표를 구성함.
-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성인지통계 지표영역은 경제활동인구, 취업현황, 사업체, 취업에 대한 태도로 구분함.
- 각 지표영역별 현황 지표는 통계청,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 생산한 통계를 사용하고, 각 지표영역별 구민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세부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한 구민인식조사 통계를 활용함.

[표 III-1-1]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지표영역별 세부지표

구분			세부 지표	비고(자료출처)
경제활동 현황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 성별 15세이상 인구 • 성별 경제활동인구 • 성별 고용률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분석
		실업자	• 실업자 및 실업률 • 성별 직장을 그만둔 이유 • 성별, 연령별 퇴직기간 1년이상 구민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비경제활동인구		•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 경력단절여성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현황	취업자 특성		•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교육정도별 취업자 •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분석
	취업구조		•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근로조건	임금		• 성별 월평균 임금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근로시간		• 성별 주평균 근로시간	
	만족도		• 성별 근로여건 만족도 • 성별 전반적 일자리, 업무, 인사관리, 급여 만족도 • 성별 복리후생 만족도 • 성별 소득만족도	2021 사회조사 (통계청) 원자료 분석
사업체	사업체 현황		• 성별 산업분류별 대표자수 및 종사자 수 • 동별 사업체수 및 성별 대표자 수 • 동별 사업체 수 및 성별 종사자 수	서초구 사업체조사보고서 (2019년 기준)
취업에 대한 태도	직업선택요인		• 성별 직업선택 요인(1순위)	2021 사회조사 (통계청) 원자료 분석

- 한편, 경제활동분야의 주관적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분야 주관적 지표영역은 일자리 환경, 평일 및 주말의 시간활용, 소득활동 상태, 근무환경 만족도, 구직 및 취업활동, 취업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를 성별 분석을 통해 파악함.

[표 III-1-2] 서초구 경제활동분야 주관적 인식 세부지표

구분		세부 지표	비고
일자리 환경에 대한 성별 인식	가장 좋은 일자리	-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 실제 선택한 일자리	다지 선다형
	일자리 상황에 대한 평가	- 일자리가 풍부하다 -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 일자리 관련정보가 수시로 제공된다 -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가 좋은 편이다 -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다	5점척도
성별 시간활용	평일 시간활용	수면,가사활동,돌봄,근로,출퇴근,학습 및 자기개발,문화및여가활동,교제,기타	항목별 평균시간
	주말 시간활용	수면,가사활동,돌봄,근로,출퇴근,학습 및 자기개발,문화및여가활동,교제,기타	항목별 평균시간
성별 소득활동 상태	주요소득원	주요 소득원	다지 선다형
	고용형태와 직무	고용형태와 직무	
성별 근무환경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정도 - 만족이유 - 불만족 사유	5점척도, 다지 선다형
성별 구직 및 취업희망 인식	근로활동 여부	- 근로활동 의사 - 구직의사 있으나 근로활동이 어려운 이유	의사 여부 다지 선다형
	정보취득 경로	일자리 관련 정보 취득 경로	다지 선다형
성별 취업지원 정책수요	취업지원의 시급성 정도	- 정보제공 - 기술 및 경력관리 교육 확대 - 일자리 플랫폼조성 및 일자리 연계 - 일-가정 양립 여건 지원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 은퇴 등 이전직 지원서비스 확대 - 청년인턴 프로그램 지원 - 사업체 고용지원금 지원	5점척도
	추가적인 취업지원	기타 취업지원에 대한 의견	개방형 서술

2 경제활동분야 기초통계

1) 인력현황

(1) 경제활동인구

- 2021년 하반기 기준 서초구 15세 이상 인구는 342,392명이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199,12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58.2%를 차지함. 이는 서울시 평균보다 약 3.9%p 낮은 수치임.
- 성별로 여성 15세 이상 인구는 183,056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88,096명으로 48.1%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 54.5%보다 6.4%p 낮은 수치임.
- 남성 15세 이상 인구는 159,336명으로 서초구 15세 이상 인구의 46.5%를 차지함.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111,023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9.7%임.
- 서초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차이는 21.6%p로 서울시 성별 차이 16.1%p에 비해 5.5%p 높음.
- 한편, 서초구 고용률은 55.8%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 46.6%로 서울시 평균 52.5%에 비해 5.9%p낮으며, 남성 고용률은 66.3%로 서울시 평균 67.3%에 비해 1.0%p 낮음.

[표 III-2-1]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 인구(2021)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서울시	합계	8,524,867	5,297,997	3,226,870	62.1	59.5	4.2
	여성	4,477,378	2,439,577	2,037,801	54.5	52.5	3.7
	남성	4,047,490	2,858,421	1,189,069	70.6	67.3	4.6
서초구	합계	342,392	199,120	143,272	58.2	55.8	4.1
	여성	183,056	88,096	94,960	48.1	46.6	3.2
	남성	159,336	111,023	48,312	69.7	66.3	4.8

주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주2: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주3: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2) 실업자

- 2021년 하반기 서초구 미취업자는 151,389명이며, 여성 97,762명, 남성 53,627명으로 여성이 64.6%를 차지함.
- 연령별로 보면 55세 이상이 47.4%로 전체 미취업자의 거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은 15-30세 미만 비중이 25.8%로 전체의 약 1/4를 넘고 있음. 30-50세 미만의 비중도 약 20%를 차지함.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은 30세-50세 미만 미취업자 중 여성비중이 80%를 넘고 있음.
- 미취업자의 혼인상태는 유배우의 비중이 55.3%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미혼 32.1%, 사별 8.0%, 이혼 4.6%로 구성됨.
- 미취업자의 교육정도별 구성은 고졸 45.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중졸 이하 30.7%이고, 전문대졸 이상은 3.5%로 낮음.

[표 III-2-2] 연령·혼인상태별·교육정도별 미취업자(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성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서울시		3,450,474	(100.0)	2,128,879	(100.0)	1,321,595	(100.0)	61.7
서초구		151,389	(100.0)	97,762	(100.0)	53,627	(100.0)	64.6
연령	15세~30세 미만	39,108	(25.8)	19,140	(19.6)	19,968	(37.2)	48.9
	30세~50세 미만	30,418	(20.1)	25,333	(25.9)	5,085	(9.5)	83.3
	50세~55세 미만	10,134	(6.7)	8,512	(8.7)	1,622	(3.0)	84.0
	55세 이상	71,729	(47.4)	44,777	(45.8)	26,952	(50.3)	62.4
혼인 상태	미혼	48,579	(32.1)	23,850	(24.4)	24,729	(46.1)	49.1
	유배우	83,742	(55.3)	59,080	(60.4)	24,662	(46.0)	70.6
	사별	12,130	(8.0)	10,242	(10.5)	1,888	(3.5)	84.4
	이혼	6,936	(4.6)	4,589	(4.7)	2,347	(4.4)	66.2
교육 정도	중졸 이하	46,510	(30.7)	29,670	(30.3)	16,840	(31.4)	63.8
	고졸	68,503	(45.2)	48,101	(49.2)	20,402	(38.0)	70.2
	전문대졸 이상	5,373	(3.5)	1,546	(1.6)	3,827	(7.1)	28.8

*주1: 지역별고용조사의 국가통계포털(KOSIS) 조회 기준에 근거하여 15-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55세 미만, 55세 이상 연령기준을 따름.

*주2: 50-55세 미만의 연령구분은 50대를 전후로 이/전직 활동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 연령 구간의 이/전직 실태를 파악하고자 50-55세 구간을 별도로 제시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 서초구 미취업자 중 퇴직기간 1년이상인 구민은 93,119명이며, 성별로 여성 65,182명, 남성 27,937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70%를 차지함.
- 연령대별로 55세 이상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한 반면, 30-55세의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미취업자 비중도 1/4이상을 넘고 있음.
- 성별×연령대별 특성은 여성 30세-50세 미만, 50세-55세의 미취업자 여성 비중은 각 89.1%, 83.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II-2-3] 성별·연령별 퇴직기간 1년 이상인 구민(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성별			
			여성		남성	
서울시	2,044,271	(100.0)	1,315,366	(100.0)	728,905	(100.0)
서초구	93,119	(100.0)	65,182	(100.0)	27,937	(100.0)
15세-30세 미만	2,676	(2.9)	1,824	(2.8)	852	(3.0)
30세-50세 미만	23,582	(25.3)	21,003	(32.2)	2,579	(9.2)
50세-55세 미만	7,323	(7.9)	6,107	(9.4)	1,216	(4.4)
55세 이상	59,538	(63.9)	36,248	(55.6)	23,290	(83.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 미취업자 중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개인·가족관련 이유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7.0%,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14.8%로 나타남. 이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14.3%, ‘정년퇴직, 연로’ 6.8%, ‘직장의 휴업, 폐업’ 6.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개인, 가족관련 이유 27.4% 외에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19.2%(남성 8.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7.4%(남성 16.4%),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11.5%(남성 18.1%) 등의 순임. 한편, 남성은 ‘육아’ 및 ‘가사’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각각 0.0%를 차지하여 여성 2.2%, 8.7%보다 낮게 나타남. ‘직장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그만둔 사유

가 9.1%로 나타나 여성 4.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4] 성별 전 직장 그만둔 이유(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성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서초구	15,698 (100.0)	9,049 (100.0)	6,649 100			57.6
개인, 가족관련 이유	4,323 (27.5)	2,482 (27.4)	1,841 (27.7)			57.4
육아	200 (1.3)	200 (2.2)	0 (0.0)			100.0
가사	783 (5.0)	783 (8.7)	0 (0.0)			100.0
심신장애	328 (2.1)	185 (2.0)	143 (2.2)			56.4
정년퇴직, 연로	1,071 (6.8)	472 (5.2)	599 (9.0)			44.1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2,327 (14.8)	1,735 (19.2)	592 (8.9)			74.6
직장의 휴업, 폐업	987 (6.3)	380 (4.2)	607 (9.1)			38.5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628 (4.0)	198 (2.2)	430 (6.5)			31.5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664 (17.0)	1,575 (17.4)	1,089 (16.4)			59.1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2,244 (14.3)	1,039 (11.5)	1,205 (18.1)			46.3
기타	143 (0.9)	0 (0.0)	143 (2.2)			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3) 비경제활동인구 - 경력단절여성^{1,2} 현황

- 2021년 상반기 기준 서초구 15-54세 기혼여성 69,648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1,367명으로 30.7%를 차지함.
 - 연령대별로 15-30세 미만의 경력단절여성 구성비는 100.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세-50세 미만 32.0%, 50-55세 미만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25.5%로 상대적으로 15-30세 미만의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가장 높음.
 - 교육정도별로 고졸 경력단절여성 구성비율은 14.2%, 대졸 이상 33.7%로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의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2-5] 연령별·교육정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2021)

(단위: 명, %)

구분		15-54세 기혼여성		경력단절여성 ^{1,2}		구성비
서울시		1,429,457	(100.0)	238,643 ¹	(100.0)	16.7
				322,399 ²	(100.0)	22.6
서초구		69,648	(100.0)	21,366 ²	(100.0)	30.7
연령	15세-30세 미만	227	(0.3)	227	(1.1)	100.0
	30세-50세 미만	53,228	(76.4)	17,008	(79.6)	32.0
	50세-55세 미만	16,193	(23.2)	4,131	(19.3)	25.5
교육 정도	중졸 이하	713	(1.0)	0	(0.0)	0.0
	고졸	9,650	(13.9)	1,374	(6.4)	14.2
	대졸 이상	59,285	(85.1)	19,992	(93.6)	33.7

*주1: 구성비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 여성) × 100

*주2: 기혼여성 = 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

*주3: 경력단절여성¹(시·도 비교) =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포함)인 여성으로서 ① 결혼, ② 임신 및 출산, ③ 육아, ④ 자녀교육(초등학생), ⑤ 가족돌봄(육아 제외))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함.

*주4: 경력단절여성²(서울시-서초구 비교) = 구단위 데이터의 경우 개인·가족 사유에 해당하는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 '가족돌봄' 각 항목에 대한 값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와 서초구 비교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시·구 비교 가능한 항목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재분류함.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포함)인 여성으로서, ① 개인·가족 관련 이유(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육아 제외) 모두 포함), ② 육아, ③ 가사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상반기)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를 서울시와 서초구 비교를 위해 개인·가족 관련 이유, 육아, 가사로 재분류하여 살펴봄.

- 서울시는 개인·가족 관련 이유가 36.7%, 육아 42.1%, 가사 21.2%로 육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서초구는 개인·가족 관련 이유가 39.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육아 38.6%로 그 차이는 크지 않음. 가사 사유는 22.2%로 서울시보다 1.0%p 많음.

[표 III-2-6] 경력단절여성²의 경력단절 사유

(단위: 명, %)

구분	합계	개인·가족 관련 이유	육아	가사
서울시	322,399 (100.0)	118,366 (36.7)	135,805 (42.1)	68,228 (21.2)
15세-30세 미만	4,513 (100.0)	1,857 (41.1)	2,236 (49.5)	420 (9.3)
30세-50세 미만	258,245 (100.0)	93,576 (36.2)	120,454 (46.6)	44,215 (17.1)
50세-55세 미만	59,641 (100.0)	22,933 (38.5)	13,115 (22.0)	23,593 (39.6)
서초구	21,366 (100.0)	8,378 (39.2)	8,242 (38.6)	4,746 (22.2)
15세-30세 미만	227 (100.0)	227 (100.0)	0 (0.0)	0 (0.0)
30세-50세 미만	17,008 (100.0)	6,664 (39.2)	6,755 (39.7)	3,589 (21.1)
50세-55세 미만	4,131 (100.0)	1,487 (36.0)	1,487 (36.0)	1,157 (28.0)

주: 경력단절여성²(서울시-서초구 비교) = 서울시와 서초구 비교를 위해 본 표에서는 시-구 비교 가능한 항목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재분류함.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포함)인 여성으로서, ① 개인·가족 관련 이유, ② 육아, ③ 가사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상반기)

2) 취업현황

(1) 취업자 특성

- 2021년 서초구의 하반기 취업인구는 191,005명임. 취업인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68.5%를 차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각 9.5%, 9.1%로 나타나 18.6%는 자영업 종사자임. 이 외에도 임시근로자 비중 10.4%, 일용근로자 1.7%의 구성비로 나타남. 무급가족 종사자 0.9%임.
- 성별로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용근로자로 65.1%이나 남성 71.2%에 비해 6.1%p 낮은 수치임. 한편, 여성의 종사상지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임시근로자 16.1%(남성 5.7%)이며,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도 여성 1.6%로 남성 0.4%에 비해 1.2%p 높게 나타남.
- 한편, 종사상지위 비중에 있어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용근로자 외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 11.7%(여성 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2%(여성 8.9%)임.

[표 III-2-7]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서울시	5,074,394 (100.0)	2,989,120 (58.9)	1,180,667 (23.3)		904,607 (17.8)		
여성	2,348,499 (100.0)	1,342,029 (57.1)	667,349 (28.4)		339,121 (14.4)		
남성	2,725,895 (100.0)	1,647,091 (60.4)	513,318 (18.8)		565,486 (20.7)		
서초구	191,005 (100.0)	130,794 (68.5)	19,796 (10.4)	3,188 (1.7)	17,332 (9.5)	18,133 (9.1)	1,762 (0.9)
여성	85,296 (100.0)	55,495 (65.1)	13,724 (16.1)	1,460 (1.7)	7,572 (8.9)	5,714 (6.7)	1,331 (1.6)
남성	105,709 (100.0)	75,299 (71.2)	6,072 (5.7)	1,728 (1.6)	9,760 (9.2)	12,419 (11.7)	431 (0.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 2021년 하반기 서초구 취업자 인구는 191,005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85,296명, 남성 105,709명으로 여성 구성비는 44.7%임.

- 연령대별 취업자 인구는 30세-50세가 전체 취업자의 52.7%를 차지하며, 다음이 55세 이상 21.2%, 15-30세 미만 13.4%, 50-55세 미만 12.7%를 차지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61.7%이며, 그 다음으로 미혼 30.8%, 이혼 4.9%, 사별 2.6%로 구성됨.
- 취업자의 교육정도는 전문대졸 이상 79.5%이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며, 고졸 17.6%, 중졸이하 2.9%로 구성됨.

[표 Ⅲ-2-8] 연령·혼인상태별·교육정도별 취업자(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성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서울시		5,074,394	(100.0)	2,348,499	(100.0)	2,725,895	(100.0)	46.3
서초구 취업자		191,005	(100.0)	85,296	(100.0)	105,709	(100.0)	44.7
연령	15세-30세 미만	25,526	(13.4)	16,537	(19.4)	8,989	(8.5)	64.8
	30세-50세 미만	100,718	(52.7)	44,495	(52.2)	56,223	(53.2)	44.2
	50세-55세 미만	24,285	(12.7)	8,883	(10.4)	15,402	(14.6)	36.6
	55세 이상	40,476	(21.2)	15,381	(18.0)	25,095	(23.7)	38.0
혼인 상태	미혼	58,813	(30.8)	31,984	(37.5)	26,829	(25.4)	54.4
	유배우	117,872	(61.7)	43,315	(50.8)	74,557	(70.5)	36.7
	사별	4,960	(2.6)	3,843	(4.5)	1,117	(1.1)	77.5
	이혼	9,360	(4.9)	6,154	(7.2)	3,206	(3.0)	65.7
교육 정도	중졸 이하	5,583	(2.9)	3,084	(3.6)	2,499	(2.4)	55.2
	고졸	33,637	(17.6)	17,294	(20.3)	16,343	(15.5)	51.4
	전문대졸 이상	151,786	(79.5)	64,918	(76.1)	86,868	(82.2)	42.8

주1: 취업자 =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
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
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모두 포함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3) 근로조건

(1) 임금

○ 서초구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평균 417.12만원임.

- 성별로 여성은 308.35만원이며, 남성 509.35만원으로 여성 3개월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0.5%임.

[표 III-2-9] 최근 3개월 성별 월평균 임금(2021)

(단위: 만원, %)

구분	합계	여성	남성	임금격차
서울시	303.63	243.88	359.20	67.9
서초구	417.12	308.35	509.63	60.5

주1: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 임금근로자가 지난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세금공제전 월평균 총수령액 기준(각종 상여금 및 현물 등 포함)

주2: 임금 격차 = 여성 월평균 임금을 남성 월평균 임금으로 나누어 분율로 나타낸 수치(수치가 높을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작음). (여성 월평균임금 / 남성 월평균임금 X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 서울시민의 소득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이 23.4%로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42.2%로 불만족 비율이 18.8%p 더 높음.
- 성별로 여성은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이 23.6%로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40.8%로 불만족 비율이 16.4%p 높음. 남성은 '만족' 23.4%, 불만족 43.5%로 20%p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2-10] 서울시 성별 소득만족도(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36,483,011 (100.0)	1,107,642 (3.0)	7,459,542 (20.4)	12,505,984 (34.3)	10,110,593 (27.7)	5,299,250 (14.5)
여성	16,995,895 (100.0)	542,640 (3.2)	3,461,886 (20.4)	6,057,978 (35.6)	4,589,924 (27.0)	2,343,467 (13.8)
남성	19,487,116 (100.0)	565,002 (2.9)	3,997,656 (20.5)	6,448,006 (33.1)	5,520,669 (28.3)	2,955,783 (15.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2021)

(2) 근로시간

- 서울시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7.87시간이며, 이는 서초구민 전체 평균 36.50시간에 비해 1.37시간 긴 수치임.
- 서초구민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총 36.50시간이며, 주업 36.43시간, 부업 0.08시간임.

- 성별로 여성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34.56시간으로 남성 38.05시간에 비해 3.49시간 적음.

[표 Ⅲ-2-11] 성별 평균 주당 근로시간(2021)

(단위: 시간)

구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총 계	주업	부업
서울시	37.87	37.78	0.11
여성	35.66	35.55	0.14
남성	39.76	39.69	0.09
서초구	36.50	36.43	0.08
여성	34.56	34.46	0.12
남성	38.05	38.00	0.0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1 하반기)

(3) 만족도

- 서울시 근로자의 근로만족도를 전반적 일자리, 업무, 인사관리, 급여로 구분하여 살펴봄.
 - 전반적일자리 만족도는 여성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34.3%로 남성 33.7%에 비해 0.6%p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14.6%, 남성 16%로 남성의 불만족 비율이 1.4%p 더 높음.
 - 업무만족도는 여성 ‘만족’ 41.9%, 남성 39.2%로 여성이 만족 비중이 2.7%p 더 높음.
 - 인사관리 만족도는 여성 ‘만족’ 25.8%, 남성 23.1%로 여성이 2.7%p 더 높음.
 - 급여만족도는 여성 ‘만족’ 27.3%, 남성 24.6%로 여성 만족 비중이 2.7%p 더 높게 나타남.
 - 요약하면, 서울시 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III-2-12] 서울시 근로자의 근로만족도(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겠다	해당없다
전반적 일자리	합계	3,820,875 (100.0)	286,691 (7.5)	1,022,907 (26.8)	1,908,428 (49.9)	430,294 (11.3)	172,555 (4.5)	- -	- -
	여성	1,838,180 (97.9)	128,996 (7.0)	506,461 (27.3)	928,973 (49.0)	205,846 (10.9)	67,904 (3.7)	- -	- -
	남성	1,982,695 (99.7)	157,695 (8.0)	516,446 (25.7)	979,455 (50.0)	224,448 (12.0)	104,651 (4.0)	- -	- -
업무	합계	3,820,874 (100.0)	440,311 (11.5)	1,105,702 (28.9)	1,743,791 (45.6)	420,038 (11.0)	101,440 (2.7)	9,592 (0.3)	- -
	여성	1,838,180 (100.0)	240,606 (13.1)	528,751 (28.8)	848,717 (46.2)	171,638 (9.3)	42,813 (2.3)	5,655 (0.3)	- -
	남성	1,982,694 (100.0)	199,705 (10.1)	576,951 (29.1)	895,074 (45.1)	248,400 (12.5)	58,627 (3.0)	3,937 (0.2)	- -
인사 관리	합계	3,820,874 (100.0)	192,791 (5.0)	556,155 (14.6)	1,662,766 (43.5)	556,653 (14.6)	291,449 (7.6)	156,695 (4.1)	404,365 (10.6)
	여성	1,838,179 (100.0)	78,823 (4.3)	212,002 (11.5)	830,337 (45.2)	261,261 (14.2)	135,610 (7.4)	85,293 (4.6)	234,853 (12.8)
	남성	1,982,695 (100.0)	113,968 (5.7)	344,153 (17.4)	832,429 (42.0)	295,392 (14.9)	155,839 (7.9)	71,402 (3.6)	169,512 (8.5)
급여	합계	3,820,873 (100.0)	191,598 (5.0)	797,088 (20.9)	1,595,247 (41.8)	886,804 (23.2)	346,416 (9.1)	3,720 (0.1)	0 (0.0)
	여성	1,838,178 (100.0)	101,274 (5.5)	400,793 (21.8)	715,442 (38.9)	437,494 (23.8)	181,018 (9.8)	2,157 (0.1)	0 (0.0)
	남성	1,982,695 (100.0)	90,324 (4.6)	396,295 (20.0)	879,805 (44.4)	449,310 (22.7)	165,398 (8.3)	1,563 (0.1)	0 (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2021)

4) 사업체

(1) 사업체 현황

- 2019년 기준 서초구에 소재하는 사업체 수는 46,940개이며, 이 가운데 여성대표자 비율은 32.3%로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조금 못 미침.
- 동별로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서초3동 16.5%, 서초2동 10.8%, 양재2동 10.6%순임. 반면,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곳은 반포2동으로 전체 사업체의 0.7%, 반포본동 1.4%, 내곡동 1.8% 순임.

[표 III-2-13] 서초구 동별 사업체 수 및 성별 대표자 수(2019)

(단위: 개, 명, %)

동	사업체수		여성 대표자		남성 대표자		여성 대표자 비율
서울시	823,624	(100.0)	281,318	(100.0)	542,306	(100.0)	34.2
서초구	46,940	(100.0)	15,153	(100.0)	31,787	(100.0)	32.3
서초1동	3,811	(8.1)	1,047	(6.9)	2,764	(8.7)	27.5
서초2동	5,072	(10.8)	1,431	(9.4)	3,641	(11.5)	28.2
서초3동	7,725	(16.5)	1,973	(13.0)	5,752	(18.1)	25.5
서초4동	3,012	(6.4)	994	(6.6)	2,018	(6.3)	33.0
잠원동	2,199	(4.7)	772	(5.1)	1,427	(4.5)	35.1
반포본동	665	(1.4)	356	(2.3)	309	(1.0)	53.5
반포1동	1,737	(3.7)	676	(4.5)	1,061	(3.3)	38.9
반포2동	306	(0.7)	149	(1.0)	157	(0.5)	48.7
반포3동	964	(2.1)	440	(2.9)	524	(1.6)	45.6
반포4동	3,291	(7.0)	1,493	(9.9)	1,798	(5.7)	45.4
방배본동	1,623	(3.5)	655	(4.3)	968	(3.0)	40.4
방배1동	1,907	(4.1)	654	(4.3)	1,253	(3.9)	34.3
방배2동	1,852	(3.9)	653	(4.3)	1,199	(3.8)	35.3
방배3동	1,186	(2.5)	378	(2.5)	808	(2.5)	31.9
방배4동	2,149	(4.6)	753	(5.0)	1,396	(4.4)	35.0
양재1동	3,616	(7.7)	1,070	(7.1)	2,546	(8.0)	29.6
양재2동	4,989	(10.6)	1,381	(9.1)	3,608	(11.4)	27.7
내곡동	836	(1.8)	278	(1.8)	558	(1.8)	33.3

자료: 서초구,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 서초구 사업체 종사자는 총 438,985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 177,838명, 남성 261,147명으로 여성비율이 40.5% 차지함.

- 동별로 사업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곳은 서초3동으로 전체 종사자의 18.5%(81,064명)를 차지함. 다음 서초2동 12.1%(53,003명), 양재2동 11%(48,262명), 양재1동 10%(44,006명)순임.

[표 III-2-14] 서초구 동별 사업체 수 및 성별 종사자 수(2019)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여성		남성		여성비율
서울시	823,624	5,226,997	(100.0)	2,341,383	(100.0)	2,885,614	(100.0)	44.8
서초구	46,940	438,985	(100.0)	177,838	(100.0)	261,147	(100.0)	40.5
서초1동	3,811	32,022	(7.3)	13,336	(7.5)	18,686	(7.2)	41.6
서초2동	5,072	53,003	(12.1)	18,980	(10.7)	34,023	(13.0)	35.8
서초3동	7,725	81,064	(18.5)	32,105	(18.1)	48,959	(18.7)	39.6
서초4동	3,012	28,529	(6.5)	14,790	(8.3)	13,739	(5.3)	51.8
잠원동	2,199	18,054	(4.1)	7,819	(4.4)	10,235	(3.9)	43.3
반포본동	665	2,326	(0.5)	1,273	(0.7)	1,053	(0.4)	54.7
반포1동	1,737	10,255	(2.3)	4,374	(2.5)	5,881	(2.3)	42.7
반포2동	306	2,142	(0.5)	1,175	(0.7)	967	(0.4)	54.9
반포3동	964	7,502	(1.7)	3,520	(2.0)	3,982	(1.5)	46.9
반포4동	3,291	29,877	(6.8)	15,250	(8.6)	14,627	(5.6)	51.0
방배본동	1,623	10,497	(2.4)	4,946	(2.8)	5,551	(2.1)	47.1
방배1동	1,907	16,332	(3.7)	6,896	(3.9)	9,436	(3.6)	42.2
방배2동	1,852	17,806	(4.1)	8,285	(4.7)	9,521	(3.6)	46.5
방배3동	1,186	13,826	(3.1)	4,411	(2.5)	9,415	(3.6)	31.9
방배4동	2,149	14,635	(3.3)	6,256	(3.5)	8,379	(3.2)	42.7
양재1동	3,616	44,006	(10.0)	15,935	(9.0)	28,071	(10.7)	36.2
양재2동	4,989	48,262	(11.0)	15,214	(8.6)	33,048	(12.7)	31.5
내곡동	836	8,847	(2.0)	3,273	(1.8)	5,574	(2.1)	37.0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2019), 서초구,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 서초구 사업체의 산업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전체 산업분류의 25.3%를 차지함. 다음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7%, 숙박 및음식점업 14.0% 순임.

-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여성대표 비율이 52.3%로 절반을 넘음. 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여성대표자 비율은 4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5.2%순임. 여성대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자료 생업 5.6%, 운수 및 창고업 10.4%, 건설업 14.5% 순임.
- 종사자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종사자의 78.6%가 여성임. 다음은 교육서비스업 63.5%, 숙박 및 음식점업 58.8%, 임대서비스업 53.5% 순임.

[표 Ⅲ-2-15] 서초구 성별·산업분류별 대표자 및 종사자 수(2019)

(단위: 명, %)

구분	사업체 수	여성 대표자	남성 대표자	여성 대표자 비율	종사자 수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서초구	46,940 (100.00)	15,153 (100.00)	31,787 (100.00)	32.3	438,985 (100.00)	177,838 (100.00)	261,147 (100.00)	40.5
농업,임업및어업	3 (0.01)	1 (0.01)	2 (0.01)	33.3	39 (0.01)	9 (0.01)	30 (0.01)	23.1
광업	3 (0.01)	0 (0.00)	3 (0.01)	0.0	8 (0.00)	1 (0.00)	7 (0.00)	12.5
제조업	1,068 (2.28)	339 (2.24)	729 (2.29)	31.7	6,093 (1.39)	2,607 (1.47)	3,486 (1.33)	42.8
전기,가스,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18 (0.04)	5 (0.03)	13 (0.04)	27.8	224 (0.05)	49 (0.03)	175 (0.07)	21.9
수도,하수및폐기물처 리,원자료생업	18 (0.04)	1 (0.01)	17 (0.05)	5.6	305 (0.07)	31 (0.02)	274 (0.10)	10.2
건설업	1,603 (3.41)	233 (1.54)	1,370 (4.31)	14.5	62,873 (14.32)	7,058 (3.97)	55,788 (21.36)	11.2
도매및소매업	11,890 (25.33)	4,101 (27.06)	7,789 (24.50)	34.5	66,616 (15.18)	27,317 (15.36)	39,299 (15.05)	41.0
운수및창고업	1,611 (3.43)	168 (1.11)	1,443 (4.54)	10.4	10,027 (2.28)	1,419 (0.80)	8,608 (3.30)	14.2

구분	사업체 수	여성 대표자	남성 대표자	여성 대표자 비율	종사자 수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숙박및음식점업	6,554 (13.96)	3,229 (21.31)	3,325 (10.46)	49.3	31,160 (7.10)	18,315 (10.30)	12,845 (4.92)	58.8
정보통신업	2,286 (4.87)	364 (2.40)	1,922 (6.05)	15.9	32,357 (7.37)	9,888 (5.56)	22,469 (8.60)	30.6
금융및보험업	990 (2.11)	173 (1.14)	817 (2.57)	17.5	17,835 (4.06)	7,863 (4.42)	9,972 (3.82)	44.1
부동산업	3,508 (7.47)	983 (6.49)	2,525 (7.94)	28.0	14,516 (3.31)	4,917 (2.76)	9,599 (3.68)	33.9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6,892 (14.68)	1,034 (6.82)	5,858 (18.43)	15.0	68,949 (15.71)	24,619 (13.84)	44,330 (16.98)	35.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1,328 (2.83)	386 (2.55)	942 (2.96)	29.1	52,336 (11.92)	28,015 (15.75)	24,321 (9.31)	53.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67 (0.14)	14 (0.09)	53 (0.17)	20.9	11,410 (2.60)	4,915 (2.76)	6,495 (2.49)	43.1
교육서비스업	2,688 (5.73)	1,406 (9.28)	1,282 (4.03)	52.3	22,768 (5.19)	14,464 (8.13)	8,304 (3.18)	6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63 (3.54)	643 (4.24)	1,020 (3.21)	38.7	21,162 (4.82)	16,642 (9.36)	4,520 (1.73)	78.6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1,343 (2.86)	534 (3.52)	809 (2.55)	39.8	7,649 (1.74)	3,766 (2.12)	3,883 (1.49)	49.2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407 (7.26)	1,539 (10.16)	1,868 (5.88)	45.2	12,658 (2.88)	5,916 (3.33)	6,742 (2.58)	46.7

자료: 서초구,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 한편 서울시의 산업분류별 사업체를 살펴보면 도소매업 사업체 비율이 2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16.1%, 운수 및 창고업 11.5% 비율이 높음.

-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여성대표 비율이 54.9%로 서초구보다 2.6%p 높게 나타남. 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 5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9.1%순임. 여성대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4.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자료 생업 12.6%순임.
- 종사자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종사자의 79.0%가 여성임. 다음은 교육서비스업 61.1%, 숙박 및 음식점업 58.7% 순임.

[표 III-2-16] 서울시 성별·산업분류별 대표자 및 종사자 수(2019)

(단위: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체	823,624 (100.0)	281,318 (100.0)	542,306 (100.0)	34.2	5,226,997 (100.0)	2,341,383 (100.0)	2,885,614 (100.0)	44.8
농업,임업및어업	24 (0.0)	4 (0.0)	20 (0.0)	16.7	426 (0.0)	77 (0.0)	349 (0.0)	18.1
광업	20 (0.0)	0 (0.0)	20 (0.0)	0.0	43 (0.0)	7 (0.0)	36 (0.0)	16.3
제조업	57,321 (7.0)	13,732 (4.9)	43,589 (8.0)	24.0	265,273 (5.1)	109,358 (4.7)	155,915 (5.4)	41.2
전기,가스,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225 (0.0)	25 (0.0)	200 (0.0)	11.1	6,234 (0.1)	1,330 (0.1)	4,904 (0.2)	21.3
수도,하수및폐기물처 리,원자료생업	475 (0.1)	60 (0.0)	415 (0.1)	12.6	9,158 (0.2)	1,409 (0.1)	7,749 (0.3)	15.4
건설업	21,626 (2.6)	3,407 (1.2)	18,219 (3.4)	15.8	362,785 (6.9)	50,235 (2.1)	312,550 (10.8)	13.8
도매및소매업	220,055 (26.7)	82,093 (29.2)	137,962 (25.4)	37.3	899,642 (17.2)	403,632 (17.2)	496,010 (17.2)	44.9
운수및창고업	94,759 (11.5)	4,565 (1.6)	90,194 (16.6)	4.8	264,181 (5.1)	45,282 (1.9)	218,899 (7.6)	17.1
숙박및음식점업	132,475 (16.1)	68,859 (24.5)	63,616 (11.7)	52.0	493,912 (9.4)	290,086 (12.4)	203,826 (7.1)	58.7
정보통신업	23,356 (2.8)	3,939 (1.4)	19,417 (3.6)	16.9	360,062 (6.9)	116,219 (5.0)	243,843 (8.5)	32.3
금융및보험업	11,444 (1.4)	2,001 (0.7)	9,443 (1.7)	17.5	266,110 (5.1)	127,397 (5.4)	138,713 (4.8)	47.9
부동산업	43,611 (5.3)	14,635 (5.2)	28,976 (5.3)	33.6	166,094 (3.2)	59,818 (2.6)	106,276 (3.7)	36.0
전문,과학및기술서비 스업	42,782 (5.2)	7,744 (2.8)	35,038 (6.5)	18.1	485,150 (9.3)	176,555 (7.5)	308,595 (10.7)	36.4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및임대서비스업	16,354 (2.0)	4,689 (1.7)	11,665 (2.2)	28.7	472,573 (9.0)	235,381 (10.1)	237,192 (8.2)	49.8
공공행정,국방및사회 보장행정	1,296 (0.2)	172 (0.1)	1,124 (0.2)	13.3	141,582 (2.7)	53,867 (2.3)	87,715 (3.0)	38.0
교육서비스업	35,761 (4.3)	19,636 (7.0)	16,125 (3.0)	54.9	351,320 (6.7)	214,507 (9.2)	136,813 (4.7)	61.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 스업	29,168 (3.5)	11,943 (4.2)	17,225 (3.2)	40.9	400,143 (7.7)	316,091 (13.5)	84,052 (2.9)	79.0
예술,스포츠및여가관 련서비스업	23,527 (2.9)	9,751 (3.5)	13,776 (2.5)	41.4	92,752 (1.8)	43,487 (1.9)	49,265 (1.7)	46.9
협회및단체,수리및기 타개인서비스업	69,345 (8.4)	34,063 (12.1)	35,282 (6.5)	49.1	189,557 (3.6)	96,645 (4.1)	92,912 (3.2)	51.0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5) 취업에 대한 태도 - 직업선택 요인

- 서울시민의 직업선택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입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40.8%를 차지함. 다음이 안정성 25.5%, 적성·흥미 12.2%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적성·흥미 14.9%(남성 10.3%), 근무환경(근무시간, 노동강도 등) 11.9%(남성 6.9%) 등에서 차이를 보임. 한편,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수입 43.8%(여성 36.8%), 발전성·장래성 5.4%(여성 3.6%), 명예·명성 3.0%(여성 2.0%)로 나타남.

[표 III-2-17] 서울시 근로자의 직업선택요인(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여성	남성
합계	26,170,704 (100.0)	11,133,935 (100.0)	15,036,769 (100.0)
명예·명성	674,502 (2.6)	224,319 (2.0)	450,183 (3.0)
안정성	6,684,273 (25.5)	2,789,062 (25.1)	3,895,211 (25.9)
수입	10,681,142 (40.8)	4,093,085 (36.8)	6,588,057 (43.8)
적성·흥미	3,196,223 (12.2)	1,653,894 (14.9)	1,542,329 (10.3)
보람·자아 실현	1,061,633 (4.1)	503,106 (4.5)	558,527 (3.7)
발전성·장래성	1,205,776 (4.6)	395,596 (3.6)	810,180 (5.4)
근무환경 (근무 시간, 노동 강도 등)	2,364,968 (9.0)	1,328,155 (11.9)	1,036,813 (6.9)
기타	5,880 (0.0)	3,236 (0.0)	2,644 (0.0)
잘 모르겠다	296,307 (1.1)	143,482 (1.3)	152,825 (1.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2021)

3

경제활동분야 구민인식조사 결과

1)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1) 가장 좋은 일자리

▷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귀하는 어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서초구민은 ‘안정적인 일자리(정규직)’이 전체 응답자의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25.6%, ‘일-생활 균형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 11.0% 순임. 성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정적 일자리가 각 31.5%, 40.3%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27.6%(남성 23.5%), ‘일-생활균형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 13.6%(남성 8.2%)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급여가 높은 일자리’ 16.9%(여성 9.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취업의 경우 또는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비취업한 경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Ⅲ-3-1]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안정 적인 일자리 (정규직)	② 급여가 높은 일자리	③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④ 당장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	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⑥ 출퇴근 거리가 짧은 일자리	⑦ 일생활 균형 가능	⑧ 사회적 가치 실현	⑨ 기타 (구체적 으로)	
전체		500	35.8	13.0	25.6	2.2	6.2	2.8	11.0	2.6	0.8	
성별	여성	257	31.5	9.3	27.6	1.6	7.0	4.7	13.6	3.5	1.2	
	남성	243	40.3	16.9	23.5	2.9	5.3	0.8	8.2	1.6	0.4	
연령대	20대 이하	92	26.1	15.2	26.1	2.2	3.3	2.2	19.6	5.4	0.0	
	30대	95	31.6	23.2	20.0	4.2	7.4	1.1	10.5	2.1	0.0	
	40대	107	35.5	9.3	25.2	3.7	9.3	2.8	13.1	0.0	0.9	
	50대	100	47.0	5.0	28.0	0.0	6.0	4.0	7.0	2.0	1.0	
	60대 이상	106	37.7	13.2	28.3	0.9	4.7	3.8	5.7	3.8	1.9	
	20대 이하	47	23.4	14.9	25.5	0.0	2.1	2.1	25.5	6.4	0.0	
성별 * 연령대	여성	30대	50	30.0	18.0	24.0	2.0	10.0	2.0	12.0	2.0	0.0
		40대	55	29.1	1.8	29.1	5.5	9.1	5.5	18.2	0.0	1.8
		50대	50	40.0	6.0	30.0	0.0	6.0	6.0	6.0	4.0	2.0
		60대 이상	55	34.5	7.3	29.1	0.0	7.3	7.3	7.3	5.5	1.8
		20대 이하	45	28.9	15.6	26.7	4.4	4.4	2.2	13.3	4.4	0.0
	남성	30대	45	33.3	28.9	15.6	6.7	4.4	0.0	8.9	2.2	0.0
		40대	52	42.3	17.3	21.2	1.9	9.6	0.0	7.7	0.0	0.0
		50대	50	54.0	4.0	26.0	0.0	6.0	2.0	8.0	0.0	0.0
		60대 이상	51	41.2	19.6	27.5	2.0	2.0	0.0	3.9	2.0	2.0
		반포/잠원권	111	38.7	14.4	27.0	0.9	5.4	1.8	9.0	1.8	0.9
거주지역	방배권	93	29.0	8.6	32.3	4.3	9.7	5.4	6.5	2.2	2.2	
	서초권	218	36.7	12.4	25.2	0.9	6.0	2.8	12.4	3.7	0.0	
	양재/내곡권	78	37.2	17.9	16.7	5.1	3.8	1.3	15.4	1.3	1.3	
	경제활동	취업	369	37.4	13.6	23.6	3.0	5.7	2.4	11.7	1.9	0.8
	비취업	131	31.3	11.5	31.3	0.0	7.6	3.8	9.2	4.6	0.8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32.7	16.7	22.0	3.0	7.1	1.2	13.7	3.6	0.0	
	기혼	325	37.8	11.1	27.4	1.5	5.5	3.7	9.8	2.2	0.9	
	기타	7	14.3	14.3	28.6	14.3	14.3	0.0	0.0	0.0	14.3	
자녀유무	있다	317	37.5	10.7	27.8	2.2	5.7	3.2	9.5	2.2	1.3	
	없다	183	32.8	16.9	21.9	2.2	7.1	2.2	13.7	3.3	0.0	

▷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서초구민은 ‘안정적인 일자리(정규직)’가 33%로 가장 높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 21%, ‘당장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 17% 등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은 ‘일생활 균형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 12.5%(남성 1.2%), ‘당장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 17.1%(남성 16.9%),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11.3%(남성 8.2%)가 높게 나타남. 남성은 ‘안정적 일자리’ 37.9%(여성 28.4%), ‘급여가 높은 일자리’ 25.5%(여성 16.7%)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취업의 경우 또는 기혼과 자녀가 있는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한다고 응답함.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는 비취업의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Ⅲ-3-2]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안정 적인 일자리 (정규직)	② 급여가 높은 일자리	③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④ 당장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	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⑥ 출퇴근 거리가 짧은 일자리	⑦ 일생활 균형 가능	⑧ 사회적 가치 실현	⑨ 기타 (구체적 으로)	
전체		500	33.0	21.0	9.8	17.0	3.8	6.4	7.0	1.2	0.8	
성별	여성	257	28.4	16.7	11.3	17.1	4.7	7.4	12.5	1.2	0.8	
	남성	243	37.9	25.5	8.2	16.9	2.9	5.3	1.2	1.2	0.8	
연령대	20대 이하	92	31.5	20.7	7.6	25.0	3.3	6.5	4.3	1.1	0.0	
	30대	95	38.9	22.1	6.3	20.0	2.1	4.2	5.3	1.1	0.0	
	40대	107	36.4	24.3	6.5	7.5	3.7	8.4	11.2	0.0	1.9	
	50대	100	28.0	24.0	18.0	14.0	5.0	4.0	7.0	0.0	0.0	
	60대 이상	106	30.2	14.2	10.4	19.8	4.7	8.5	6.6	3.8	1.9	
성 별 * 연 령 대	여성	20대 이하	47	25.5	17.0	6.4	34.0	4.3	4.3	6.4	2.1	0.0
		30대	50	36.0	20.0	6.0	16.0	4.0	8.0	10.0	0.0	0.0
		40대	55	29.1	21.8	3.6	5.5	5.5	9.1	21.8	0.0	3.6
		50대	50	20.0	14.0	26.0	14.0	6.0	8.0	12.0	0.0	0.0
		60대 이상	55	30.9	10.9	14.5	18.2	3.6	7.3	10.9	3.6	0.0
	남성	20대 이하	45	37.8	24.4	8.9	15.6	2.2	8.9	2.2	0.0	0.0
		30대	45	42.2	24.4	6.7	24.4	0.0	0.0	0.0	2.2	0.0
		40대	52	44.2	26.9	9.6	9.6	1.9	7.7	0.0	0.0	0.0
		50대	50	36.0	34.0	10.0	14.0	4.0	0.0	2.0	0.0	0.0
		60대 이상	51	29.4	17.6	5.9	21.6	5.9	9.8	2.0	3.9	3.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38.7	14.4	27.0	0.9	5.4	1.8	9.0	1.8	0.9	
	방배권	93	29.0	8.6	32.3	4.3	9.7	5.4	6.5	2.2	2.2	
	서초권	218	36.7	12.4	25.2	0.9	6.0	2.8	12.4	3.7	0.0	
	양재/내곡권	78	37.2	17.9	16.7	5.1	3.8	1.3	15.4	1.3	1.3	
경제활동	취업	369	37.4	13.6	23.6	3.0	5.7	2.4	11.7	1.9	0.8	
	비취업	131	31.3	11.5	31.3	0.0	7.6	3.8	9.2	4.6	0.8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32.7	16.7	22.0	3.0	7.1	1.2	13.7	3.6	0.0	
	기혼	325	37.8	11.1	27.4	1.5	5.5	3.7	9.8	2.2	0.9	
	기타	7	14.3	14.3	28.6	14.3	14.3	0.0	0.0	0.0	14.3	
자녀유무	있다	317	37.5	10.7	27.8	2.2	5.7	3.2	9.5	2.2	1.3	
	없다	183	32.8	16.9	21.9	2.2	7.1	2.2	13.7	3.3	0.0	

2) 서초구 일자리 환경에 대한 평가

▷ 일자리가 풍부하다

‘서초구는 일자리가 풍부하다’에 대해 ‘그렇다’(약간그렇다+매우그렇다)는 응답은 45%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2.4%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42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임. 성별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렇다’는 응답률이 39.7%로 남성 50.6%에 비해 약 11%p 낮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55.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의 긍정응답은 약 3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I-3-3] 서초구는 일자리가 풍부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3.2	9.2	42.6	32.2	12.8	3.42	
성별	여성	257	5.1	9.3	45.9	29.2	10.5	3.31	
	남성	243	1.2	9.1	39.1	35.4	15.2	3.54	
연령대	20대 이하	92	3.3	8.7	38.0	42.4	7.6	3.42	
	30대	95	1.1	6.3	36.8	40.0	15.8	3.63	
	40대	107	1.9	7.5	47.7	24.3	18.7	3.50	
	50대	100	1.0	6.0	46.0	35.0	12.0	3.51	
	60대 이상	106	8.5	17.0	43.4	21.7	9.4	3.07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4.3	10.6	36.2	42.6	6.4
30대			50	2.0	10.0	40.0	36.0	12.0	3.46
40대			55	3.6	7.3	50.9	23.6	14.5	3.38
50대			50	2.0	6.0	48.0	34.0	10.0	3.44
60대 이상			55	12.7	12.7	52.7	12.7	9.1	2.93
남성		20대 이하	45	2.2	6.7	40.0	42.2	8.9	3.49
		30대	45	0.0	2.2	33.3	44.4	20.0	3.82
		40대	52	0.0	7.7	44.2	25.0	23.1	3.63
		50대	50	0.0	6.0	44.0	36.0	14.0	3.58
		60대 이상	51	3.9	21.6	33.3	31.4	9.8	3.22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3.6	10.8	36.9	36.0	12.6	3.43	
	방배권	93	5.4	12.9	47.3	23.7	10.8	3.22	
	서초권	218	1.8	6.0	44.0	34.9	13.3	3.52	
	양재/내곡권	78	3.8	11.5	41.0	29.5	14.1	3.38	
경제활동	취업	369	0.5	8.9	42.0	33.3	15.2	3.54	
	비취업	131	10.7	9.9	44.3	29.0	6.1	3.1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4	7.1	41.1	38.1	11.3	3.49	
	기혼	325	3.1	10.2	43.7	29.2	13.8	3.41	
	기타	7	28.6	14.3	28.6	28.6	0.0	2.57	
자녀유무	있다	317	3.8	10.4	42.3	29.3	14.2	3.40	
	없다	183	2.2	7.1	43.2	37.2	10.4	3.46	

▷ 서초구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서초구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에 대해 ‘그렇다’(약간그렇다+매우그렇다)는 응답은 44.4%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9.6%로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33점임. 성별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렇다’는 응답률이 39.7%로 남성 49.4%에 비해 약 10%p 낮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률은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52.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의 긍정응답은 약 30.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성별*연령별로 여성은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로 3.4점이었으나, 남성 역시 30대가 3.67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3.60점으로 높게 나타남. 서초권, 취업, 비혼, 자녀가 없을 경우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I-3-4] 서초구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3.4	16.2	36.0	33.2	11.2	3.33	
성별	여성	257	3.9	19.1	37.4	28.8	10.9	3.24	
	남성	243	2.9	13.2	34.6	37.9	11.5	3.42	
연령대	20대 이하	92	3.3	12.0	31.5	43.5	9.8	3.45	
	30대	95	0.0	11.6	35.8	41.1	11.6	3.53	
	40대	107	2.8	13.1	36.4	34.6	13.1	3.42	
	50대	100	2.0	16.0	43.0	28.0	11.0	3.30	
	60대 이상	106	8.5	27.4	33.0	20.8	10.4	2.97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47	4.3	17.0	34.0	34.0	10.6	3.30
		30대	50	0.0	16.0	36.0	40.0	8.0	3.40
		40대	55	3.6	20.0	34.5	27.3	14.5	3.29
		50대	50	2.0	18.0	42.0	28.0	10.0	3.26
		60대 이상	55	9.1	23.6	40.0	16.4	10.9	2.96
	남성	20대 이하	45	2.2	6.7	28.9	53.3	8.9	3.60
		30대	45	0.0	6.7	35.6	42.2	15.6	3.67
		40대	52	1.9	5.8	38.5	42.3	11.5	3.56
		50대	50	2.0	14.0	44.0	28.0	12.0	3.34
		60대 이상	51	7.8	31.4	25.5	25.5	9.8	2.9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3.6	23.4	31.5	30.6	10.8	3.22	
	방배권	93	5.4	12.9	38.7	36.6	6.5	3.26	
	서초권	218	1.8	12.8	37.2	35.3	12.8	3.44	
	양재/내곡권	78	5.1	19.2	35.9	26.9	12.8	3.23	
경제활동	취업	369	1.9	13.3	34.4	37.7	12.7	3.46	
	비취업	131	7.6	24.4	40.5	20.6	6.9	2.9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8	15.5	33.3	38.1	11.3	3.42	
	기혼	325	3.7	16.3	38.2	30.5	11.4	3.30	
	기타	7	28.6	28.6	0.0	42.9	0.0	2.57	
자녀유무	있다	317	4.4	16.7	35.6	31.5	11.7	3.29	
	없다	183	1.6	15.3	36.6	36.1	10.4	3.38	

▷ 서초구는 일자리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서초구는 일자리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1.8%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0.6%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33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38.2%로 남성 45.7% 비해 7.5%p 낮게 나타남. 연령 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5점 척도 일 때 3.64점이며 다음으로 30대 3.47점, 40대 3.34점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20대 3.55점 가장 높고 다음 30대 3.28점, 50대 3.26점순임. 남성은 20대 3.73점, 30대 3.69점, 40대 3.50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Ⅲ-3-5] 서초구는 일자리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2.0	18.6	37.6	27.8	14.0	3.33	
성별	여성	257	2.7	19.8	39.3	26.5	11.7	3.25	
	남성	243	1.2	17.3	35.8	29.2	16.5	3.42	
연령대	20대 이하	92	1.1	14.1	30.4	28.3	26.1	3.64	
	30대	95	0.0	14.7	37.9	32.6	14.7	3.47	
	40대	107	0.9	19.6	37.4	29.0	13.1	3.34	
	50대	100	0.0	25.0	37.0	30.0	8.0	3.21	
	60대 이상	106	7.5	18.9	44.3	19.8	9.4	3.05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12.8	36.2	25.5	23.4
30대			50	0.0	18.0	44.0	30.0	8.0	3.28
40대			55	1.8	27.3	34.5	23.6	12.7	3.18
50대			50	0.0	22.0	38.0	32.0	8.0	3.26
60대 이상			55	9.1	18.2	43.6	21.8	7.3	3.00
남성		20대 이하	45	0.0	15.6	24.4	31.1	28.9	3.73
		30대	45	0.0	11.1	31.1	35.6	22.2	3.69
		40대	52	0.0	11.5	40.4	34.6	13.5	3.50
		50대	50	0.0	28.0	36.0	28.0	8.0	3.16
		60대 이상	51	5.9	19.6	45.1	17.6	11.8	3.1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3.6	23.4	36.0	20.7	16.2	3.23	
	방배권	93	4.3	16.1	47.3	19.4	12.9	3.20	
	서초권	218	0.5	16.5	33.0	35.8	14.2	3.47	
	양재/내곡권	78	1.3	20.5	41.0	25.6	11.5	3.26	
경제활동	취업	369	0.8	16.3	37.4	29.8	15.7	3.43	
	비취업	131	5.3	25.2	38.2	22.1	9.2	3.0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2	11.9	39.3	28.6	19.0	3.52	
	기혼	325	1.8	22.2	36.9	27.7	11.4	3.25	
	기타	7	28.6	14.3	28.6	14.3	14.3	2.71	
자녀유무	있다	317	2.5	22.1	35.6	27.4	12.3	3.25	
	없다	183	1.1	12.6	41.0	28.4	16.9	3.48	

▷ 서초구는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가 좋은 편이다

‘서초구는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가 좋은 편이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그렇다)는 응답은 47%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5.6%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44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42.4%로 남성 51%에 비해 낮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57.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의 긍정 응답은 약 42.4%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5점 척도 기준, 여성 20대가 3.51점으로 가장 높고, 30대 3.42점, 40대 3.33점 순으로 나타남. 남성 역시 20대가 3.73점, 30대 3.64점, 40대 3.62점 순으로 나타남.

[표 III-3-6] 서초구는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가 좋은 편이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1.8	13.8	37.4	32.8	14.2	3.44	
성별	여성	257	2.3	14.0	41.2	31.1	11.3	3.35	
	남성	243	1.2	13.6	33.3	34.6	17.3	3.53	
연령대	20대 이하	92	3.3	6.5	32.6	40.2	17.4	3.62	
	30대	95	0.0	10.5	41.1	33.7	14.7	3.53	
	40대	107	0.0	18.7	35.5	26.2	19.6	3.47	
	50대	100	0.0	17.0	41.0	34.0	8.0	3.33	
	60대 이상	106	5.7	15.1	36.8	31.1	11.3	3.27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4.3	4.3	40.4	38.3	12.8	3.51
		30대	50	0.0	12.0	44.0	34.0	10.0	3.42
		40대	55	0.0	23.6	36.4	23.6	16.4	3.33
		50대	50	0.0	18.0	40.0	36.0	6.0	3.30
		60대 이상	55	7.3	10.9	45.5	25.5	10.9	3.22
	남성	20대 이하	45	2.2	8.9	24.4	42.2	22.2	3.73
		30대	45	0.0	8.9	37.8	33.3	20.0	3.64
		40대	52	0.0	13.5	34.6	28.8	23.1	3.62
		50대	50	0.0	16.0	42.0	32.0	10.0	3.36
		60대 이상	51	3.9	19.6	27.5	37.3	11.8	3.3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7	18.0	36.9	30.6	11.7	3.31	
	방배권	93	2.2	17.2	39.8	30.1	10.8	3.30	
	서초권	218	0.9	9.6	34.4	38.5	16.5	3.60	
	양재/내곡권	78	2.6	15.4	43.6	23.1	15.4	3.33	
경제활동	취업	369	0.8	11.4	37.9	33.1	16.8	3.54	
	비취업	131	4.6	20.6	35.9	32.1	6.9	3.16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8	8.3	36.3	39.9	13.7	3.55	
	기혼	325	1.5	16.3	38.2	29.2	14.8	3.39	
	기타	7	14.3	28.6	28.6	28.6	0.0	2.71	
자녀유무	있다	317	1.9	16.7	37.5	29.0	14.8	3.38	
	없다	183	1.6	8.7	37.2	39.3	13.1	3.54	

▷ 서초구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다

‘서초구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6.4%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4.6%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42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44.8%로 남성 48.1%에 비해 3.3%p 낮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51.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의 긍정 응답은 약 37.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성별 및 연령별 5점 척도로 살펴보면, 여성 50대가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30대 3.46점, 20대와 40대가 각 3.38점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 30대 3.67점, 40대 3.63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Ⅲ-3-7] 서초구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2.8	11.8	39.0	33.0	13.4	3.42	
성별	여성	257	3.1	12.8	39.3	32.7	12.1	3.38	
	남성	243	2.5	10.7	38.7	33.3	14.8	3.47	
연령대	20대 이하	92	2.2	6.5	43.5	38.0	9.8	3.47	
	30대	95	3.2	6.3	38.9	34.7	16.8	3.56	
	40대	107	0.0	13.1	43.0	24.3	19.6	3.50	
	50대	100	1.0	14.0	33.0	46.0	6.0	3.42	
	60대 이상	106	7.5	17.9	36.8	23.6	14.2	3.19	
성 별 * 연 령 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8.5	46.8	34.0	8.5	3.38
		30대	50	4.0	10.0	36.0	36.0	14.0	3.46
		40대	55	0.0	14.5	49.1	20.0	16.4	3.38
		50대	50	0.0	12.0	32.0	52.0	4.0	3.48
		60대 이상	55	9.1	18.2	32.7	23.6	16.4	3.20
	남성	20대 이하	45	2.2	4.4	40.0	42.2	11.1	3.56
		30대	45	2.2	2.2	42.2	33.3	20.0	3.67
		40대	52	0.0	11.5	36.5	28.8	23.1	3.63
		50대	50	2.0	16.0	34.0	40.0	8.0	3.36
		60대 이상	51	5.9	17.6	41.2	23.5	11.8	3.1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7	12.6	37.8	36.0	10.8	3.40	
	방배권	93	5.4	9.7	47.3	30.1	7.5	3.25	
	서초권	218	1.4	11.9	34.9	35.8	16.1	3.53	
	양재/내곡권	78	3.8	12.8	42.3	24.4	16.7	3.37	
경제활동	취업	369	1.6	10.0	38.8	33.9	15.7	3.52	
	비취업	131	6.1	16.8	39.7	30.5	6.9	3.1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3.0	7.7	41.1	34.5	13.7	3.48	
	기혼	325	2.2	14.2	37.8	32.3	13.5	3.41	
	기타	7	28.6	0.0	42.9	28.6	0.0	2.71	
자녀유무	있다	317	3.5	13.6	36.0	33.4	13.6	3.40	
	없다	183	1.6	8.7	44.3	32.2	13.1	3.46	

3) 주중/주말 시간 활용

(1) 주중 평균 활동 시간

▷ 주중 평균 활동 시간

'귀하는 주중 평일 하루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에 대해 근로 활동 7.5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수면 6.51시간, 돌봄활동 2.46시간, 가사활동 2.14시간, 문화 및 여가활동 1.92시간 순으로 응답함. 성별로 여성은 가사활동과 돌봄활동에 대해 각 2.61시간, 3.13시간으로 남성 1.61시간, 1.82시간보다 길었고, 남성은 근로활동 7.87시간으로 여성 7.24시간 보다 길게 나타남.

[표 Ⅲ-3-8] 주중 평균 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수면	가사 활동	돌봄 활동	근로 활동	출·퇴근	학습, 자기 개발	문화 및 여가 활동	교제 및 참여 활동	기타	
전체		500	6.51	2.14	2.46	7.57	1.41	1.74	1.92	1.80	2.76	
성별	여성	257	6.50	2.61	3.13	7.24	1.30	1.66	1.90	1.86	2.72	
	남성	243	6.51	1.61	1.82	7.87	1.51	1.82	1.93	1.74	2.79	
연령대	20대 이하	92	6.62	1.43	2.73	8.01	1.52	2.35	2.25	1.76	3.08	
	30대	95	6.65	1.99	2.55	7.90	1.30	1.55	1.90	2.00	2.83	
	40대	107	6.50	2.36	2.89	7.74	1.36	1.26	1.52	1.61	2.17	
	50대	100	6.43	2.32	1.68	7.52	1.36	1.69	1.99	1.71	3.13	
	60대 이상	106	6.34	2.55	2.19	5.94	1.74	1.97	1.97	2.01	2.81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7	6.81	1.34	1.00	8.17	1.23	1.79	1.99	1.58
30대			50	6.61	2.21	3.58	7.66	1.19	1.61	1.96	2.45	3.09
40대			55	6.63	3.01	4.04	7.00	1.37	1.37	1.40	1.48	1.75
50대			50	6.40	3.04	1.82	6.43	1.26	1.76	2.08	1.81	3.41
60대 이상			55	6.08	3.31	2.46	6.00	1.75	1.78	2.09	2.10	2.75
남성		20대 이하	45	6.43	1.53	3.17	7.80	1.84	2.83	2.51	1.90	3.36
		30대	45	6.70	1.74	1.63	8.14	1.41	1.48	1.82	1.47	2.32
		40대	52	6.37	1.67	1.57	8.35	1.36	1.16	1.62	1.76	2.57
		50대	50	6.47	1.53	1.53	8.39	1.42	1.60	1.90	1.55	2.89
		60대 이상	51	6.61	1.57	1.93	5.91	1.74	2.24	1.84	1.92	2.8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6.65	2.11	2.46	7.68	1.31	1.76	2.04	1.63	2.70	
	방배권	93	6.18	2.16	2.36	6.61	1.53	1.64	2.24	2.40	2.95	
	서초권	218	6.55	2.08	2.41	7.81	1.38	1.82	1.73	1.59	2.77	
	양재/내곡권	78	6.55	2.35	2.72	7.69	1.56	1.57	1.92	1.93	2.65	
경제활동	취업	369	6.45	1.92	2.26	7.82	1.42	1.51	1.69	1.66	2.46	
	비취업	131	6.66	2.80	3.07	4.43	1.24	2.40	2.55	2.17	3.77	
결혼여부	비혼 /미혼	168	6.60	1.57	2.26	8.00	1.42	1.99	2.12	1.98	2.88	
	기혼	325	6.45	2.45	2.50	7.32	1.41	1.57	1.80	1.72	2.68	
	기타	7	7.00	1.80	1.25	6.00	1.25	1.63	2.00	2.00	0.00	
자녀유무	있다	317	6.40	2.48	2.52	7.25	1.48	1.62	1.87	1.87	2.88	
	없다	183	6.69	1.59	1.93	8.01	1.34	1.90	1.99	1.69	2.60	

주: 전체 응답자 중 해당하는 인원의 응답만 반영된 결과임

(2) 주말 평균 활동 시간

▷ 주말 평균 활동 시간

‘귀하는 주말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에 대해 수면 7.60시간을 제외하고, 돌봄 3.47, 기타 3.42시간, 문화 및 여가활동 3.40시간, 근로활동 3.36시간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여성의 돌봄활동은 4.07시간(남성 2.87시간), 가사활동은 3.17시간(남성 2.30시간)으로 나타나 남성 보다 길게 나타남. 남성은 근로활동 3.67시간(여성 3.08시간), 문화 및 여가활동 3.58시간(여성 3.24시간), 학습·자기개발 2.60시간(여성 2.22시간)에서 여성에 비해 길게 나타남.

[표 Ⅲ-3-9] 주말 평균 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수면	가사 활동	돌봄 활동	근로 활동	출·퇴근	학습, 자기 개발	문화 및 여가 활동	교제 및 참여 활동	기타	
전체		500	7.60	2.77	3.47	3.36	1.99	2.41	3.40	2.54	3.42	
성별	여성	257	7.58	3.17	4.07	3.08	1.90	2.22	3.24	2.34	3.37	
	남성	243	7.63	2.30	2.87	3.67	2.05	2.60	3.58	2.75	3.46	
연령대	20대 이하	92	8.30	2.04	2.90	3.54	3.46	3.10	3.72	3.00	3.25	
	30대	95	7.71	2.79	4.09	4.10	1.78	2.25	3.32	2.81	3.39	
	40대	107	7.89	3.01	4.71	2.63	1.88	2.23	3.22	2.08	3.05	
	50대	100	7.31	2.98	1.89	3.37	1.20	2.21	3.66	2.30	3.85	
	60대 이상	106	6.82	2.94	1.70	3.50	1.44	2.08	3.08	2.69	3.43	
성 별 * 연 령 대	여성	20대 이하	47	8.47	2.13	2.50	2.50	1.67	2.74	3.99	2.70	3.90
		30대	50	7.81	2.97	4.55	3.23	3.30	2.09	3.36	2.66	3.84
		40대	55	7.91	3.54	5.68	2.88	1.83	2.00	2.71	2.03	2.39
		50대	50	7.15	3.72	2.15	3.14	1.14	2.15	3.20	2.03	3.45
		60대 이상	55	6.56	3.40	1.92	3.56	1.75	2.08	2.94	2.44	2.67
	남성	20대 이하	45	8.12	1.93	2.96	4.11	4.06	3.49	3.40	3.29	2.79
		30대	45	7.60	2.56	3.65	4.73	1.09	2.48	3.27	2.96	2.84
		40대	52	7.87	2.43	3.57	2.33	1.90	2.43	3.71	2.13	3.56
		50대	50	7.47	2.23	1.53	4.00	1.33	2.27	4.14	2.59	4.25
		60대 이상	51	7.09	2.31	1.50	3.43	1.13	2.08	3.22	2.93	3.6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7.81	2.66	3.21	3.02	1.81	2.58	3.76	2.60	3.07	
	방배권	93	6.97	2.63	3.21	4.47	1.83	2.50	3.30	3.09	3.85	
	서초권	218	7.75	2.73	3.65	3.20	1.90	2.45	3.29	2.34	3.42	
	양재/내곡권	78	7.61	3.23	3.58	3.12	2.78	1.90	3.28	2.40	3.52	
경제활동	취업	369	7.73	2.65	3.54	3.39	1.88	2.37	3.42	2.50	3.43	
	비취업	131	7.23	3.15	3.20	3.21	3.00	2.58	3.34	2.71	3.37	
결혼여부	비혼 /미혼	168	8.08	2.24	2.61	4.00	2.52	2.80	3.68	2.97	3.35	
	기혼	325	7.35	3.05	3.62	3.06	1.63	2.10	3.25	2.30	3.48	
	기타	7	7.70	2.75	2.50	2.00	1.00	2.50	3.10	2.33	2.00	
자녀유무	있다	317	7.31	3.10	3.64	3.09	2.32	2.10	3.23	2.30	3.45	
	없다	183	8.09	2.23	2.29	3.89	1.43	2.76	3.66	2.91	3.38	

주: 전체 응답자 중 해당하는 인원의 응답만 반영된 결과임

4) 소득활동 상태

(1) 주요 소득원

▷ 주요 소득원

‘귀하의 주요 소득원은 무엇입니까’(가장 비중이 큰 것 한 개만 선택해 주세요)에 대해 ‘근로소득’이 68.7%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연금소득 8.4%, 사업소득 7.8% 순임.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7.2%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은 ‘소득활동 하지 않음’ 10.5%, ‘사업소득’ 8.9%, ‘연금소득’ 8.6%, 자산소득 7.8%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남성은 ‘근로소득’ 7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10] 주요 소득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연금소득	④ 자산소득 (예금이자, 주식 등)	⑤ 기타 (구체적으로)	⑥ 소득활동 하지 않음
전체		500	68.7	7.8	8.4	5.8	2.0	7.2
성별	여성	257	61.9	8.9	8.6	7.8	2.3	10.5
	남성	243	75.9	6.6	8.3	3.7	1.7	3.7
연령대	20대 이하	92	79.3	4.3	2.2	4.3	0.0	9.8
	30대	95	82.1	9.5	3.2	1.1	0.0	4.2
	40대	107	83.2	5.6	0.9	2.8	2.8	4.7
	50대	100	69.7	9.1	1.0	11.1	0.0	9.1
	60대 이상	106	31.4	10.5	33.3	9.5	6.7	8.6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7	85.1	6.4	0.0	2.1	6.4
		30대	50	74.0	12.0	4.0	2.0	8.0
		40대	55	70.9	7.3	1.8	5.5	9.1
		50대	50	58.0	12.0	0.0	14.0	16.0
		60대 이상	55	25.5	7.3	34.5	14.5	12.7
	남성	20대 이하	45	73.3	2.2	4.4	6.7	13.3
		30대	45	91.1	6.7	2.2	0.0	0.0
		40대	52	96.2	3.8	0.0	0.0	0.0
		50대	50	81.6	6.1	2.0	8.2	2.0
		60대 이상	51	38.0	14.0	32.0	4.0	4.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62.2	7.2	8.1	10.8	3.6	8.1
	방배권	93	55.4	13.0	14.1	7.6	3.3	6.5
	서초권	218	76.5	6.9	5.5	4.1	0.9	6.0
	양재/내곡권	78	71.8	5.1	10.3	1.3	1.3	10.3
경제활동	취업	369	86.4	7.6	2.2	1.9	1.6	0.3
	비취업	131	18.5	8.5	26.2	16.9	3.1	26.9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81.5	6.0	2.4	3.6	0.0	6.5
	기혼	325	62.3	9.0	11.4	6.8	3.1	7.4
	기타	7	50.0	0.0	16.7	16.7	0.0	16.7
자녀유무	있다	317	59.7	9.2	13.0	7.6	2.9	7.6
	없다	183	84.2	5.5	0.5	2.7	0.5	6.6

(2) 고용형태와 직무

▷ 고용형태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 342명에게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와 직무는 무엇입니까'로 질문한 결과, 정규직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한시직/기간제/계약직 14.2%, 1주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5.9%, 특수형태 근로 3.0%, 일용직 2.7%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은 한시직/기간제/계약직 20.4%, 시간제 8.9%, 특수형태 근로 5.1%, 일용직 3.8%로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남성 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남성은 정규직 85.1%로 여성 61.8%에 비해 23.3%p 높게 나타남.

[표 Ⅲ-3-11] 고용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규직	한시직/기간제 /계약직	시간제 (1주 36시간 미만 근로)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	
전체		342	74.3	14.2	5.9	2.7	3.0	
성별	여성	159	61.8	20.4	8.9	3.8	5.1	
	남성	183	85.1	8.8	3.3	1.7	1.1	
연령대	20대 이하	73	75.3	15.1	2.7	5.5	1.4	
	30대	78	84.6	10.3	5.1	0.0	0.0	
	40대	89	77.5	11.2	3.4	0.0	7.9	
	50대	69	69.6	13.0	10.1	5.8	1.4	
	60대 이상	33	44.8	34.5	13.8	3.4	3.4	
성 별 * 연 령 대	여성	20대 이하	40	70.0	20.0	2.5	5.0	2.5
		30대	37	81.1	10.8	8.1	0.0	0.0
		40대	39	64.1	17.9	5.1	0.0	12.8
		50대	29	34.5	27.6	24.1	10.3	3.4
		60대 이상	14	33.3	41.7	8.3	8.3	8.3
	남성	20대 이하	33	81.8	9.1	3.0	6.1	0.0
		30대	41	87.8	9.8	2.4	0.0	0.0
		40대	50	88.0	6.0	2.0	0.0	4.0
		50대	40	95.0	2.5	0.0	2.5	0.0
		60대 이상	19	52.9	29.4	17.6	0.0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69	78.3	8.7	5.8	2.9	4.3	
	방배권	51	75.0	16.7	6.3	0.0	2.1	
	서초권	166	75.8	15.2	4.8	3.0	1.2	
	양재/내곡권	56	64.3	16.1	8.9	3.6	7.1	
경제활동	취업	318	77.5	12.7	5.4	1.9	2.5	
	비취업	24	30.4	34.8	13.0	13.0	8.7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37	79.6	11.7	4.4	2.9	1.5	
	기혼	202	70.7	16.2	6.6	2.5	4.0	
	기타	3	66.7	0.0	33.3	0.0	0.0	
자녀유무	있다	188	69.6	15.8	7.6	3.3	3.8	
	없다	154	79.9	12.3	3.9	1.9	1.9	

▷ 직업군

동일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 342명에게 직업군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경영·회계·사무직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및 강사 10.7%, 보건·의료 9.8%, 정보통신(IT 관련) 8.3%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교육서비스 및 강사 17.3%, 보건·의료, 13.5%, 음식서비스 및 식품 가공 6.4%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남성은 경영·회계·사무 27.1%, 정보통신(IT 관련) 12.2%, 운전·운송·건설·농림어업 11.6%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12] 직업군

(단위: 명, %)

구분		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전체		342	26.4	6.8	10.7	2.1	9.8	0.9	5.0	4.2	1.8	0.3	0.3	5.0	0.9	8.3	1.5	3.3	3.0	6.5	3.3
성별	여성	159	25.6	5.1	17.3	0.6	13.5	1.3	6.4	2.6	2.6	0.6	0.6	6.4	0.6	3.8	1.9	2.6	3.2	0.6	4.5
	남성	183	27.1	8.3	5.0	3.3	6.6	0.6	3.9	5.5	1.1	0.0	0.0	3.9	1.1	12.2	1.1	3.9	2.8	11.6	2.2
연령대	20대 이하	73	28.8	4.1	11.0	1.4	12.3	1.4	6.8	2.7	0.0	0.0	1.4	9.6	0.0	8.2	0.0	2.7	4.1	5.5	0.0
	30대	78	34.6	9.0	7.7	0.0	12.8	1.3	7.7	6.4	1.3	0.0	0.0	2.6	1.3	5.1	2.6	1.3	3.8	2.6	0.0
	40대	89	24.7	6.7	15.7	3.4	7.9	1.1	2.2	5.6	1.1	1.1	0.0	2.2	1.1	9.0	1.1	3.4	3.4	6.7	3.4
	50대	69	20.3	10.1	10.1	4.3	5.8	0.0	2.9	1.4	1.4	0.0	0.0	4.3	1.4	13.0	1.4	5.8	1.4	7.2	8.7
	60대 이상	33	17.9	0.0	3.6	0.0	10.7	0.0	7.1	3.6	10.7	0.0	0.0	10.7	0.0	3.6	3.6	3.6	0.0	17.9	7.1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40	30.0	5.0	12.5	0.0	17.5	2.5	10.0	0.0	0.0	2.5	7.5	0.0	7.5	0.0	2.5	2.5	0.0	0.0
		30대	37	32.4	5.4	10.8	0.0	21.6	0.0	8.1	5.4	0.0	0.0	5.4	0.0	5.4	2.7	0.0	2.7	0.0	0.0
		40대	39	25.6	2.6	30.8	0.0	5.1	2.6	2.6	2.6	2.6	0.0	2.6	2.6	0.0	2.6	2.6	7.7	0.0	5.1
		50대	29	13.8	10.3	17.2	3.4	10.3	0.0	3.4	0.0	3.4	0.0	10.3	0.0	3.4	3.4	6.9	0.0	0.0	13.8
		60대 이상	14	18.2	0.0	9.1	0.0	9.1	0.0	9.1	9.1	18.2	0.0	9.1	0.0	0.0	0.0	0.0	0.0	9.1	9.1
	남성	20대 이하	33	27.3	3.0	9.1	3.0	6.1	0.0	3.0	6.1	0.0	0.0	12.1	0.0	9.1	0.0	3.0	6.1	12.1	0.0
		30대	41	36.6	12.2	4.9	0.0	4.9	2.4	7.3	7.3	2.4	0.0	0.0	0.0	2.4	4.9	2.4	4.9	4.9	0.0
		40대	50	24.0	10.0	4.0	6.0	10.0	0.0	2.0	8.0	0.0	0.0	2.0	0.0	16.0	0.0	4.0	0.0	12.0	2.0
		50대	40	25.0	10.0	5.0	5.0	2.5	0.0	2.5	2.5	0.0	0.0	0.0	2.5	20.0	0.0	5.0	2.5	12.5	5.0
		60대 이상	19	17.6	0.0	0.0	0.0	11.8	0.0	5.9	0.0	5.9	0.0	0.0	11.8	0.0	5.9	5.9	5.9	0.0	23.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69	27.9	2.9	14.7	1.5	8.8	1.5	7.4	0.0	1.5	0.0	1.5	4.4	1.5	10.3	0.0	2.9	1.5	5.9	5.9
	방배권	51	39.6	10.4	0.0	2.1	6.3	0.0	0.0	6.3	4.2	0.0	0.0	2.1	0.0	6.3	4.2	2.1	2.1	12.5	2.1
	서초권	166	22.4	7.9	9.7	3.0	13.3	0.0	4.2	6.1	0.6	0.6	0.0	6.7	0.6	7.3	1.8	3.6	4.2	4.8	3.0
	양재/내곡권	56	25.0	5.4	17.9	0.0	3.6	3.6	8.9	1.8	3.6	0.0	0.0	3.6	1.8	10.7	0.0	3.6	1.8	7.1	1.8
경제활동	취업	318	27.3	7.3	10.2	2.2	9.8	1.0	4.8	4.4	1.6	0.0	0.3	4.8	1.0	8.9	1.3	3.5	2.9	6.3	2.5
	비취업	24	13.6	0.0	18.2	0.0	9.1	0.0	9.1	0.0	4.5	4.5	0.0	9.1	0.0	0.0	4.5	0.0	4.5	9.1	13.6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37	31.4	3.6	11.7	1.5	11.7	0.7	8.8	3.6	0.7	0.0	0.7	5.1	0.7	8.0	0.7	2.9	2.9	3.6	1.5
	기혼	202	23.4	9.1	10.2	2.5	8.6	0.0	2.5	4.6	2.5	0.5	0.0	5.1	1.0	8.6	2.0	3.6	3.0	8.6	4.1
	기타	3	0.0	0.0	0.0	0.0	0.0	6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구분		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전체		342	26.4	6.8	10.7	2.1	9.8	0.9	5.0	4.2	1.8	0.3	0.3	5.0	0.9	8.3	1.5	3.3	3.0	6.5	3.3
자녀유무	있다	188	22.4	9.3	10.4	2.7	9.3	1.1	2.7	4.4	2.7	0.5	0.0	4.4	1.1	8.7	2.2	2.7	2.2	8.2	4.9
	없다	154	31.2	3.9	11.0	1.3	10.4	0.6	7.8	3.9	0.6	0.0	0.6	5.8	0.6	7.8	0.6	3.9	3.9	4.5	1.3

① 경영·회계·사무

② 금융·보험

③ 교육서비스 및 강사

④ 법률·경찰·소방

⑤ 보건·의료

⑥ 사회복지·상담·종교

⑦ 문화·예술·디자인·방송·출판

⑧ 영업·판매

⑨ 용역(청소·가사·세탁·돌봄)

⑩ 이용·미용·피부관리·체형관리

⑪ 레저, 스포츠

⑫ 음식 서비스 및 식품 가공

⑬ 섬유·의복

⑭ 정보통신(IT 관련)

⑮ 미술, 공예, 가구, 조경

⑯ 환경, 에너지, 안전

⑰ 연구

⑱ 운전·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⑲ 기타

5) 근무환경 만족도

▷ 현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정도

‘귀하는 현재의 근무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만족’(만족+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40.8%,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 12.3%이며, 5점 척도 기준 평균 3.32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만족’한다는 응답은 39.2%로 남성 42.1%보다 2.9%p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Ⅲ-3-13] 현재 근무환경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342	2.6	9.7	46.9	34.9	5.9	3.32	
성별	여성	159	3.2	10.1	47.5	35.4	3.8	3.27	
	남성	183	2.2	9.3	46.4	34.4	7.7	3.36	
연령대	20대 이하	73	2.7	8.2	38.4	41.1	9.6	3.47	
	30대	78	0.0	16.7	44.9	32.1	6.4	3.28	
	40대	89	2.2	6.7	57.3	29.2	4.5	3.27	
	50대	69	1.4	5.8	53.6	34.8	4.3	3.35	
	60대 이상	33	12.5	12.5	28.1	43.8	3.1	3.13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0	2.5	10.0	45.0	35.0	7.5	3.35
		30대	37	0.0	18.9	40.5	37.8	2.7	3.24
		40대	39	5.1	5.1	59.0	25.6	5.1	3.21
		50대	29	0.0	6.9	48.3	44.8	0.0	3.38
		60대 이상	14	15.4	7.7	38.5	38.5	0.0	3.00
	남성	20대 이하	33	3.0	6.1	30.3	48.5	12.1	3.61
		30대	41	0.0	14.6	48.8	26.8	9.8	3.32
		40대	50	0.0	8.0	56.0	32.0	4.0	3.32
		50대	40	2.5	5.0	57.5	27.5	7.5	3.33
		60대 이상	19	10.5	15.8	21.1	47.4	5.3	3.21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69	1.4	2.9	47.8	37.7	10.1	3.52	
	방배권	51	6.0	12.0	40.0	36.0	6.0	3.24	
	서초권	166	1.8	10.8	46.4	36.1	4.8	3.31	
	양재/내곡권	56	3.6	12.5	53.6	26.8	3.6	3.14	
경제활동	취업	318	2.5	9.7	45.9	35.5	6.3	3.33	
	비취업	24	4.3	8.7	60.9	26.1	0.0	3.09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37	0.7	8.0	46.7	38.0	6.6	3.42	
	기혼	202	4.0	10.9	47.8	31.8	5.5	3.24	
	기타	3	0.0	0.0	0.0	100.0	0.0	4.00	
자녀유무	있다	188	3.7	9.1	46.0	34.8	6.4	3.31	
	없다	154	1.3	10.4	48.1	35.1	5.2	3.32	

▷ 근무환경 만족 요인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139명에 대해 '귀하는 다음 근무환경 중 무엇에 가장 만족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업무내용(직무) 21.2%, 급여 16.8%, 고용안정성 15.3%, 근로시간 13.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여성은 근로시간 19.7%, 출퇴근 거리, 업무강도, 일생활 균형이 각 11.5%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남성은 업무 내용 22.4%, 급여 25.0%, 고용안정성 18.4% 순으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14] 근무환경 만족 요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업무 내용 (직무)	급여	근로 시간	고용 안정성	일의 자율성과 권한	출퇴근 거리	업무 강도	일생활 균형	복리 후생
전체		139	21.2	16.8	13.1	15.3	7.3	9.5	7.3	8.8	0.7
성별	여성	62	19.7	6.6	19.7	11.5	8.2	11.5	11.5	11.5	0.0
	남성	77	22.4	25.0	7.9	18.4	6.6	7.9	3.9	6.6	1.3
연령대	20대 이하	37	16.2	27.0	13.5	16.2	0.0	10.8	13.5	2.7	0.0
	30대	30	20.0	16.7	16.7	13.3	10.0	6.7	3.3	10.0	3.3
	40대	30	23.3	23.3	6.7	13.3	10.0	10.0	6.7	6.7	0.0
	50대	27	29.6	0.0	14.8	18.5	7.4	7.4	3.7	18.5	0.0
	60대 이상	15	15.4	7.7	15.4	15.4	15.4	15.4	7.7	7.7	0.0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17	5.9	23.5	17.6	11.8	0.0	17.6	17.6	5.9
		30대	15	13.3	0.0	26.7	20.0	6.7	6.7	20.0	0.0
		40대	12	33.3	0.0	8.3	0.0	16.7	16.7	8.3	0.0
		50대	13	38.5	0.0	15.4	15.4	7.7	7.7	7.7	0.0
		60대 이상	5	0.0	0.0	50.0	0.0	25.0	0.0	25.0	0.0
	남성	20대 이하	20	25.0	30.0	10.0	20.0	0.0	5.0	10.0	0.0
		30대	15	26.7	33.3	6.7	6.7	13.3	6.7	0.0	6.7
		40대	18	16.7	38.9	5.6	22.2	5.6	0.0	5.6	0.0
		50대	14	21.4	0.0	14.3	21.4	7.1	7.1	0.0	28.6
		60대 이상	10	22.2	11.1	0.0	22.2	11.1	22.2	11.1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3	15.6	18.8	12.5	18.8	15.6	0.0	6.3	12.5	0.0
	방배권	21	35.0	10.0	10.0	15.0	10.0	10.0	5.0	5.0	0.0
	서초권	68	22.1	16.2	13.2	13.2	2.9	10.3	10.3	10.3	1.5
	양재/내곡권	17	11.8	23.5	17.6	17.6	5.9	23.5	0.0	0.0	0.0
경제활동	취업	133	22.0	16.7	11.4	15.9	7.6	9.8	7.6	8.3	0.8
	비취업	6	0.0	20.0	60.0	0.0	0.0	0.0	0.0	20.0	0.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61	14.8	21.3	13.1	14.8	3.3	14.8	9.8	8.2	0.0
	기혼	75	27.0	13.5	12.2	16.2	10.8	4.1	5.4	9.5	1.4
	기타	3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자녀유무	있다	77	28.0	12.0	12.0	17.3	9.3	5.3	5.3	9.3	1.3
	없다	62	12.9	22.6	14.5	12.9	4.8	14.5	9.7	8.1	0.0

▷ 근무환경 불만족 요인

현재 근무환경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42명에 대해 '귀하는 다음 근무환경 중 무엇에 가장 불만족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급여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업무내용 14.3%, 고용안정성 9.5%, 업무강도 7.1%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여성은 업무강도 9.5%, 복리후생 9.5%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업무내용 19.0%, 고용안정성 14.3%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Ⅲ-3-15] 근무환경 불만족 요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업무 내용 (직무)	② 급여	③ 근로 시간	④ 고용 안정성	⑤ 일의 자율성과 권한	⑥ 출퇴근 거리	⑦ 업무 강도	⑧ 일생활 균형	⑨ 복리 후생
전체		42	14.3	52.4	2.4	9.5	4.8	2.4	7.1	2.4	4.8
성별	여성	21	9.5	52.4	4.8	4.8	4.8	4.8	9.5	0.0	9.5
	남성	21	19.0	52.4	0.0	14.3	4.8	0.0	4.8	4.8	0.0
연령대	20대 이하	8	25.0	62.5	0.0	0.0	0.0	0.0	12.5	0.0	0.0
	30대	13	15.4	69.2	0.0	0.0	7.7	7.7	0.0	0.0	0.0
	40대	8	12.5	37.5	0.0	25.0	0.0	0.0	12.5	12.5	0.0
	50대	5	20.0	60.0	0.0	0.0	0.0	0.0	0.0	0.0	20.0
	60대 이상	8	0.0	25.0	12.5	25.0	12.5	0.0	12.5	0.0	12.5
성 별 * 연 령 대	여성	20대 이하	5	20.0	80.0	0.0	0.0	0.0	0.0	0.0	0.0
		30대	7	14.3	57.1	0.0	0.0	14.3	14.3	0.0	0.0
		40대	4	0.0	50.0	0.0	25.0	0.0	25.0	0.0	0.0
		50대	2	0.0	50.0	0.0	0.0	0.0	0.0	0.0	50.0
		60대 이상	3	0.0	0.0	33.3	0.0	0.0	33.3	0.0	33.3
	남성	20대 이하	3	33.3	33.3	0.0	0.0	0.0	33.3	0.0	0.0
		30대	6	16.7	83.3	0.0	0.0	0.0	0.0	0.0	0.0
		40대	4	25.0	25.0	0.0	25.0	0.0	0.0	25.0	0.0
		50대	3	33.3	66.7	0.0	0.0	0.0	0.0	0.0	0.0
		60대 이상	5	0.0	40.0	0.0	40.0	20.0	0.0	0.0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	0.0	66.7	0.0	33.3	0.0	0.0	0.0	0.0	0.0
	방배권	9	11.1	33.3	0.0	0.0	11.1	11.1	11.1	0.0	22.2
	서초권	21	14.3	66.7	4.8	4.8	0.0	0.0	4.8	4.8	0.0
	양재/내곡권	9	22.2	33.3	0.0	22.2	11.1	0.0	11.1	0.0	0.0
경제활동	취업	39	15.4	53.8	2.6	10.3	5.1	2.6	7.7	2.6	0.0
	비취업	3	0.0	33.3	0.0	0.0	0.0	0.0	0.0	0.0	66.7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2	25.0	50.0	0.0	0.0	8.3	8.3	8.3	0.0	0.0
	기혼	30	10.0	53.3	3.3	13.3	3.3	0.0	6.7	3.3	6.7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녀유무	있다	24	8.3	45.8	4.2	16.7	4.2	0.0	8.3	4.2	8.3
	없다	18	22.2	61.1	0.0	0.0	5.6	5.6	5.6	0.0	0.0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형태의 변화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 342명에게 ‘귀하는 이번 코로나 19로 고용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로 질문한 결과, 변화없음 71.7%인 한편, 임금감소 13.3%, 휴직 6.2%, 해고 또는 계약종료 2.9% 순으로 고용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이 증가한 응답자는 5.9%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변화없음 72.2%를 제외하고, 휴직 8.2%, 해고 또는 계약종료 3.8%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남성은 임금감소 13.8%, 임금증가 8.3%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3-16]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태 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변화 없음	② 임금 증가	③ 휴직	④ 임금 감소	⑤ 해고 또는 계약종료	
전체		342	71.7	5.9	6.2	13.3	2.9	
성별	여성	159	72.2	3.2	8.2	12.7	3.8	
	남성	183	71.3	8.3	4.4	13.8	2.2	
연령대	20대 이하	73	74.0	9.6	8.2	6.8	1.4	
	30대	78	74.4	7.7	7.7	10.3	0.0	
	40대	89	71.9	5.6	5.6	13.5	3.4	
	50대	69	71.0	2.9	5.8	15.9	4.3	
	60대 이상	33	60.0	0.0	0.0	30.0	10.0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0	82.5	2.5	7.5	5.0	2.5
		30대	37	81.1	0.0	8.1	10.8	0.0
		40대	39	64.1	5.1	10.3	15.4	5.1
		50대	29	62.1	6.9	10.3	13.8	6.9
		60대 이상	14	61.5	0.0	0.0	30.8	7.7
	남성	20대 이하	33	63.6	18.2	9.1	9.1	0.0
		30대	41	68.3	14.6	7.3	9.8	0.0
		40대	50	78.0	6.0	2.0	12.0	2.0
		50대	40	77.5	0.0	2.5	17.5	2.5
		60대 이상	19	58.8	0.0	0.0	29.4	11.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69	77.9	5.9	2.9	10.3	2.9	
	방배권	51	63.3	4.1	10.2	18.4	4.1	
	서초권	166	73.5	6.6	6.6	10.8	2.4	
	양재/내곡권	56	66.1	5.4	5.4	19.6	3.6	
경제활동	취업	318	73.2	6.0	4.7	13.6	2.5	
	비취업	24	50.0	4.5	27.3	9.1	9.1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37	75.9	5.8	7.3	10.2	0.7	
	기혼	202	69.0	5.5	5.5	15.5	4.5	
	기타	3	50.0	50.0	0.0	0.0	0.0	
자녀유무	있다	188	67.6	5.9	5.9	16.2	4.3	
	없다	154	76.6	5.8	6.5	9.7	1.3	

6) 구직 및 취업희망 인식

(1) 근로활동 의사

▷ 근로활동 의사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35명에 대해 '귀하는 근로활동에 대한 의사가 있으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80.0%, '없다'는 20.0%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은 근로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0.8%로 남성 77.8%에 비해 2.0%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30대, 40대 응답자는 모두 근로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대 77.8%, 60대 이상 66.7%가 근로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표 Ⅲ-3-17] 근로활동 의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35	80.0	20.0	
성별	여성	26	80.8	19.2	
	남성	9	77.8	22.2	
연령대	20대 이하	9	77.8	22.2	
	30대	3	100.0	0.0	
	40대	5	100.0	0.0	
	50대	9	77.8	22.2	
	60대 이상	9	66.7	33.3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3	100.0	0.0
		30대	3	100.0	0.0
		40대	5	100.0	0.0
		50대	8	75.0	25.0
		60대 이상	7	57.1	42.9
	남성	20대 이하	6	66.7	33.3
		30대	0	0.0	0.0
		40대	0	0.0	0.0
		50대	1	100.0	0.0
		60대 이상	2	100.0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9	66.7	33.3	
	방배권	6	66.7	33.3	
	서초권	12	91.7	8.3	
	양재/내곡권	8	87.5	12.5	
경제활동	취업	0	0.0	0.0	
	비취업	35	80.0	20.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1	81.8	18.2	
	기혼	23	78.3	21.7	
	기타	1	100.0	0.0	
자녀유무	있다	23	78.3	21.7	
	없다	12	83.3	16.7	

주: 현재 소득활동(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자산소득, 기타)을 하지 않는 응답자 대상

▷ 근로활동 의사가 있으나, 근로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귀하가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로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적절한 일자리 부족 39.3%, 자녀양육 및 교육, 학력/기술 부족, 나이로 인한 차별이 각 14.3%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은 적절한 일자리 부족 42.9%, 자녀양육 및 교육 19.0%, 나이로 인한 차별 9.5%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남성은 학력/기술부족 28.6%, 경력부족 14.3%, 질병 또는 장애 14.3%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18] 근로활동 어려운 이유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자녀 양육 및 교육	② 어르신/ 가족 돌봄	③ 적절한 일자리 부족	④ 학력/ 기술 부족	⑤ 경력 부족	⑥ 취업 정보 부족	⑦ 나이 인한 차별	⑧ 질병 또는 장애	⑨ 기타
전체		28	14.3	0.0	39.3	14.3	7.1	7.1	14.3	3.6	0.0
성별	여성	21	19.0	0.0	42.9	9.5	4.8	9.5	14.3	0.0	0.0
	남성	7	0.0	0.0	28.6	28.6	14.3	0.0	14.3	14.3	0.0
연령대	20대 이하	7	0.0	0.0	28.6	28.6	14.3	28.6	0.0	0.0	0.0
	30대	3	33.3	0.0	33.3	0.0	0.0	0.0	33.3	0.0	0.0
	40대	5	60.0	0.0	40.0	0.0	0.0	0.0	0.0	0.0	0.0
	50대	7	0.0	0.0	28.6	28.6	14.3	0.0	14.3	14.3	0.0
	60대 이상	6	0.0	0.0	66.7	0.0	0.0	0.0	33.3	0.0	0.0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3	0.0	33.3	0.0	0.0	66.7	0.0	0.0	0.0
		30대	3	33.3	0.0	33.3	0.0	0.0	33.3	0.0	0.0
		40대	5	60.0	0.0	40.0	0.0	0.0	0.0	0.0	0.0
		50대	6	0.0	0.0	33.3	33.3	16.7	0.0	16.7	0.0
		60대 이상	4	0.0	0.0	75.0	0.0	0.0	25.0	0.0	0.0
	남성	20대 이하	4	0.0	0.0	25.0	50.0	25.0	0.0	0.0	0.0
		30대	0	0.0	0.0	0.0	0.0	0.0	0.0	0.0	0.0
		40대	0	0.0	0.0	0.0	0.0	0.0	0.0	0.0	0.0
		50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60대 이상	2	0.0	0.0	50.0	0.0	0.0	50.0	0.0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6	16.7	0.0	33.3	33.3	16.7	0.0	0.0	0.0	0.0
	방배권	4	25.0	0.0	25.0	25.0	0.0	0.0	25.0	0.0	0.0
	서초권	11	9.1	0.0	54.5	9.1	9.1	9.1	9.1	0.0	0.0
	양재/내곡권	7	14.3	0.0	28.6	0.0	0.0	14.3	28.6	14.3	0.0
경제활동	취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취업	28	14.3	0.0	39.3	14.3	7.1	7.1	14.3	3.6	0.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9	0.0	0.0	44.4	22.2	11.1	11.1	11.1	0.0	0.0
	기혼	18	22.2	0.0	38.9	11.1	5.6	0.0	16.7	5.6	0.0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자녀유무	있다	18	22.2	0.0	38.9	11.1	5.6	0.0	16.7	5.6	0.0
	없다	10	0.0	0.0	40.0	20.0	10.0	20.0	10.0	0.0	0.0

주: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및 근로활동 의사가 있는 응답자 대상

▷ 근로활동 의사가 있으나, 근로활동이 어려운 이유(1+2순위)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귀하가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로 질문의 1+2순위를 합한 결과, 적절한 일자리 부족 72.6%로 가장 높았고, 나이로 인한 차별 36.5%, 취업정보부족 2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여성은 적절한 일자리 부족 81.0%로 가장 높았고, 취업정보 부족 33.3%, 자녀 양육 및 교육 23.8% 순으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남성은 학력/기술 부족 45.2%, 경력부족 31.0%, 나이로 인한 차별 47.6%에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19] 근로활동 어려운 이유 종합순위(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자녀 양육 및 교육	② 어르신/ 가족 돌봄	③ 적절한 일자리 부족	④ 학력/ 기술 부족	⑤ 경력 부족	⑥ 취업 정보 부족	⑦ 나이 차별	⑧ 질병 또는 장애	⑨ 기타
전체		28	18.0	0.0	72.6	18.0	18.3	29.4	36.5	7.3	0.0
성별	여성	21	23.8	0.0	81.0	9.5	14.3	33.3	33.3	4.8	0.0
	남성	7	0.0	0.0	45.2	45.2	31.0	16.7	47.6	14.3	0.0
연령대	20대 이하	7	0.0	0.0	57.1	42.9	42.9	57.1	0.0	0.0	0.0
	30대	3	33.3	0.0	66.7	0.0	0.0	66.7	33.3	0.0	0.0
	40대	5	80.0	0.0	100.0	0.0	0.0	0.0	0.0	20.0	0.0
	50대	7	0.0	0.0	57.1	28.6	28.6	14.3	57.1	14.3	0.0
	60대 이상	6	0.0	0.0	86.7	0.0	0.0	20.0	93.3	0.0	0.0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3	0.0	0.0	66.7	0.0	33.3	100.0	0.0	0.0
		30대	3	33.3	0.0	66.7	0.0	0.0	66.7	33.3	0.0
		40대	5	80.0	0.0	100.0	0.0	0.0	0.0	20.0	0.0
		50대	6	0.0	0.0	66.7	33.3	33.3	16.7	50.0	0.0
		60대 이상	4	0.0	0.0	100.0	0.0	0.0	25.0	75.0	0.0
	남성	20대 이하	4	0.0	0.0	50.0	75.0	50.0	25.0	0.0	0.0
		30대	0	0.0	0.0	0.0	0.0	0.0	0.0	0.0	0.0
		40대	0	0.0	0.0	0.0	0.0	0.0	0.0	0.0	0.0
		50대	1	0.0	0.0	0.0	0.0	0.0	100.0	100.0	0.0
		60대 이상	2	0.0	0.0	50.0	0.0	0.0	0.0	150.0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6	16.7	0.0	66.7	33.3	16.7	50.0	16.7	0.0	0.0
	방배권	4	25.0	0.0	50.0	25.0	25.0	25.0	50.0	0.0	0.0
	서초권	11	18.2	0.0	90.9	18.2	18.2	27.3	27.3	0.0	0.0
	양재/내곡권	7	14.3	0.0	61.9	0.0	16.7	14.3	61.9	31.0	0.0
경제활동	취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취업	28	18.0	0.0	72.6	18.0	18.3	29.4	36.5	7.3	0.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9	0.0	0.0	66.7	33.3	33.3	44.4	11.1	11.1	0.0
	기혼	18	28.1	0.0	74.2	11.1	11.4	17.6	52.0	5.6	0.0
	기타	1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자녀유무	있다	18	28.1	0.0	74.2	11.1	11.4	17.6	52.0	5.6	0.0
	없다	10	0.0	0.0	70.0	30.0	30.0	50.0	10.0	10.0	0.0

주: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및 근로활동 의사가 있는 응답자 대상

(2) 일자리 관련 정보 취득 경로

▷ 일자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구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귀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아보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벼룩시장 등 민간 구직사이트' 57.7%, 워크넷 등 공공구직 사이트 34.6%, 서초일자리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19.2%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은 민간구직 사이트 60.0%, 남성은 공공구직 사이트 6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20] 일자리 관련 정보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8	34.6	57.7	7.7	15.4	7.7	11.5	19.2	7.7
성별	여성	21	25.0	60.0	10.0	15.0	10.0	10.0	25.0	5.0
	남성	7	66.7	50.0	0.0	16.7	0.0	16.7	0.0	16.7
연령대	20대 이하	7	85.7	57.1	0.0	14.3	0.0	0.0	14.3	0.0
	30대	3	66.7	100.0	0.0	0.0	0.0	0.0	33.3	0.0
	40대	5	20.0	80.0	20.0	0.0	0.0	40.0	40.0	0.0
	50대	7	0.0	57.1	14.3	14.3	28.6	0.0	14.3	14.3
	60대 이상	6	0.0	0.0	0.0	50.0	0.0	25.0	0.0	25.0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3	66.7	33.3	0.0	0.0	0.0	33.3	0.0
		30대	3	66.7	100.0	0.0	0.0	0.0	33.3	0.0
		40대	5	20.0	80.0	20.0	0.0	40.0	40.0	0.0
		50대	6	0.0	66.7	16.7	16.7	33.3	0.0	16.7
		60대 이상	4	0.0	0.0	0.0	66.7	0.0	0.0	33.3
	남성	20대 이하	4	100.0	75.0	0.0	25.0	0.0	0.0	0.0
		30대	0	0.0	0.0	0.0	0.0	0.0	0.0	0.0
		40대	0	0.0	0.0	0.0	0.0	0.0	0.0	0.0
		50대	1	0.0	0.0	0.0	0.0	0.0	0.0	100.0
		60대 이상	2	0.0	0.0	0.0	0.0	100.0	0.0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6	33.3	66.7	0.0	33.3	0.0	0.0	16.7	0.0
	방배권	4	25.0	50.0	0.0	25.0	25.0	0.0	0.0	25.0
	서초권	11	40.0	50.0	10.0	10.0	10.0	10.0	10.0	0.0
	양재/내곡권	7	33.3	66.7	16.7	0.0	0.0	33.3	50.0	16.7
경제활동	취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취업	28	34.6	57.7	7.7	15.4	7.7	11.5	19.2	7.7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9	77.8	77.8	11.1	11.1	0.0	0.0	33.3	0.0
	기혼	18	6.3	50.0	6.3	18.8	12.5	18.8	12.5	12.5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자녀유무	있다	18	6.3	50.0	6.3	18.8	12.5	18.8	12.5	12.5
	없다	10	80.0	70.0	10.0	10.0	0.0	0.0	30.0	0.0

주1: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및 근로활동 의사가 있는 응답자 대상

주2: ① 워크넷 등 공공 구직사이트

②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벼룩시장 등 민간 구직사이트

③ 중개업소, 헤드헌터, 사설 컨설팅 업체

④ 가족, 친지, 이웃 등 지인의 소개

⑤ 해당 기업 홈페이지

⑥ 서초구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⑦ 서초일자리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⑧ 기타

7) 취업지원 정책 수요

(1) 취업지원의 시급성 정도

▷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시급하다’(조금시급+매우시급)는 응답 50.4%, ‘시급하지 않다’(전혀 시급하지 않음+거의 시급하지 않음)은 9.9%, 5점 척도로 3.5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 3.48점, 남성 3.52점으로 남성의 시급성 정도에서 0.4점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시급성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3.65점, 30대 3.52점, 40대 3.48점 순으로 나타남.

[표 III-3-21]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시급	매우 시급	평균	
전체		500	3.2	6.7	39.7	37.4	13.0	3.50	
성별	여성	257	3.9	5.9	40.9	36.2	13.0	3.48	
	남성	243	2.5	7.5	38.3	38.8	12.9	3.52	
연령대	20대 이하	92	3.3	10.9	35.9	40.2	9.8	3.42	
	30대	95	0.0	8.4	40.0	43.2	8.4	3.52	
	40대	107	2.8	5.6	46.7	30.8	14.0	3.48	
	50대	100	2.0	5.1	31.3	49.5	12.1	3.65	
	60대 이상	106	7.9	4.0	43.6	24.8	19.8	3.45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7	4.3	8.5	42.6	34.0	10.6	3.38
		30대	50	0.0	6.0	36.0	46.0	12.0	3.64
		40대	55	3.6	7.3	45.5	30.9	12.7	3.42
		50대	50	2.0	6.0	28.0	52.0	12.0	3.66
		60대 이상	55	9.6	1.9	51.9	19.2	17.3	3.33
	남성	20대 이하	45	2.2	13.3	28.9	46.7	8.9	3.47
		30대	45	0.0	11.1	44.4	40.0	4.4	3.38
		40대	52	1.9	3.8	48.1	30.8	15.4	3.54
		50대	50	2.0	4.1	34.7	46.9	12.2	3.63
		60대 이상	51	6.1	6.1	34.7	30.6	22.4	3.5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4.6	5.5	38.5	37.6	13.8	3.50	
	방배권	93	2.2	6.6	41.8	33.0	16.5	3.55	
	서초권	218	3.2	7.4	38.0	38.4	13.0	3.50	
	양재/내곡권	78	2.6	6.4	43.6	39.7	7.7	3.44	
경제활동	취업	369	2.2	6.6	38.8	41.0	11.5	3.53	
	비취업	131	6.3	7.0	42.2	27.3	17.2	3.42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8	6.0	39.3	42.3	10.7	3.54	
	기혼	325	4.0	6.9	39.9	35.2	14.0	3.48	
	기타	7	0.0	20.0	40.0	20.0	20.0	3.40	
자녀유무	있다	317	3.9	6.8	40.2	34.1	15.1	3.50	
	없다	183	2.2	6.6	38.8	43.2	9.3	3.51	

▷ 기술(IT, 자격증) 및 경력관리 교육 확대

‘기술(IT, 자격증) 및 경력관리 교육확대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시급하다’(조금시급+매우시급)는 응답 58.5%, ‘시급하지 않다’(전혀 시급하지 않음+거의 시급하지 않음)은 9.3%, 5점 척도로 3.64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 3.71점, 남성 3.57점으로 여성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0.14점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시급성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 3.73점, 50대 3.71점, 40대 3.70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Ⅲ-3-22] 기술(IT, 자격증) 및 경력관리(커리어) 교육 확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시급	매우 시급	평균	
전체		500	2.6	6.7	32.2	40.9	17.6	3.64	
성별	여성	257	3.1	2.4	31.8	45.9	16.9	3.71	
	남성	243	2.1	11.3	32.6	35.6	18.4	3.57	
연령대	20대 이하	92	2.2	6.5	29.3	44.6	17.4	3.68	
	30대	95	0.0	5.3	28.4	54.7	11.6	3.73	
	40대	107	0.9	6.5	31.8	43.0	17.8	3.70	
	50대	100	1.0	6.1	36.4	34.3	22.2	3.71	
	60대 이상	106	8.9	8.9	34.7	28.7	18.8	3.40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0.0	38.3	48.9	10.6	3.66
		30대	50	0.0	0.0	22.0	68.0	10.0	3.88
		40대	55	1.8	5.5	30.9	41.8	20.0	3.73
		50대	50	2.0	2.0	34.0	40.0	22.0	3.78
		60대 이상	55	9.4	3.8	34.0	32.1	20.8	3.51
	남성	20대 이하	45	2.2	13.3	20.0	40.0	24.4	3.71
		30대	45	0.0	11.1	35.6	40.0	13.3	3.56
		40대	52	0.0	7.7	32.7	44.2	15.4	3.67
		50대	50	0.0	10.2	38.8	28.6	22.4	3.63
		60대 이상	51	8.3	14.6	35.4	25.0	16.7	3.2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5.5	7.3	27.5	36.7	22.9	3.64	
	방배권	93	1.1	7.7	42.9	31.9	16.5	3.55	
	서초권	218	2.3	5.1	29.5	46.1	17.1	3.71	
	양재/내곡권	78	1.3	9.1	33.8	42.9	13.0	3.57	
경제활동	취업	369	1.6	6.3	29.4	44.1	18.5	3.72	
	비취업	131	5.5	7.9	40.2	31.5	15.0	3.43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2	4.8	31.0	47.0	16.1	3.72	
	기혼	325	3.1	7.8	32.7	38.0	18.4	3.61	
	기타	7	20.0	0.0	40.0	20.0	20.0	3.20	
자녀유무	있다	317	3.2	8.0	33.1	36.7	19.0	3.60	
	없다	183	1.6	4.4	30.6	48.1	15.3	3.71	

▷ 서초구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

‘서초구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시급하다’(조금시급+매우시급)는 응답 63.2%, ‘시급하지 않다’(전혀 시급하지 않음+거의 시급하지 않음)는 8.1%, 5점 척도로 3.76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 3.76점, 남성 3.75점으로 여성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0.1점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시급성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 3.85점, 50대 3.83점, 40대 3.82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Ⅲ-3-23] 서초구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시급	매우 시급	평균	
전체		500	2.2	5.9	28.7	40.3	22.9	3.76	
성별	여성	257	2.4	4.7	30.2	40.0	22.7	3.76	
	남성	243	2.1	7.1	27.2	40.6	23.0	3.75	
연령대	20대 이하	92	2.2	5.4	33.7	39.1	19.6	3.68	
	30대	95	0.0	4.2	26.3	49.5	20.0	3.85	
	40대	107	0.9	4.7	28.0	43.9	22.4	3.82	
	50대	100	1.0	8.1	25.3	38.4	27.3	3.83	
	60대 이상	106	6.9	6.9	30.7	30.7	24.8	3.59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2.1	38.3	40.4	17.0	3.68
		30대	50	0.0	0.0	34.0	50.0	16.0	3.82
		40대	55	1.8	5.5	23.6	43.6	25.5	3.85
		50대	50	0.0	8.0	24.0	38.0	30.0	3.90
		60대 이상	55	7.5	7.5	32.1	28.3	24.5	3.55
	남성	20대 이하	45	2.2	8.9	28.9	37.8	22.2	3.69
		30대	45	0.0	8.9	17.8	48.9	24.4	3.89
		40대	52	0.0	3.8	32.7	44.2	19.2	3.79
		50대	50	2.0	8.2	26.5	38.8	24.5	3.76
		60대 이상	51	6.3	6.3	29.2	33.3	25.0	3.6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4.6	5.5	25.7	37.6	26.6	3.76	
	방배권	93	1.1	6.6	36.3	35.2	20.9	3.68	
	서초권	218	0.9	6.5	27.2	45.2	20.3	3.77	
	양재/내곡권	78	3.9	3.9	28.6	36.4	27.3	3.79	
경제활동	취업	369	1.6	4.9	26.2	43.6	23.7	3.83	
	비취업	131	3.9	8.7	36.2	30.7	20.5	3.5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2	5.4	29.2	43.5	20.8	3.77	
	기혼	325	2.5	6.2	28.7	39.3	23.4	3.75	
	기타	7	20.0	0.0	20.0	0.0	60.0	3.80	
자녀유무	있다	317	2.9	6.8	28.0	37.9	24.4	3.74	
	없다	183	1.1	4.4	30.1	44.3	20.2	3.78	

▷ 돌봄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여건 지원

‘서초구 돌봄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여건지원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시급하다’(조금시급+매우시급)는 응답 60.1%, ‘시급하지 않다’(전혀 시급하지 않음+거의 시급하지 않음)는 8.9%, 5점 척도로 3.75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 3.71점, 남성 3.79점으로 남성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0.8점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시급성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 3.98점, 30대 3.88점, 50대 3.84점 순으로 나타남. 취업,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24] 돌봄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여건 지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시급	매우 시급	평균	
전체		500	2.8	6.1	31.0	33.8	26.3	3.75	
성별	여성	257	3.5	6.3	32.2	31.8	26.3	3.71	
	남성	243	2.1	5.9	29.7	36.0	26.4	3.79	
연령대	20대 이하	92	4.3	9.8	29.3	35.9	20.7	3.59	
	30대	95	1.1	4.2	29.5	35.8	29.5	3.88	
	40대	107	0.0	4.7	28.0	31.8	35.5	3.98	
	50대	100	0.0	6.1	30.3	37.4	26.3	3.84	
	60대 이상	106	8.9	5.9	37.6	28.7	18.8	3.43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4.3	12.8	34.0	31.9	17.0	3.45
		30대	50	2.0	4.0	28.0	36.0	30.0	3.88
		40대	55	0.0	3.6	30.9	29.1	36.4	3.98
		50대	50	0.0	6.0	28.0	36.0	30.0	3.90
		60대 이상	55	11.3	5.7	39.6	26.4	17.0	3.32
	남성	20대 이하	45	4.4	6.7	24.4	40.0	24.4	3.73
		30대	45	0.0	4.4	31.1	35.6	28.9	3.89
		40대	52	0.0	5.8	25.0	34.6	34.6	3.98
		50대	50	0.0	6.1	32.7	38.8	22.4	3.78
		60대 이상	51	6.3	6.3	35.4	31.3	20.8	3.5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4.6	4.6	24.8	40.4	25.7	3.78	
	방배권	93	3.3	7.7	41.8	29.7	17.6	3.51	
	서초권	218	2.8	5.5	30.9	34.1	26.7	3.76	
	양재/내곡권	78	0.0	7.8	27.3	28.6	36.4	3.94	
경제활동	취업	369	1.4	5.4	27.8	34.9	30.5	3.88	
	비취업	131	7.1	7.9	40.2	30.7	14.2	3.37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4	8.3	32.1	32.7	24.4	3.68	
	기혼	325	2.8	5.0	30.5	34.3	27.4	3.79	
	기타	7	20.0	0.0	20.0	40.0	20.0	3.40	
자녀유무	있다	317	2.6	5.5	28.3	35.4	28.3	3.81	
	없다	183	3.3	7.1	35.5	31.1	23.0	3.63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회적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등)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시급하다’(조금시급+매우시급)는 응답 56.5%, ‘시급하지 않다’(전혀 시급하지 않음+거의 시급하지 않음)은 10.3%, 5점 척도로 3.63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 3.65점, 남성 3.61점으로 여성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0.4점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시급성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3.80점, 40대 3.75점, 20대이하 3.54점 순으로 나타남. 취업,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3-25]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시급	매우 시급	평균	
전체		500	3.0	7.3	33.2	36.8	19.6	3.63	
성별	여성	257	2.8	6.7	33.9	36.6	20.1	3.65	
	남성	243	3.3	7.9	32.5	37.1	19.2	3.61	
연령대	20대 이하	92	3.3	7.6	37.0	35.9	16.3	3.54	
	30대	95	2.1	10.5	36.8	35.8	14.7	3.51	
	40대	107	0.9	6.5	29.9	42.1	20.6	3.75	
	50대	100	2.0	4.0	29.3	41.4	23.2	3.80	
	60대 이상	106	6.9	7.9	33.7	28.7	22.8	3.52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0.0	12.8	38.3	34.0	14.9	3.51
		30대	50	4.0	6.0	42.0	32.0	16.0	3.50
		40대	55	0.0	3.6	32.7	43.6	20.0	3.80
		50대	50	2.0	2.0	24.0	46.0	26.0	3.92
		60대 이상	55	7.7	9.6	32.7	26.9	23.1	3.48
	남성	20대 이하	45	6.7	2.2	35.6	37.8	17.8	3.58
		30대	45	0.0	15.6	31.1	40.0	13.3	3.51
		40대	52	1.9	9.6	26.9	40.4	21.2	3.69
		50대	50	2.0	6.1	34.7	36.7	20.4	3.67
		60대 이상	51	6.1	6.1	34.7	30.6	22.4	3.5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5.5	7.3	28.4	33.9	24.8	3.65	
	방배권	93	2.2	8.9	35.6	32.2	21.1	3.61	
	서초권	218	2.3	6.9	32.3	41.0	17.5	3.65	
	양재/내곡권	78	2.6	6.4	39.7	34.6	16.7	3.56	
경제활동	취업	369	1.6	7.6	33.0	37.6	20.2	3.67	
	비취업	131	7.1	6.3	33.9	34.6	18.1	3.5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8	10.1	32.7	38.1	17.3	3.59	
	기혼	325	3.4	5.9	33.6	36.4	20.6	3.65	
	기타	7	20.0	0.0	20.0	20.0	40.0	3.60	
자녀유무	있다	317	3.2	6.1	32.8	36.7	21.2	3.67	
	없다	183	2.7	9.3	33.9	37.2	16.9	3.56	

▷ 은퇴 및 이·전직 지원서비스 확대

‘은퇴 등 이·전직 지원서비스 확대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시급하다’(조금시급+매우시급)는 응답 61.9%, ‘시급하지 않다’(전혀 시급하지 않음+거의 시급하지 않음)는 8.1%, 5점 척도로 3.72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 3.72점, 남성 3.73점으로 남성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0.1점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시급성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3.88점, 40대 3.76점, 60대 이상 3.71점 순으로 나타남. 취업,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26] 은퇴 및 이·전직 지원서비스 확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시급	매우 시급	평균	
전체		500	1.8	6.3	30.0	41.5	20.4	3.72	
성별	여성	257	2.7	5.1	30.2	41.6	20.4	3.72	
	남성	243	0.8	7.5	29.7	41.4	20.5	3.73	
연령대	20대 이하	92	1.1	9.8	33.7	41.3	14.1	3.58	
	30대	95	1.1	9.5	26.3	46.3	16.8	3.68	
	40대	107	0.0	2.8	34.6	46.7	15.9	3.76	
	50대	100	1.0	5.1	27.3	38.4	28.3	3.88	
	60대 이상	106	5.9	5.0	27.7	34.7	26.7	3.71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6.4	27.7	51.1	12.8	3.66
		30대	50	2.0	6.0	32.0	44.0	16.0	3.66
		40대	55	0.0	3.6	34.5	40.0	21.8	3.80
		50대	50	2.0	4.0	26.0	40.0	28.0	3.88
		60대 이상	55	7.5	5.7	30.2	34.0	22.6	3.58
	남성	20대 이하	45	0.0	13.3	40.0	31.1	15.6	3.49
		30대	45	0.0	13.3	20.0	48.9	17.8	3.71
		40대	52	0.0	1.9	34.6	53.8	9.6	3.71
		50대	50	0.0	6.1	28.6	36.7	28.6	3.88
		60대 이상	51	4.2	4.2	25.0	35.4	31.3	3.8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4.6	7.3	29.4	35.8	22.9	3.65	
	방배권	93	1.1	5.5	36.3	39.6	17.6	3.67	
	서초권	218	1.4	6.0	29.0	41.5	22.1	3.77	
	양재/내곡권	78	0.0	6.5	26.0	51.9	15.6	3.77	
경제활동	취업	369	0.8	5.7	28.1	44.7	20.7	3.79	
	비취업	131	4.7	7.9	35.4	32.3	19.7	3.54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2	6.5	32.1	44.0	16.1	3.67	
	기혼	325	1.9	6.2	29.0	40.5	22.4	3.75	
	기타	7	20.0	0.0	20.0	20.0	40.0	3.60	
자녀유무	있다	317	2.3	5.8	27.7	41.5	22.8	3.77	
	없다	183	1.1	7.1	33.9	41.5	16.4	3.65	

▷ 청년인턴(행정인턴, 공공부문인턴) 프로그램 지원

‘청년인턴 프로그램 지원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시급하다’(조금 시급+매우시급)는 응답 55.3%, ‘시급하지 않다’(전혀 시급하지 않음+거의 시급하지 않음)은 10.5%, 5점 척도로 3.63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 3.67점, 남성 3.59점으로 여성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0.8점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시급성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 이하 3.84점, 50대 3.76점, 30대 3.66점 순으로 나타남.

[표 III-3-27] 청년인턴 프로그램 지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시급	매우 시급	평균	
전체		500	3.2	7.3	34.2	33.4	21.9	3.63	
성별	여성	257	3.1	5.5	34.5	34.9	22.0	3.67	
	남성	243	3.3	9.2	33.9	31.8	21.8	3.59	
연령대	20대 이하	92	1.1	7.6	23.9	41.3	26.1	3.84	
	30대	95	1.1	6.3	38.9	32.6	21.1	3.66	
	40대	107	3.7	4.7	39.3	34.6	17.8	3.58	
	50대	100	1.0	7.1	30.3	38.4	23.2	3.76	
	60대 이상	106	8.9	10.9	37.6	20.8	21.8	3.36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6.4	23.4	46.8	21.3	3.79
		30대	50	0.0	2.0	48.0	28.0	22.0	3.70
		40대	55	3.6	5.5	34.5	34.5	21.8	3.65
		50대	50	0.0	6.0	28.0	40.0	26.0	3.86
		60대 이상	55	9.4	7.5	37.7	26.4	18.9	3.38
	남성	20대 이하	45	0.0	8.9	24.4	35.6	31.1	3.89
		30대	45	2.2	11.1	28.9	37.8	20.0	3.62
		40대	52	3.8	3.8	44.2	34.6	13.5	3.50
		50대	50	2.0	8.2	32.7	36.7	20.4	3.65
		60대 이상	51	8.3	14.6	37.5	14.6	25.0	3.3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5.5	8.3	36.7	31.2	18.3	3.49	
	방배권	93	3.3	6.6	38.5	31.9	19.8	3.58	
	서초권	218	2.3	4.1	34.1	35.0	24.4	3.75	
	양재/내곡권	78	2.6	15.6	26.0	33.8	22.1	3.57	
경제활동	취업	369	2.5	7.9	32.7	35.1	21.8	3.66	
	비취업	131	5.5	5.5	38.6	28.3	22.0	3.56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8	4.2	35.7	33.9	24.4	3.75	
	기혼	325	3.7	9.0	34.0	33.0	20.2	3.57	
	기타	7	20.0	0.0	0.0	40.0	40.0	3.80	
자녀유무	있다	317	3.5	9.3	33.1	31.8	22.2	3.60	
	없다	183	2.7	3.8	36.1	36.1	21.3	3.69	

▷ 서초구 사업체 고용지원금 지원

‘서초구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시급하다’(조금시급+매우시급)는 응답 48.4%, ‘시급하지 않다’(전혀 시급하지 않음+거의 시급하지 않음)은 11.9%, 5점 척도로 3.48점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 3.52점, 남성 3.44점으로 여성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0.8점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시급성 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3.62점, 40대 3.54점, 30대 3.48점 순으로 나타남. 취업, 비혼 또는 미혼인 경우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28] 서초구 사업체 고용지원금 지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시급	매우 시급	평균	
전체		500	3.6	8.3	39.7	32.8	15.6	3.48	
성별	여성	257	3.1	5.5	43.1	32.5	15.7	3.52	
	남성	243	4.2	11.3	36.0	33.1	15.5	3.44	
연령대	20대 이하	92	5.4	9.8	35.9	33.7	15.2	3.43	
	30대	95	2.1	9.5	41.1	32.6	14.7	3.48	
	40대	107	1.9	5.6	43.0	35.5	14.0	3.54	
	50대	100	0.0	7.1	40.4	36.4	16.2	3.62	
	60대 이상	106	8.9	9.9	37.6	25.7	17.8	3.34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4.3	4.3	40.4	36.2	14.9	3.53
		30대	50	0.0	4.0	48.0	30.0	18.0	3.62
		40대	55	1.8	3.6	43.6	36.4	14.5	3.58
		50대	50	0.0	4.0	46.0	34.0	16.0	3.62
		60대 이상	55	9.4	11.3	37.7	26.4	15.1	3.26
	남성	20대 이하	45	6.7	15.6	31.1	31.1	15.6	3.33
		30대	45	4.4	15.6	33.3	35.6	11.1	3.33
		40대	52	1.9	7.7	42.3	34.6	13.5	3.50
		50대	50	0.0	10.2	34.7	38.8	16.3	3.61
		60대 이상	51	8.3	8.3	37.5	25.0	20.8	3.42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5.5	8.3	43.1	29.4	13.8	3.38	
	방배권	93	5.5	11.0	40.7	26.4	16.5	3.37	
	서초권	218	2.8	6.5	38.7	36.4	15.7	3.56	
	양재/내곡권	78	1.3	10.4	36.4	35.1	16.9	3.56	
경제활동	취업	369	2.7	7.4	38.7	35.1	16.1	3.54	
	비취업	131	6.3	11.0	42.5	26.0	14.2	3.31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4	7.1	38.7	36.3	15.5	3.55	
	기혼	325	4.0	8.7	40.5	31.2	15.6	3.45	
	기타	7	20.0	20.0	20.0	20.0	20.0	3.00	
자녀유무	있다	317	4.5	9.0	39.5	30.9	16.1	3.45	
	없다	183	2.2	7.1	39.9	36.1	14.8	3.54	

4

경제활동분야 특성

1) 서초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 특성

- 서초구의 2021년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58.2%로 서울시 전체 평균 62.5%에 비해 4.3%p 낮게 나타남. 성별로 서초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1%로 서울시 여성 평균 54.7%에 비해 6.6%p 낮은 반면, 서초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7%로 서울시 전체 평균 71.1%에 비해 1.4%p 낮음. 서울시와 서초구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 차이가 비교적 큰 것은 서초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경력단절 여성 비율 역시 서울시 전체 평균 비율과 현저한 차이를 보임. 서울시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6%인데 비해 서초구의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30.7%로 8.1%p의 차이를 보임.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특성은 서초구 상용근로자 비율은 63.1%로 서울시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4.2%p 낮은 58.9%임. 성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59.1%로 서울시 전체 57.1%보다 2.0%p 높으며, 서초구 남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66.4%인데 비해 서울시 전체 평균은 60.4%로 6.0%p의 차이를 보임.
- 서초구 취업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417.12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 303.63만원보다 113.49만원 더 많음. 성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308.35만원으로 서울시 평균 243.88만원보다 64.47만원 많음. 서초구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509.63만원으로 서울시 남성 월평균 임금 359.20만원에 비해 150.43만원 많음. 한편, 서울시 남성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임금 비율은 67.9%로 서초구 여성의 임금 비율 60.5%보다 크게 나타남. 서초구의 성별 임금 격차가 더 큼을 알 수 있음.
- 서초구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50시간으로 서울시 평균 근로시간 37.87시간보다 1.37시간 짧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서울시 35.66시간, 서초구 34.56시간으로 서초구 여성의 근로시간이 1.1시간 짧게 나타남.

2) 여성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낮은 평가 및 높은 일자리 정책 수요

- 서초구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일자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일-생활 균형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 순으로 응답하였고, 남성은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실제 선택하는 일자리로 여성은 ‘일-생활 균형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 ‘당장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높았으나, 남성은 ‘안정적 일자리’, ‘급여가 높은 일자리’로 성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일자리에 차이가 있음. 여성은 ‘가정’ 요소에 따른 영향을, 남성은 ‘소득’ 요소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음.
- 서초구민의 일자리 환경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여성 3.3점, 남성 3.5점으로 남성이 0.2점 높게 나타났음. 성별에 따라 여성은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다’(3.38점)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반면, 남성은 ‘일자리가 풍부하다’(3.54점)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임. 그럼에도 서초구 여성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평가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의 고용형태는 한시직/기간제/계약직, 시간제, 특수형태 근로, 일용직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85.1%로 여성 61.8%에 비해 23.3%p 많아 고용환경 역시 여성이 더 열악함을 알 수 있음. 취업자의 직업군은 여성은 교육서비스 및 강사, 보건·의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근로 여건이 반영되어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여성 3.27점, 남성 3.36점). 여성의 근무환경 만족요인은 ‘근로시간’, ‘출퇴근 거리’, ‘일-생활균형’ 요인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된 반면, 남성은 ‘업무내용’, ‘급여’, ‘고용안정성’에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서초구 취업지원에 대한 정책수요의 시급성 정도를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여성은 ‘기술 및 경력관리 교육확대’,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인턴 프로그램 지원’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반면, 남성은 ‘돌봄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여건지원’, ‘은퇴 및 이·전직 지원서비스 확대’ 항목에서 여성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성별에 따른 정책수요의 시급성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의 시급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가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IV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 정치 및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1. 의사결정분야 통계 개요
2. 의사결정분야 기초통계
3. 의사결정분야 구민인식조사 결과
4. 의사결정분야 특성

IV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

: 정치 및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1

의사결정분야 통계 개요

- 아래와 같은 의사결정분야 성인지통계 지표를 토대로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성인지 통계지표를 구성함.
-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성인지통계 지표영역은 정치참여 현황, 행정참여 현황, 사회 및 단체활동 참여 현황으로 구분함.
- 각 지표영역별 현황 지표는 통계청,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 생산한 통계를 사용하고, 각 지표영역별 구민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세부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한 구민인식 조사 통계를 활용함.

[표 IV-1-1]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지표영역별 세부지표

구분	세부지표	비고(자료출처)
정치 및 사회참여	• 지방선거 유권자 및 투표참여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 구청장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 기초지자체 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당선자수	
행정참여	• 성별 직급별 공무원 현황	서초구청 내부자료
	• 성별 부서별 공무원 현황	
	• 위원회 참여 현황	
	• 주민자치회 참여 현황	
사회 및 단체활동 참여	• 단체참여	서초통계연보, 서초구 사회조사
	• 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 소속감	서울서베이(2021)
	• 사회참여 현황	서울서베이(2021)
	• 가구주의 계층의식 및 다음세대 계층이동	서울서베이(2021)

- 한편, 의사결정분야의 주관적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 의사결정분야 주관적 지표영역은 서초구민 구정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서초구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서초구민 활동참여 경험 및 참여계획, 구정 참여를 위한 정책 수요를 성별 분석을 통해 파악함.

[표 IV-1-2] 서초구 의사결정분야 주관적 인식 세부지표

구분		세부지표	비고
구정 활동 참여 인식	구정 활동 인식	- 지역뉴스를 관심갖고 보고 있다 -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된다 -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 나의 의견이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의원의 성비균형이 필요하다	5점 척도
	구정 정보 경로	구정 정보를 접하는 경로	다지 선다형
	관심있는 분야	관심있는 구정행정 분야	다지 선다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전반적 사회 인식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 인식정도	5점 척도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 경제적 계층의 차이 - 젠더갈등의 문제 - 세대간 불평등의 문제	5점 척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	- 노력과 경력에 대한 대우 - 소득이나 자산형성 -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 정치와 사회참여	5점 척도
	서초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 구민중심의 정책결정 -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 정보공개: 결정 과정 및 결정된 내용의 공개 - 결정된 내용이 구민에 미칠 영향의 설명	5점 척도
활동 참여 경험 및 참여 계획	활동참여 경험	- 구정참여(의견제안,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주민자치센터 활동참여, 구정모니터링단 및 위원회활동) - 지역사회 참여(동아리, 온라인커뮤니티,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참여)	유무
	활동참여 계획	- 구정참여(의견제안,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주민자치센터 활동참여, 구정모니터링단 및 위원회활동) - 지역사회 참여(동아리, 온라인커뮤니티,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참여)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다지 선다형
	코로나 이후 활동 참여 변화	지역주민의 활동참여 변화	다지 선다형
구정 참여 정책 수요	구정참여 활성화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다지 선다형
	의원수 성비 균형	의원수 성비 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다지 선다형

2

의사결정분야 기초통계

1) 정치참여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서초구 지방선거 유권자 및 투표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인 제8회의 경우, 서초구 전체 유권자 342,589명 중 여성이 52.9% 남성이 47.1%로 나타남.
- 투표참여자 참여율은 매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회에 전체 평균 66.3%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제3회 참여율이 47.5%로 가장 저조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1] 서초구 지방선거 유권자 및 투표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유권자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투표참여자 (참여율)
제1회(1995)	284,241	-	-	188,352 (66.3)
제2회(1998)	292,476	151,561 (51.8)	140,915 (48.2)	145,109 (49.6)
제3회(2002)	298,380	154,901 (51.9)	143,479 (48.1)	141,811 (47.5)
제4회(2006)	316,852	165,487 (52.2)	151,365 (47.8)	164,426 (51.9)
제5회(2010)	341,599	179,535 (52.6)	162,064 (47.4)	185,981 (54.4)
제6회(2014)	358,576	188,638 (52.6)	169,938 (47.4)	220,442 (61.5)
제7회(2018)	359,734	190,161 (52.9)	169,573 (47.1)	226,905 (63.1)
제8회(2022)	342,589	181,215 (52.9)	161,374 (47.1)	191,862 (56.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서초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당선자 수를 제18대에서 제21대 보궐선거까지 살펴 보면, 서초구 당선인은 서초구 갑, 을의 2명 중 제19대를 제외하고, 여성의원 1명 (50.0%)으로 성비 균형을 유지해 옴.

- 후보자의 경우, 제18대에 9명으로 가장 많이 출마함. 연령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에 가장 많이 분포됨.

[표 IV-2-2] 서초구 국회의원선거 성별·연령별 후보자·당선자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비율)	남성 (비율)	후보자/당선인의 연령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제18대 (2008)	후보자	9	3 (33.3)	6 (66.7)	0	0	2	1	1	1	0	3	0	1
	당선인	2	1 (50.0)	1 (50.0)	0	0	0	0	1	0	0	1	0	0
제19대 (2012)	후보자	7	1 (14.3)	6 (85.7)	0	0	1	0	0	2	0	3	0	1
	당선인	2	0 (0.0)	2 (100.0)	0	0	0	0	0	1	0	1	0	0
제20대 (2016)	후보자	7	2 (28.6)	5 (71.4)	0	0	0	1	0	0	2	2	0	2
	당선인	2	1 (50.0)	1 (50.0)	0	0	0	0	0	0	1	1	0	0
제21대 (2020)	후보자	7	3 (42.9)	4 (57.1)	0	0	0	0	0	1	3	1	0	2
	당선인	2	1 (50.0)	1 (50.0)	0	0	0	0	0	1	1	0	0	0
제21대 (보궐) (2022)	후보자	5	3 (60.0)	2 (40.0)	0	1	0	0	1	1	1	0	1	0
	당선인	1	1 (100.0)	0 (0.0)	0	0	0	0	0	0	0	0	1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역대선거정보>후보자>후보자통계>국회의원선거,
(<http://info.nec.go.kr>)

- 서초구 구청장의 경우, 제1회에서 제8회까지의 당선자를 살펴보면, 제1회에서 제6회, 또 제8회에 남성 구청장이 당선되어 왔으며, 제6회와 제7회에 걸쳐 여성구청장이 당선됨.
- 후보자의 경우, 제6회 5명이 출마하여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여성후보자는 제6회 1명, 제7회 2명이 출마함.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과 남성이 대체로 40대 이상, 특히 5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IV-2-3] 서초구청장 성별·연령별 후보자/당선자수

(단위: 명, %)

구청장		전체	여성 (비율)	남성(비율)	후보자/당선인의 연령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제1회 (1995)	후보자	4	0 (0.0)	4 (100.0)	0	0	0	1	0	2	0	1
	당선인	1	0 (0.0)	1 (100.0)	0	0	0	0	0	1	0	0
제2회 (1998)	후보자	3	0 (0.0)	3 (100.0)	0	0	0	0	0	2	0	1
	당선인	1	0 (0.0)	1 (100.0)	0	0	0	0	0	0	0	1
제3회 (2002)	후보자	3	0 (0.0)	3 (100.0)	0	0	0	0	0	1	0	2
	당선인	1	0 (0.0)	1 (100.0)	0	0	0	0	0	0	0	1
제4회 (2006)	후보자	3	0 (0.0)	3 (100.0)	0	0	0	1	0	2	0	0
	당선인	1	0 (0.0)	1 (100.0)	0	0	0	1	0	0	0	0
제5회 (2010)	후보자	2	0 (0.0)	2 (100.0)	0	0	0	1	0	1	0	0
	당선인	1	0 (0.0)	1 (100.0)	0	0	0	1	0	0	0	0
제6회 (2014)	후보자	5	1 (20.0)	4 (80.0)	0	0	0	1	1	2	0	1
	당선인	1	1 (100.0)	0 (0.0)	0	0	0	0	1	0	0	0
제7회 (2018)	후보자	4	2 (50.0)	2 (50.0)	0	0	0	0	2	1	0	1
	당선인	1	1 (100.0)	0 (0.0)	0	0	0	0	1	0	0	0
제8회 (2022)	후보자	2	0 (0.0)	2 (100.0)	0	0	0	0	0	1	0	1
	당선인	1	0 (0.0)	1 (100.0)	0	0	0	0	0	0	0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서초구 지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후보자와 당선자를 제1회에서 최근 제8회까지 살펴보면, 제7회 13명으로 가장 많이 후보자를 냈으며, 제8회 8명으로 가장 적은 후보자가 참가함.
- 여성후보는 제1회에서 3회까지 후보자를 내지 않았으며, 제4회 4명(33.3%), 제7회(58.3%), 제8회(62.5%) 증가 추이에 있음. 당선인의 경우, 제4회부터 여성 당선인이 1명(25.0%) 나왔으며, 이후 2명(50.0%)로 성비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표 IV-2-4] 서초구 지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당선자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후보자			당선인		
	전 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전 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제1회(1995)	12	0 (0.0)	12 (100.0)	6	0 (0.0)	6 (100.0)
제2회(1998)	12	0 (0.0)	12 (100.0)	4	0 (0.0)	4 (100.0)
제3회(2002)	9	0 (0.0)	9 (100.0)	4	0 (0.0)	4 (100.0)
제4회(2006)	12	4 (33.3)	8 (66.7)	4	1 (25.0)	3 (75.0)
제5회(2010)	9	2 (22.2)	7 (77.8)	4	2 (50.0)	2 (50.0)
제6회(2014)	12	7 (58.3)	5 (41.7)	4	2 (50.0)	2 (50.0)
제7회(2018)	13	5 (38.5)	8 (61.5)	4	2 (50.0)	2 (50.0)
제8회(2022)	8	5 (62.5)	3 (37.5)	4	2 (50.0)	2 (5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서초구 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당선자수를 제1회에서 제8회까지 살펴보면, 제1회 지방선거에서 서초구 기초의원선거 18개 선거구에서 51명이 출마하여, 29명이 당선되었고, 이중 여성이 5명(17.2%)이고 남성이 24명(82.8%)를 차지함.
- 여성 당선인 비율은 약간씩 증가하여 제8회에는 14명 중 4명(28.6%)으로, 서초구 의회에서 남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1.4%로 나타남.
- 제4회에서는 전체 13명 중 남성이 12명이고 여성은 단지 1명만이 당선된 경우도 있음. 여성 당선자가 적게 배출되는 이유에는 여성 시의원 후보자의 저조한 참여에도 원인이 있음.
- 제1회에 여성 후보자가 51명 중 7명으로 13.7%가 가장 저조하게 참여했으며, 제7회 25명 중 10명의 여성 후보가 참여하여 여성 참여비율이 40.0%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여성 당선인도 13명 중 5명인 38.5%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5] 서초구 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당선자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후보자			당선인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제1회(1995)	51	7 (13.7)	44 (86.3)	29	5 (17.2)	24 (82.8)
제2회(1998)	47	6 (12.8)	41 (87.2)	18	4 (22.2)	14 (77.8)
제3회(2002)	48	7 (14.6)	41 (85.4)	18	5 (27.8)	13 (72.2)
제4회(2006)	34	6 (17.6)	28 (82.4)	13	1 (7.7)	12 (92.3)
제5회(2010)	24	8 (33.3)	16 (66.7)	13	2 (15.4)	11 (84.6)
제6회(2014)	25	7 (28.0)	18 (72.0)	13	4 (30.8)	9 (69.2)
제7회(2018)	25	10 (40.0)	15 (60.0)	13	5 (38.5)	8 (61.5)
제8회(2022)	19	4 (21.1)	15 (78.9)	14	4 (28.6)	10 (71.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 행정참여 현황

- 최근 3년간(2019년~2021년)의 서초구 성별 및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성대비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57.0%에서 2020년 59.0%, 2021년 60.0%로 증가 추이에 있음. 한편 전체 공무원 중 남성 공무원은 2019년 43.0%, 2020년 41.0%, 2021년 40.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직급별로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9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6.0%이며, 8급 64.0%, 7급 60.0%, 6급 57.0%, 5급 47.0%, 4급 이상은 30.0%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공무원의 경우, 9급 34.0%, 8급 36.0%, 7급 40.0%, 6급 43.0%, 5급 53.0%, 4급 이상 70.0%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6] 서초구 성별·직급별 공무원 현황(2019-2021)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전체	전체	1,483	(100.0)	1,554	(100.0)	1,562	(100.0)
	여성	845	(57.0)	914	(59.0)	944	(60.0)
	남성	638	(43.0)	640	(41.0)	618	(40.0)
4급 이상	전체	9	(100.0)	9	(100.0)	10	(100.0)
	여성	1	(11.0)	1	(11.0)	3	(30.0)
	남성	8	(89.0)	8	(89.0)	7	(70.0)
5급	전체	63	(100.0)	66	(100.0)	66	(100.0)
	여성	20	(32.0)	27	(41.0)	31	(47.0)
	남성	43	(68.0)	39	(59.0)	35	(53.0)
6급	전체	358	(100.0)	356	(100.0)	371	(100.0)
	여성	168	(47.0)	184	(52.0)	213	(57.0)
	남성	190	(53.0)	172	(48.0)	158	(43.0)
7급	전체	518	(100.0)	510	(100.0)	492	(100.0)
	여성	309	(60.0)	307	(60.0)	295	(60.0)
	남성	209	(40.0)	203	(40.0)	197	(40.0)
8급	전체	300	(100.0)	342	(100.0)	359	(100.0)
	여성	186	(62.0)	223	(65.0)	229	(64.0)
	남성	114	(38.0)	119	(35.0)	130	(36.0)
9급	전체	234	(100.0)	270	(100.0)	264	(100.0)
	여성	160	(68.0)	171	(63.0)	173	(66.0)
	남성	74	(32.0)	99	(37.0)	91	(34.0)

자료: 서초구 내부자료(2022년 8월)

- 서초구 성별 부서별 공무원 현황(2019~2021)을 살펴보면, 부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이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감사담당관의 경우, 2019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명 중 14명으로 58.0%에서, 2020년 58.0%, 2021년 67.0%로 증가했으며, 홍보담당관의 경우, 2019년 41.0%에서 2020년 52.0%, 그리고 2021년 67.0%로 나타남.
 - 도시관리국과 안전교통국의 경우 여성비율이 약간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남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21년 도시관리국에서 여성비율은 44.0%로 나타났고, 안전교통국은 여성비율이 42.0%에 해당됨.
 - 한편,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여성의 비율은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의 경우, 2019년 전체 133명 중 여성이 99명으로 74.0%를 차지했으며, 2020년 78.0%, 2021년 80.0%에 달함. 동주민센터의 경우, 2019년 여성 공무원이 66.0%, 2020년 64.0%, 2021년 6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7] 서초구 성별·부서별(담당관/국별) 공무원 현황(2019-2021)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감사담당관	전체	24	(100.0)	24	(100.0)	24	(100.0)
	여성	14	(58.0)	14	(58.0)	16	(67.0)
	남성	10	(42.0)	10	(42.0)	8	(33.0)
홍보담당관	전체	32	(100)	33	(100.0)	18	(100.0)
	여성	13	(41.0)	17	(52.0)	12	(67.0)
	남성	19	(59.0)	16	(48.0)	6	(33.0)
문화행정국	전체	168	(100.0)	176	(100.0)	176	(100.0)
	여성	100	(60.0)	107	(61.0)	108	(61.0)
	남성	68	(40.0)	69	(39.0)	68	(39.0)
밝은미래국	전체	79	(100.0)	87	(100.0)	110	(100.0)
	여성	52	(66.0)	63	(72.0)	73	(66.0)
	남성	27	(34.0)	24	(28.0.0)	37	(34.0)
주민생활국	전체	170	(100.0)	174	(100.0)	170	(100.0)
	여성	94	(55.0)	97	(56.0)	109	(64.0)
	남성	76	(45.0)	77	(44.0)	61	(36.0)

구분		2019		2020		2021	
기획재정국	전체	165	(100.0)	169	(100.0)	173	(100.0)
	여성	92	(56.0)	97	(57.0)	104	(60.0)
	남성	73	(44.0)	72	(43.0)	69	(40.0)
도시관리국	전체	162	(100.0)	153	(100.0)	158	(100.0)
	여성	70	(43.0)	68	(44.0)	69	(44.0)
	남성	92	(57.0)	85	(56.0)	89	(56.0)
안전교통국	전체	187	(100.0)	187	(100.0)	189	(100.0)
	여성	74	(40.0)	81	(43.0)	80	(42.0)
	남성	113	(60.0)	106	(57.0)	109	(58.0)
미래비전기획단	전체	-	-	20	(100.0)	17	(100.0)
	여성	-	-	14	(70.0)	12	(71.0)
	남성	-	-	6	(30.0)	5	(29.0)
보건소	전체	133	(100.0)	145	(100.0)	145	(100.0)
	여성	99	(74.0)	113	(78.0)	116	(80.0)
	남성	34	(26.0)	32	(22.0)	29	(20.0)
동주민센터	전체	336	(100.0)	359	(100.0)	356	(100.0)
	여성	223	(66.0)	228	(64.0)	231	(65.0)
	남성	113	(34.0)	131	(36.0)	125	(35.0)

자료: 서초구 내부자료(2022년 8월)

○ 서초구 위원회 참여현황(2020~2021)을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위원장 비율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위원 1,562명 중 여성비율은 44.0%, 2021년은 41.0%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남성 비율은 2020년 56.0%, 2021년 59.0%로 나타남.
- 한편 위원장의 경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0년 79.0%, 2021년 75.0%로 나타났으며, 여성위원장은 2020년 21.0%, 2021년 25.0%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2-8] 서초구 성별 위원회 참여 현황(2020-2021)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위원장	전체	100	(100.0)	99	(100.0)
	여성	21	(21.0)	25	(25.0)
	남성	79	(79.0)	74	(75.0)
위원	전체	1,562	(100.0)	1,350	(100.0)
	여성	691	(44.0)	559	(41.0)
	남성	871	(56.0)	791	(59.0)

자료: 서초구 내부자료(2022년 8월)

- 서초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2019~2021)을 살펴보면, 남성 위원 비율이 다수로 나타나며, 위원장의 비율은 대부분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전체 위원 387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2.0%, 2020년 40.0%, 2021년 40.0%로 나타남.
 - 위원장의 경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전체 위원장 18명 중 여성 위원장은 1명으로 비율은 6.0%에 불과함.

[표 IV-2-9] 서초구 성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현황(2019-2021)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전체	18	(100.0)	18	(100.0)	18	(100.0)
		여성	1	(6.0)	1	(6.0)	1	(6.0)
		남성	17	(94.0)	17	(94.0)	17	(94.0)
	위원	전체	387	(100.0)	393	(100.0)	358	(100.0)
		여성	161	(42.0)	158	(40.0)	143	(40.0)
		남성	226	(58.0)	235	(60.0)	215	(60.0)

자료: 서초구 내부자료(2022년 8월)

3) 사회 및 단체활동 참여현황

- 「서초통계연보」(2021)에 의하면, 서초구 자원봉사자 현황은 최근 3년간 (2018~2020) 여성과 남성의 각 참여 현황 비율을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여성은 58.7%, 남성은 41.3%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4%p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10] 자원봉사자 현황(2018-2020)

구분		2018		2019		2020	
서울시		2,291,323	(100.0)	2,449,427	(100.0)	2,514,283	(100.0)
서초구		99,650	(100.0)	106,174	(100.0)	109,252	(100.0)
성별	여성	58,417	(58.6)	62,358	(58.7)	64,127	(58.7)
	남성	41,233	(41.4)	43,816	(41.3)	45,125	(41.3)
연령	19세이하	34,765	(34.9)	34,092	(32.1)	29,847	(27.3)
	20~29세	23,945	(24.0)	28,368	(26.7)	32,900	(30.1)
	30~39세	10,637	(10.7)	11,473	(10.8)	12,143	(11.1)
	40~49세	15,194	(15.2)	16,486	(15.5)	16,867	(15.4)
	50~59세	7,967	(8.0)	8,365	(7.9)	9,409	(8.6)
	60~69세	4,820	(4.8)	4,996	(4.7)	5,381	(4.9)
	70세이상	2,322	(2.3)	2,394	(2.3)	2,705	(2.5)

주: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지자체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자료: 제33회 서초통계연보(2021)

- 「2021년 서울서베이」 시민 데이터 원자료에 의하면, 사회참여 유형을 민원제안,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토론회, 정책제안과 집회 및 시위참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함).
- 서초구의 경우, 정치사회적 의견달기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민원제안 및 제기 15.1%, 토론회 참여 및 정책제안은 각각 6.8%로 나타났으며, 집회 및 시위참가는 4.4%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해당 활동에 조금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집회와 시위참가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표 IV-2-11] 사회참여 현황(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전체		사회참여유형(중복응답)									
				민원제안 및 제기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서울시 정책 토론회 참여		정책제안		집회/시위 참가	
서울시		5,000	(100.0)	807	(16.1)	774	(15.5)	245	(4.9)	257	(5.1)	318	(6.4)
서초구		205	(100.0)	31	(15.1)	39	(19.0)	14	(6.8)	14	(6.8)	9	(4.4)
성	여성	109	(100.0)	16	(14.7)	19	(17.4)	7	(6.4)	7	(6.4)	5	(4.6)
	남성	96	(100.0)	15	(15.6)	20	(20.8)	7	(7.3)	7	(7.3)	4	(4.2)
연령	20대 이하	43	(100.0)	7	(16.3)	6	(14.0)	5	(11.6)	2	(4.7)	2	(4.7)
	30대	35	(100.0)	7	(20.0)	10	(28.6)	4	(11.4)	3	(8.6)	1	(2.9)
	40대	43	(100.0)	9	(20.9)	12	(27.9)	3	(7.0)	6	(14.0)	5	(11.6)
	50대	35	(100.0)	6	(17.1)	10	(28.6)	2	(5.7)	3	(8.6)	1	(2.9)
	60세 이상	49	(100.0)	2	(4.1)	1	(2.0)	0	(0.0)	0	(0.0)	0	(0.0)
학력	중학교 이하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고졸 이하	57	(100.0)	2	(3.5)	6	(10.5)	2	(3.5)	1	(1.8)	2	(3.5)
	대졸 이하	138	(100.0)	27	(19.6)	28	(20.3)	12	(8.7)	13	(9.4)	7	(5.1)
	대학원 이상	9	(100.0)	2	(22.2)	4	(44.4)	0	(0.0)	0	(0.0)	0	(0.0)
혼인 상태	기혼	127	(100.0)	21	(16.5)	29	(22.8)	7	(5.5)	11	(8.7)	7	(5.5)
	미혼	68	(100.0)	10	(14.7)	9	(13.2)	7	(10.3)	3	(4.4)	2	(2.9)
	이혼/사별/기타	10	(100.0)	0	(0.0)	1	(10.0)	0	(0.0)	0	(0.0)	0	(0.0)

주1: 민원제안 및 제기 = 정보공개 청구 등

주2: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 시장 페이스북, 트윗에 리플이나 댓글 달기 등

주3: 서울시 정책토론회 참여 = 시민대토론회, 정책토론회, 타운홀미팅 등

자료: 「서울서베이」시민 데이터 원자료 분석(2021)

4) 계층의식/정주의식

○ 「2021년 서울서베이」에서는 서울시민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는데, 본인의 경우, 여성(37.0%)이 남성(30.0%)보다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으며, 자녀의 경우에도, 여성(28.4%)이 남성(25.7%)보다 본인의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가 비교적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표 IV-2-12] 계층이동 가능성(본인/자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본인			자녀		
		(매우+다소) 낮다	보통이다	(매우+다소) 높다	(매우+다소) 낮다	보통이다	(매우+다소) 높다
서울시	40,441 (100.0)	13,315 (32.9)	20,145 (49.8)	6,982 (17.3)	9,775 (24.2)	21,254 (52.6)	9,412 (23.3)
서초구	1,671 (100.0)	576 (34.5)	792 (47.4)	302 (18.1)	473 (28.3)	781 (46.8)	417 (25.0)
성	여성	882 (100.0)	301 (37.0)	366 (45.0)	146 (18.0)	231 (28.4)	373 (45.9)
	남성	789 (100.0)	231 (30.4)	371 (48.8)	158 (20.8)	195 (25.7)	357 (47.0)
연령	20대 이하	350 (100.0)	58 (28.4)	95 (46.6)	51 (25.0)	59 (28.9)	92 (45.1)
	30대	285 (100.0)	107 (30.8)	145 (41.8)	95 (27.4)	101 (29.1)	96 (27.7)
	40대	348 (100.0)	138 (29.9)	239 (51.8)	84 (18.2)	114 (24.7)	125 (27.1)
	50대	290 (100.0)	104 (38.1)	119 (43.6)	50 (18.3)	68 (24.9)	74 (27.1)
	60세 이상	398 (100.0)	125 (43.4)	139 (48.3)	24 (8.3)	84 (29.2)	69 (24.0)

주1 : 계층이동 가능성(본인) = '우리 사회에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응답한 값

주2 : 계층이동 가능성(자녀) = '우리 사회에서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응답한 값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 데이터 원자료 분석(2021)

○ 지역사회 소속감과 관련하여, '잘 알고 지내는 편'인지에 대해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여성이 29.3%로 남성 26.7%보다 높게 나타남.

[표 IV-2-13] 지역사회소속감-잘 알고 지내는 편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울시	40,441 (100.0)	4,422 (10.9)	9,733 (24.1)	14,815 (36.6)	10,047 (24.8)	1,424 (3.5)
서초구	1,573 (100.0)	160 (10.2)	352 (22.4)	620 (39.4)	397 (25.2)	44 (2.8)
성	여성	813 (100.0)	87 (10.7)	183 (22.5)	305 (37.5)	214 (26.3)
	남성	760 (100.0)	73 (9.6)	169 (22.2)	315 (41.4)	183 (24.1)
연령	20대 이하	204 (100.0)	28 (13.7)	54 (26.5)	78 (38.2)	39 (19.1)
	30대	347 (100.0)	52 (15.0)	97 (28.0)	134 (38.6)	51 (14.7)
	40대	461 (100.0)	43 (9.3)	91 (19.7)	185 (40.1)	134 (29.1)
	50대	273 (100.0)	16 (5.9)	66 (24.2)	104 (38.1)	80 (29.3)
	60세 이상	288 (100.0)	21 (7.3)	44 (15.3)	119 (41.3)	93 (32.3)

주: 지역사회 소속감 =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게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응답한 값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 데이터 원자료 분석(2021)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여성이 22.3% 남성이 21.8%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약간 더 긍정적으로 응답함.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2.0%(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14] 지역사회소속감-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울시	40,441 (100.0)	6,331 (15.7)	12,348 (30.5)	13,376 (33.1)	7,083 (17.5)	1,303 (3.2)
서초구	1,573 (100.0)	207 (13.2)	448 (28.5)	571 (36.3)	277 (17.6)	70 (4.5)
성	여성	813 (100.0)	114 (14.0)	218 (26.8)	300 (36.9)	144 (17.7)
	남성	760 (100.0)	93 (12.2)	230 (30.3)	271 (35.7)	133 (17.5)
연령	20대 이하	204 (100.0)	38 (18.6)	55 (27.0)	73 (35.8)	24 (11.8)
	30대	347 (100.0)	63 (18.2)	117 (33.7)	118 (34.0)	39 (11.2)
	40대	461 (100.0)	56 (12.1)	133 (28.9)	166 (36.0)	86 (18.7)
	50대	273 (100.0)	23 (8.4)	82 (30.0)	106 (38.8)	52 (19.0)
	60세 이상	288 (100.0)	27 (9.4)	61 (21.2)	108 (37.5)	76 (26.4)

주: 지역사회 소속감 =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게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응답한 값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 데이터 원자료 분석(2021)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여성이 21.9%, 남성이 21.0%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40대 24.5%로 높게 나타남.

[표 IV-2-15] 지역사회소속감-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울시		40,441 (100.0)	6,257 (15.5)	12,108 (29.9)	13,898 (34.4)	7,007 (17.3)	1,171 (2.9)
서초구		1,573 (100.0)	211 (13.4)	473 (30.1)	551 (35.0)	285 (18.1)	53 (3.4)
성	여성	813 (100.0)	112 (13.8)	238 (29.3)	285 (35.1)	151 (18.6)	27 (3.3)
	남성	760 (100.0)	99 (13.0)	235 (30.9)	266 (35.0)	134 (17.6)	26 (3.4)
연령	20대 이하	204 (100.0)	38 (18.6)	73 (35.8)	51 (25.0)	35 (17.2)	7 (3.4)
	30대	347 (100.0)	74 (21.3)	114 (32.9)	97 (28.0)	52 (15.0)	10 (2.9)
	40대	461 (100.0)	51 (11.1)	122 (26.5)	175 (38.0)	95 (20.6)	18 (3.9)
	50대	273 (100.0)	28 (10.3)	83 (30.4)	112 (41.0)	42 (15.4)	8 (2.9)
	60세 이상	288 (100.0)	20 (6.9)	81 (28.1)	116 (40.3)	61 (21.2)	10 (3.5)

주: 지역사회 소속감 =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응답한 값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 데이터 원자료 분석(2021)

-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대해, 여성이 14.6%, 남성이 13.8%로 긍정적으로 응답해(그렇다+매우 그렇다), 여성이 비교적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16] 지역사회소속감-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울시		40,441 (100.0)	9,775 (24.2)	12,513 (30.9)	11,841 (29.3)	5,408 (13.4)	904 (2.2)
서초구		1,573 (100.0)	303 (19.3)	525 (33.4)	521 (33.1)	180 (11.4)	44 (2.8)
성	여성	813 (100.0)	159 (19.6)	256 (31.5)	279 (34.3)	92 (11.3)	27 (3.3)
	남성	760 (100.0)	144 (18.9)	269 (35.4)	242 (31.8)	88 (11.6)	17 (2.2)
연령	20대 이하	204 (100.0)	53 (26.0)	74 (36.3)	52 (25.5)	16 (7.8)	9 (4.4)
	30대	347 (100.0)	100 (28.8)	121 (34.9)	91 (26.2)	29 (8.4)	6 (1.7)
	40대	461 (100.0)	72 (15.6)	159 (34.5)	157 (34.1)	64 (13.9)	9 (2.0)
	50대	273 (100.0)	40 (14.7)	90 (33.0)	102 (37.4)	29 (10.6)	12 (4.4)
	60세 이상	288 (100.0)	38 (13.2)	81 (28.1)	119 (41.3)	42 (14.6)	8 (2.8)

주: 지역사회 소속감 =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응답한 값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 데이터 원자료 분석(2021)

3

의사결정분야 구민인식조사 결과

1) 구정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1) 구정활동에 대한 인식

▷ 서초구 지역뉴스를 관심갖고 보고 있다(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서초구 지역뉴스를 관심갖고 보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61.3%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1.2%로 나타남.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65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65.7%로 남성 56.5% 비해 9.2%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5점 척도기준 평균 3.88점이며 다음이 50대와 60대가 각각 3.66점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40대가 3.9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60대 3.80점, 50대 3.72점순임. 남성은 40대 3.77점, 50대 3.59점, 60대 3.50점 순으로 나타남. 기혼의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IV-3-1] 서초구 지역뉴스를 관심갖고 보고 있다(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2.2	9.0	27.5	43.6	17.7	3.65
성별	여성	257	0.8	7.4	26.1	45.9	19.8	3.77
	남성	243	3.7	10.8	29.0	41.1	15.4	3.54
연령대	20대 이하	92	5.4	9.8	29.3	45.7	9.8	3.45
	30대	95	1.1	8.4	30.5	49.5	10.5	3.60
	40대	107	0.9	3.7	25.2	46.7	23.4	3.88
	50대	100	3.0	8.1	27.3	43.4	18.2	3.66
	60대 이상	106	1.0	15.2	25.7	33.3	24.8	3.66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47	2.1	8.5	31.9	51.1	6.4	3.51
		30대	50	0.0	6.0	26.0	52.0	16.0	3.78
		40대	55	0.0	3.6	21.8	47.3	27.3	3.98
		50대	50	2.0	8.0	24.0	48.0	18.0	3.72
		60대 이상	55	0.0	10.9	27.3	32.7	29.1	3.80
	남성	20대 이하	45	8.9	11.1	26.7	40.0	13.3	3.38
		30대	45	2.2	11.1	35.6	46.7	4.4	3.40
		40대	52	1.9	3.8	28.8	46.2	19.2	3.77
		50대	50	4.1	8.2	30.6	38.8	18.4	3.59
		60대 이상	51	2.0	20.0	24.0	34.0	20.0	3.5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4.5	11.8	21.8	40.0	21.8	3.63
	방배권		93	3.2	7.5	36.6	36.6	16.1	3.55
	서초권		218	0.9	8.3	26.7	46.1	18.0	3.72
	양재/내곡권		78	1.3	9.0	26.9	50.0	12.8	3.64
경제활동	취업		369	1.6	9.5	27.7	44.0	17.1	3.65
	비취업		131	3.8	7.7	26.9	42.3	19.2	3.6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4.2	9.5	28.6	47.0	10.7	3.51
	기혼		325	1.2	8.9	26.5	41.8	21.5	3.74
	기타		7	0.0	0.0	60.0	40.0	0.0	3.40
자녀유무	있다		317	1.6	8.6	26.0	41.9	21.9	3.74
	없다		183	3.3	9.8	30.1	46.4	10.4	3.51

▷ 우리지역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지역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8.3%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1.9%로 나타남. 5점 척도 기준 평균 3.46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47.1%로 남성 49.6% 비해 2.5%p 낮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5점 척도일 때 3.58점이며 다음이 40대 3.56점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50대가 3.6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30대 3.58점, 40대 3.56점 순임. 남성은 20대 3.62점, 30대 3.58점, 40대 3.54점 순으로 나타남. 반포/잠원권과 서초권이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2] 우리지역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1.2	10.7	39.8	37.0	11.3	3.46	
성별	여성	257	1.6	9.3	42.0	36.6	10.5	3.45	
	남성	243	0.8	12.1	37.5	37.5	12.1	3.48	
연령대	20대 이하	92	1.1	10.9	42.4	33.7	12.0	3.45	
	30대	95	0.0	5.3	40.0	46.3	8.4	3.58	
	40대	107	0.0	8.4	40.2	39.3	12.1	3.55	
	50대	100	1.0	8.1	45.5	35.4	10.1	3.45	
	60대 이상	106	3.8	20.2	31.7	30.8	13.5	3.30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14.9	48.9	21.3	12.8	3.28
		30대	50	0.0	4.0	38.0	54.0	4.0	3.58
		40대	55	0.0	5.5	49.1	29.1	16.4	3.56
		50대	50	0.0	2.0	42.0	50.0	6.0	3.60
		60대 이상	55	5.5	20.0	32.7	29.1	12.7	3.24
	남성	20대 이하	45	0.0	6.7	35.6	46.7	11.1	3.62
		30대	45	0.0	6.7	42.2	37.8	13.3	3.58
		40대	52	0.0	11.5	30.8	50.0	7.7	3.54
		50대	50	2.0	14.3	49.0	20.4	14.3	3.31
		60대 이상	51	2.0	20.4	30.6	32.7	14.3	3.3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0.9	12.7	31.8	44.5	10.0	3.50	
	방배권	93	4.3	8.6	43.0	36.6	7.5	3.34	
	서초권	218	0.0	10.6	38.7	35.9	14.7	3.55	
	양재/내곡권	78	1.3	10.4	50.6	29.9	7.8	3.32	
경제활동	취업	369	0.8	10.6	39.4	37.8	11.4	3.48	
	비취업	131	2.3	10.9	41.1	34.9	10.9	3.41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0.6	7.7	44.6	36.9	10.1	3.48	
	기혼	325	1.5	11.7	37.7	37.0	12.0	3.46	
	기타	7	0.0	40.0	20.0	40.0	0.0	3.00	
자녀유무	있다	317	1.6	12.1	36.6	37.9	11.8	3.46	
	없다	183	0.5	8.2	45.4	35.5	10.4	3.47	

▷ 우리지역 주민은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우리지역 주민은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9.9%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0.4%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51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50.5%로 남성 49.2%에 비해 1.3%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높은 연령대는 30대와 40대로 5점 척도일 때 각각 3.61점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40대 3.67점으로 가장 높고, 남성은 30대가 3.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포/잠원권과 서초권이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3] 우리지역 주민은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2.8	7.6	39.6	35.8	14.1	3.51	
성별	여성	257	3.1	7.4	38.9	37.7	12.8	3.50	
	남성	243	2.5	7.9	40.4	33.8	15.4	3.52	
연령대	20대 이하	92	1.1	9.8	32.6	41.3	15.2	3.60	
	30대	95	3.2	5.3	34.7	41.1	15.8	3.61	
	40대	107	1.9	1.9	47.7	30.8	17.8	3.61	
	50대	100	4.0	4.0	40.4	44.4	7.1	3.46	
	60대 이상	106	3.8	17.3	41.3	23.1	14.4	3.27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10.6	25.5	53.2	8.5	3.55
		30대	50	2.0	4.0	38.0	48.0	8.0	3.56
		40대	55	1.8	1.8	43.6	32.7	20.0	3.67
		50대	50	4.0	2.0	38.0	44.0	12.0	3.58
		60대 이상	55	5.5	18.2	47.3	14.5	14.5	3.15
	남성	20대 이하	45	0.0	8.9	40.0	28.9	22.2	3.64
		30대	45	4.4	6.7	31.1	33.3	24.4	3.67
		40대	52	1.9	1.9	51.9	28.8	15.4	3.54
		50대	50	4.1	6.1	42.9	44.9	2.0	3.35
		60대 이상	51	2.0	16.3	34.7	32.7	14.3	3.41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7	9.1	30.0	40.9	17.3	3.61	
	방배권	93	5.4	6.5	45.2	31.2	11.8	3.38	
	서초권	218	0.9	6.9	41.9	36.4	13.8	3.55	
	양재/내곡권	78	5.2	9.1	40.3	32.5	13.0	3.39	
경제활동	취업	369	2.4	6.8	39.1	37.0	14.7	3.55	
	비취업	131	3.9	10.1	41.1	32.6	12.4	3.4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4	6.5	35.7	41.1	14.3	3.58	
	기혼	325	3.1	7.7	42.0	33.3	13.9	3.47	
	기타	7	0.0	40.0	20.0	20.0	20.0	3.20	
자녀유무	있다	317	3.2	7.6	40.4	34.1	14.6	3.49	
	없다	183	2.2	7.7	38.3	38.8	13.1	3.53	

▷ 기회가 주어지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지역 활동에 참여)

‘기회가 주어지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61.4%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8.6%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69 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63.5%로 남성 59.2% 비해 4.3%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5점 척도일 때 3.81점이며 다음이 30대 3.78점, 20대 3.75점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40대 3.96점 가장 높고, 남성은 20대 이하가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4] 기회가 주어지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0.8	7.8	30.0	44.3	17.1	3.69	
성별	여성	257	0.8	5.8	30.0	44.0	19.5	3.75	
	남성	243	0.8	10.0	30.0	44.6	14.6	3.62	
연령대	20대 이하	92	0.0	8.7	27.2	44.6	19.6	3.75	
	30대	95	0.0	8.4	28.4	40.0	23.2	3.78	
	40대	107	0.0	1.9	32.7	47.7	17.8	3.81	
	50대	100	1.0	9.1	31.3	47.5	11.1	3.59	
	60대 이상	106	2.9	11.5	29.8	41.3	14.4	3.53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0.0	6.4	29.8	51.1	12.8	3.70
		30대	50	0.0	4.0	30.0	40.0	26.0	3.88
		40대	55	0.0	0.0	27.3	49.1	23.6	3.96
		50대	50	0.0	8.0	32.0	46.0	14.0	3.66
		60대 이상	55	3.6	10.9	30.9	34.5	20.0	3.56
	남성	20대 이하	45	0.0	11.1	24.4	37.8	26.7	3.80
		30대	45	0.0	13.3	26.7	40.0	20.0	3.67
		40대	52	0.0	3.8	38.5	46.2	11.5	3.65
		50대	50	2.0	10.2	30.6	49.0	8.2	3.51
		60대 이상	51	2.0	12.2	28.6	49.0	8.2	3.4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0.9	7.3	25.7	47.7	18.3	3.75	
	방배권	93	3.2	9.7	33.3	45.2	8.6	3.46	
	서초권	218	0.0	6.9	31.8	43.3	18.0	3.72	
	양재/내곡권	78	0.0	9.0	26.9	41.0	23.1	3.78	
경제활동	취업	369	0.5	7.9	29.6	44.6	17.4	3.70	
	비취업	131	1.6	7.8	31.0	43.4	16.3	3.6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0.6	8.9	26.8	44.6	19.0	3.73	
	기혼	325	0.9	7.1	31.8	43.8	16.4	3.68	
	기타	7	0.0	20.0	20.0	60.0	0.0	3.40	
자녀유무	있다	317	1.0	8.0	29.9	44.3	16.9	3.68	
	없다	183	0.5	7.7	30.1	44.3	17.5	3.70	

▷ 나의 의견이 구정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의견이 구정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52.3%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2.6%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51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50.6%로 남성 45.0% 비해 3.4%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5점 척도일 때 3.79점이며 다음이 20대 3.59점, 30대 3.56점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40대 3.8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도 40대가 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한 경우와 비혼(또는 미혼)의 경우에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5] 나의 의견이 구정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2.6	10.0	35.1	38.6	13.7	3.51	
성별	여성	257	2.3	8.9	38.1	36.2	14.4	3.51	
	남성	243	2.9	11.2	32.0	41.1	12.9	3.50	
연령대	20대 이하	92	0.0	9.8	38.0	35.9	16.3	3.59	
	30대	95	0.0	13.7	32.6	37.9	15.8	3.56	
	40대	107	0.0	2.8	35.5	42.1	19.6	3.79	
	50대	100	4.0	11.1	36.4	42.4	6.1	3.35	
	60대 이상	106	8.6	13.3	33.3	34.3	10.5	3.25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0.0	10.6	40.4	31.9	17.0
30대			50	0.0	6.0	46.0	32.0	16.0	3.58
40대			55	0.0	3.6	34.5	36.4	25.5	3.84
50대			50	2.0	12.0	22.0	58.0	6.0	3.54
60대 이상			55	9.1	12.7	47.3	23.6	7.3	3.07
남성		20대 이하	45	0.0	8.9	35.6	40.0	15.6	3.62
		30대	45	0.0	22.2	17.8	44.4	15.6	3.53
		40대	52	0.0	1.9	36.5	48.1	13.5	3.73
		50대	50	6.1	10.2	51.0	26.5	6.1	3.16
		60대 이상	51	8.0	14.0	18.0	46.0	14.0	3.4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0.9	6.4	35.5	41.8	15.5	3.65	
	방배권	93	6.5	14.0	37.6	34.4	7.5	3.23	
	서초권	218	1.4	10.6	35.0	36.9	16.1	3.56	
	양재/내곡권	78	3.8	9.0	32.1	43.6	11.5	3.50	
경제활동	취업	369	1.9	10.6	34.5	38.9	14.1	3.53	
	비취업	131	4.6	8.5	36.9	37.7	12.3	3.4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0.6	9.5	35.7	39.3	14.9	3.58	
	기혼	325	3.7	10.2	35.1	37.8	13.2	3.47	
	기타	7	0.0	20.0	20.0	60.0	0.0	3.40	
자녀유무	있다	317	3.8	9.5	33.0	40.0	13.7	3.50	
	없다	183	0.5	10.9	38.8	36.1	13.7	3.51	

▷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의 성비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의 성비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59.9%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7.2%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71점임. 성별로 여성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64.2%로 남성 55.2% 비해 9.0%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5점 척도일 때 3.88점이며 다음이 30대 3.77점, 50대 3.68점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40대가 4.07점으로 가장 높고, 남성은 30대가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6]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의 성비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500	2.4	4.8	32.9	39.3	20.6	3.71	
성별	여성	257	1.6	3.5	30.7	35.8	28.4	3.86	
	남성	243	3.3	6.3	35.1	43.1	12.1	3.54	
연령대	20대 이하	92	4.3	4.3	33.7	40.2	17.4	3.62	
	30대	95	1.1	3.2	31.6	46.3	17.9	3.77	
	40대	107	0.0	4.7	30.8	36.4	28.0	3.88	
	50대	100	3.0	5.1	31.3	42.4	18.2	3.68	
	60대 이상	106	3.9	6.8	36.9	32.0	20.4	3.58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4.3	34.0	36.2	23.4	3.74
		30대	50	0.0	2.0	32.0	46.0	20.0	3.84
		40대	55	0.0	1.8	30.9	25.5	41.8	4.07
		50대	50	2.0	2.0	26.0	44.0	26.0	3.90
		60대 이상	55	3.6	7.3	30.9	29.1	29.1	3.73
	남성	20대 이하	45	6.7	4.4	33.3	44.4	11.1	3.49
		30대	45	2.2	4.4	31.1	46.7	15.6	3.69
		40대	52	0.0	7.7	30.8	48.1	13.5	3.67
		50대	50	4.1	8.2	36.7	40.8	10.2	3.45
		60대 이상	51	4.2	6.3	43.8	35.4	10.4	3.42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8	6.4	32.1	38.5	21.1	3.71	
	방배권	93	5.4	4.3	39.8	37.6	12.9	3.48	
	서초권	218	2.3	4.1	30.9	40.6	22.1	3.76	
	양재/내곡권	78	0.0	5.2	31.2	39.0	24.7	3.83	
경제활동	취업	369	2.4	4.3	32.3	40.5	20.4	3.72	
	비취업	131	2.3	6.3	34.4	35.9	21.1	3.67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3.0	4.2	38.1	36.9	17.9	3.63	
	기혼	325	2.2	5.3	30.0	40.9	21.7	3.75	
	기타	7	0.0	0.0	40.0	20.0	40.0	4.00	
자녀유무	있다	317	2.2	5.4	28.8	40.6	23.0	3.77	
	없다	183	2.7	3.8	39.9	37.2	16.4	3.61	

(2) 구정정보 접근 방법

▷ 최신 구정 정보 접하는 경로

‘최신 구정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지’에 대해, 서초구 소식지 29.7%로 가장 높고, 서초구청 홈페이지 26.1%, 신문기사 10.6%, 현수막 또는 게시판 9.8%, 주민센터 8.6%, 지역주민 4.8%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서초구 소식지(33.1%)와 서초구청 홈페이지(26.8%)를 통해 구정 정보를 접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남성은 신문기사(14.5%), 현수막 또는 게시판(10.0%)을 통해 접근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서초구청 홈페이지는 20대 이하가 35.9%로 많이 활용하고, 서초구 소식지는 60대 이상이 36.2%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7] 최신 구정 정보 접하는 경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서초구 소식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신문기사	지역방송	현수막 또는 게시판	주민센터	지역주민	기타	
전체		500	29.7	26.1	10.6	8.0	9.8	8.6	4.8	2.2	
성별	여성	257	33.1	26.8	7.0	5.1	9.7	9.3	6.2	2.7	
	남성	243	26.1	25.3	14.5	11.2	10.0	7.9	3.3	1.7	
연령대	20대 이하	92	18.5	35.9	12.0	8.7	12.0	9.8	3.3	0.0	
	30대	95	27.4	24.2	12.6	3.2	18.9	10.5	2.1	1.1	
	40대	107	33.6	33.6	7.5	3.7	3.7	11.2	4.7	1.9	
	50대	100	31.3	30.3	9.1	11.1	11.1	3.0	4.0	0.0	
	60대 이상	106	36.2	7.6	12.4	13.3	4.8	8.6	9.5	7.6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7	21.3	38.3	4.3	6.4	10.6	12.8	6.4	0.0
		30대	50	26.0	28.0	6.0	2.0	20.0	12.0	4.0	2.0
		40대	55	34.5	32.7	7.3	1.8	5.5	10.9	3.6	3.6
		50대	50	32.0	28.0	8.0	14.0	10.0	4.0	4.0	0.0
		60대 이상	55	49.1	9.1	9.1	1.8	3.6	7.3	12.7	7.3
	남성	20대 이하	45	15.6	33.3	20.0	11.1	13.3	6.7	0.0	0.0
		30대	45	28.9	20.0	20.0	4.4	17.8	8.9	0.0	0.0
		40대	52	32.7	34.6	7.7	5.8	1.9	11.5	5.8	0.0
		50대	50	30.6	32.7	10.2	8.2	12.2	2.0	4.1	0.0
		60대 이상	51	22.0	6.0	16.0	26.0	6.0	10.0	6.0	8.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5.5	27.3	16.4	9.1	6.4	9.1	2.7	3.6	
	방배권	93	33.3	19.4	8.6	9.7	9.7	9.7	5.4	4.3	
	서초권	218	28.6	30.4	8.8	5.5	11.1	8.8	6.0	0.9	
	양재/내곡권	78	34.6	20.5	10.3	11.5	11.5	6.4	3.8	1.3	
경제활동	취업	369	26.1	30.2	10.1	7.1	12.2	8.4	4.3	1.6	
	비취업	131	40.0	14.6	12.3	10.8	3.1	9.2	6.2	3.8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0.8	35.7	13.1	4.2	11.9	10.7	3.0	0.6	
	기혼	325	34.5	21.5	9.5	9.8	8.3	7.4	5.8	3.1	
	기타	7	20.0	0.0	0.0	20.0	40.0	20.0	0.0	0.0	
자녀유무	있다	317	34.0	21.6	9.5	10.2	7.9	7.9	5.7	3.2	
	없다	183	22.4	33.9	12.6	4.4	13.1	9.8	3.3	0.5	

(3) 관심있는 구정행정 분야

▷ 가장 관심 있는 구정 행정 분야

‘가장 관심 있는 구정 행정 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분야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경제/산업 16.5%, 문화/예술 13.5%, 도시환경 11.2%, 도로/교통 8.0%, 민원행정 4.4%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보건/복지분야가 35.0%로 남성 28.2%보다 6.8%p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경제/산업분야가 21.6%로 여성 11.7%보다 9.9%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여성 30대와 60대 이상이 보건/복지분야가 각각 40.0%, 남성은 40대가 36.5%로 높게 나타남. 취업을 했거나,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거주 지역으로는 방배권과 양재/내곡 권에서의 관심이 높게 나타남.

[표 IV-3-8] 가장 관심 있는 구정 행정 분야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보건/ 복지	도시 환경	도로/ 교통	주택/ 건설	경제/ 산업	문화 /예술	민원 행정	기타	
전체		500	31.7	11.2	8.0	14.1	16.5	13.5	4.4	0.6	
성별	여성	257	35.0	12.5	8.6	12.1	11.7	15.6	3.5	1.2	
	남성	243	28.2	10.0	7.5	16.2	21.6	11.2	5.4	0.0	
연령대	20대 이하	92	18.5	6.5	10.9	15.2	23.9	16.3	8.7	0.0	
	30대	95	33.7	14.7	7.4	9.5	18.9	13.7	2.1	0.0	
	40대	107	40.2	8.4	9.3	12.1	13.1	12.1	3.7	0.9	
	50대	100	28.3	16.2	5.1	14.1	16.2	16.2	4.0	0.0	
	60대 이상	106	36.2	10.5	7.6	19.0	11.4	9.5	3.8	1.9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7	19.1	8.5	8.5	14.9	21.3	19.1	8.5	0.0
		30대	50	40.0	12.0	10.0	10.0	16.0	12.0	0.0	0.0
		40대	55	43.6	7.3	12.7	9.1	7.3	16.4	1.8	1.8
		50대	50	30.0	22.0	0.0	18.0	10.0	18.0	2.0	0.0
		60대 이상	55	40.0	12.7	10.9	9.1	5.5	12.7	5.5	3.6
	남성	20대 이하	45	17.8	4.4	13.3	15.6	26.7	13.3	8.9	0.0
		30대	45	26.7	17.8	4.4	8.9	22.2	15.6	4.4	0.0
		40대	52	36.5	9.6	5.8	15.4	19.2	7.7	5.8	0.0
		50대	50	26.5	10.2	10.2	10.2	22.4	14.3	6.1	0.0
		60대 이상	51	32.0	8.0	4.0	30.0	18.0	6.0	2.0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9.1	11.8	4.5	18.2	19.1	13.6	1.8	1.8	
	방배권	93	36.6	15.1	5.4	19.4	7.5	12.9	2.2	1.1	
	서초권	218	27.6	8.8	12.4	10.6	21.7	13.8	5.1	0.0	
	양재/내곡권	78	41.0	12.8	3.8	11.5	9.0	12.8	9.0	0.0	
경제활동	취업	369	32.3	12.2	7.6	13.3	17.1	13.6	3.5	0.3	
	비취업	131	30.0	8.5	9.2	16.2	14.6	13.1	6.9	1.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5.6	9.5	7.1	13.1	22.0	16.7	6.0	0.0	
	기혼	325	35.1	11.7	8.6	14.8	13.5	11.7	3.7	0.9	
	기타	7	20.0	40.0	0.0	0.0	20.0	20.0	0.0	0.0	
자녀유무	있다	317	35.6	11.7	8.3	14.6	13.3	11.7	3.8	1.0	
	없다	183	25.1	10.4	7.7	13.1	21.9	16.4	5.5	0.0	

2) 공정성에 대한 인식

(1)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 공정성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19.1%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45.5%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61점임. 성별로 여성은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44.7%로 남성 46.3% 비해 1.6%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불공정하다’는 부정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52.5%, 다음이 40대 45.8%, 30대 45.3% 순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30대가 48.0%로 부정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성은 50대가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양재/내곡권(53.%)과 서초권(46.6%)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9] 우리 사회 공정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불공정하다	② 약간 불공정하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15.7	29.8	45.5	35.4	16.3	2.8	2.61	
성별	여성	257	16.3	28.4	44.7	35.8	16.3	3.1	2.61	
	남성	243	15.0	31.3	46.3	35.0	16.3	2.5	2.60	
연령대	20대 이하	92	10.9	29.3	40.2	34.8	20.7	4.3	2.78	
	30대	95	11.6	33.7	45.3	35.8	16.8	2.1	2.64	
	40대	107	13.1	32.7	45.8	35.5	15.9	2.8	2.63	
	50대	100	21.2	31.3	52.5	33.3	13.1	1.0	2.41	
	60대 이상	106	21.2	22.1	43.3	37.5	15.4	3.8	2.59	
	20대 이하	47	12.8	23.4	36.2	38.3	21.3	4.3	2.81	
성 별 * 연 령 대	여성	30대	50	16.0	32.0	48.0	36.0	16.0	0.0	2.52
		40대	55	10.9	36.4	47.3	36.4	12.7	3.6	2.62
		50대	50	22.0	24.0	46.0	34.0	20.0	0.0	2.52
		60대 이상	55	20.0	25.5	45.5	34.5	12.7	7.3	2.62
		20대 이하	45	8.9	35.6	44.5	31.1	20.0	4.4	2.76
	남성	30대	45	6.7	35.6	42.3	35.6	17.8	4.4	2.78
		40대	52	15.4	28.8	44.2	34.6	19.2	1.9	2.63
		50대	50	20.4	38.8	59.2	32.7	6.1	2.0	2.31
		60대 이상	51	22.4	18.4	40.8	40.8	18.4	0.0	2.55
		반포/잠원권	111	11.9	28.4	40.3	33.9	21.1	4.6	2.78
거주지역	방배권	93	16.1	25.8	41.9	40.9	15.1	2.2	2.61	
	서초권	218	16.6	30.0	46.6	33.6	17.1	2.8	2.59	
	양재/내곡권	78	17.9	35.9	53.8	35.9	9.0	1.3	2.40	
	취업	369	15.5	29.9	45.4	35.3	16.8	2.4	2.61	
경제활동	비취업	131	16.3	29.5	45.8	35.7	14.7	3.9	2.60	
	비혼 또는 미혼	168	13.1	29.2	42.3	37.5	17.3	3.0	2.68	
결혼여부	기혼	325	17.0	29.9	46.9	34.6	15.7	2.8	2.57	
	기타	7	20.0	40.0	60.0	20.0	20.0	0.0	2.40	
	있다	317	17.2	29.6	46.8	33.8	16.2	3.2	2.59	
자녀유무	없다	183	13.1	30.1	43.2	38.3	16.4	2.2	2.64	

(2)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 경제적 계층의 차이(양극화, 불평등)

‘경제적 계층의 차이(양극화, 불평등)’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매우 심각하다)가 72.4%로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6.8%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12점임. 성별로 여성은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73.4%로 남성 71.4%에 비해 2.0%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85.8%, 다음이 20대 이하 70.6%, 30대 69.4% 순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30대가 80.0%로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성은 50대가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10] 경제적 계층의 차이(양극화, 불평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④+⑤	평균	
전체		500	1.2	5.6	20.7	48.9	23.5	72.4	2.12	
성별	여성	257	0.4	4.7	21.5	50.4	23.0	73.4	2.09	
	남성	243	2.1	6.6	19.9	47.3	24.1	71.4	2.15	
연령대	20대 이하	92	1.1	8.7	19.6	48.9	21.7	70.6	2.18	
	30대	95	2.1	6.3	22.1	50.5	18.9	69.4	2.22	
	40대	107	1.9	4.7	25.2	43.0	25.2	68.2	2.15	
	50대	100	0.0	2.0	12.1	53.5	32.3	85.8	1.84	
	60대 이상	106	1.0	6.7	24.0	49.0	19.2	68.2	2.21	
	20대 이하	47	0.0	6.4	21.3	53.2	19.1	72.3	2.15	
성 별 * 연 령 별	여성	30대	50	0.0	2.0	18.0	56.0	24.0	80.0	1.98
		40대	55	1.8	5.5	27.3	43.6	21.8	65.4	2.22
		50대	50	0.0	2.0	16.0	52.0	30.0	82.0	1.90
		60대 이상	55	0.0	7.4	24.1	48.1	20.4	68.5	2.19
		20대 이하	45	2.2	11.1	17.8	44.4	24.4	68.8	2.22
	남성	30대	45	4.4	11.1	26.7	44.4	13.3	57.7	2.49
		40대	52	1.9	3.8	23.1	42.3	28.8	71.1	2.08
		50대	50	0.0	2.0	8.2	55.1	34.7	89.8	1.78
		60대 이상	51	2.0	6.0	24.0	50.0	18.0	68.0	2.24
		반포/잠원권	111	0.0	4.5	23.6	50.0	21.8	71.8	2.11
거주지역	방배권	93	4.3	6.5	27.2	44.6	17.4	62.0	2.36	
	서초권	218	0.9	5.5	19.4	48.4	25.8	74.2	2.07	
	양재/내곡권	78	0.0	6.4	12.8	53.8	26.9	80.8	1.99	
	취업	369	1.6	6.3	19.0	48.9	24.2	73.1	2.12	
경제활동	비취업	131	0.0	3.9	25.6	48.8	21.7	70.5	2.12	
	비혼 또는 미혼	168	1.2	7.1	22.6	44.6	24.4	69.0	2.16	
결혼여부	기혼	325	1.2	4.9	19.8	50.9	23.1	74.1	2.10	
	기타	7	0.0	0.0	20.0	60.0	20.0	80.0	2.00	
	있다	317	1.3	5.1	19.4	51.0	23.2	74.2	2.10	
자녀유무	없다	183	1.1	6.6	23.0	45.4	24.0	69.4	2.15	

주: 본 문항의 평균값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역코딩(1점 매우 심각하다~5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하여 산출된 값으로, 평균값이 낮을수록 매우 심각함을 의미함

▷ **우리사회의 젠더 갈등의 문제**

‘우리사회의 젠더 갈등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매우 심각하다)가 64.4%로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5.8%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23점임. 성별로 여성은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67.1%로 남성 61.3%에 비해 5.8%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69.7%, 다음이 40대 68.2%, 20대 이하가 64.1% 순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60대 이상이 70.3%로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한 경우와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젠더갈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11] 우리사회의 젠더 갈등의 문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④+⑤	평균	
전체		500	1.2	4.6	29.8	44.2	20.2	64.4	2.23	
성별	여성	257	0.0	3.5	29.3	44.1	23.0	67.1	2.13	
	남성	243	2.5	5.8	30.4	44.2	17.1	61.3	2.33	
연령대	20대 이하	92	2.2	2.2	31.5	38.0	26.1	64.1	2.16	
	30대	95	1.1	5.3	35.8	37.9	20.0	57.9	2.29	
	40대	107	0.9	3.7	27.1	49.5	18.7	68.2	2.19	
	50대	100	1.0	5.1	24.2	51.5	18.2	69.7	2.19	
	60대 이상	106	1.0	6.8	31.1	42.7	18.4	61.1	2.29	
	성별 * 연령별	20대 이하	47	0.0	2.1	36.2	36.2	25.5	61.7	2.15
성별 * 연령별	여성	30대	50	0.0	6.0	30.0	36.0	28.0	64.0	2.14
		40대	55	0.0	3.6	29.1	47.3	20.0	67.3	2.16
		50대	50	0.0	0.0	28.0	56.0	16.0	72.0	2.12
		60대 이상	55	0.0	5.6	24.1	44.4	25.9	70.3	2.09
		20대 이하	45	4.4	2.2	26.7	40.0	26.7	66.7	2.18
	남성	30대	45	2.2	4.4	42.2	40.0	11.1	51.1	2.47
		40대	52	1.9	3.8	25.0	51.9	17.3	69.2	2.21
		50대	50	2.0	10.2	20.4	46.9	20.4	67.3	2.27
		60대 이상	51	2.0	8.2	38.8	40.8	10.2	51.0	2.51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0.0	3.6	25.5	50.9	20.0	70.9	2.13	
	방배권	93	0.0	2.2	41.3	37.0	19.6	56.6	2.26	
	서초권	218	2.3	4.1	29.5	44.7	19.4	64.1	2.25	
	양재/내곡권	78	1.3	10.4	23.4	41.6	23.4	65.0	2.25	
경제활동	취업	369	1.4	4.3	29.3	44.6	20.4	65.0	2.22	
	비취업	131	0.8	5.5	31.3	43.0	19.5	62.5	2.2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8	2.4	31.5	41.7	22.6	64.3	2.19	
	기혼	325	0.9	5.9	28.8	46.1	18.3	64.4	2.25	
	기타	7	0.0	0.0	40.0	0.0	60.0	60.0	1.80	
자녀유무	있다	317	1.0	5.8	27.5	46.6	19.2	65.8	2.23	
	없다	183	1.6	2.7	33.9	39.9	21.9	61.8	2.22	

주: 본 문항의 평균값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역코딩(1점 매우 심각하다~5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하여 산출된 값으로, 평균값이 낮을수록 매우 심각함을 의미함

▷ 우리사회의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

‘우리사회의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매우 심각하다)가 69.7%로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6.6%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19점임. 성별로 여성은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70.1%로 남성 69.3%에 비해 0.8%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85.8%, 다음이 20대 이하 69.6%, 40대 69.2% 순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50대가 80.0%로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성도 50대가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한 경우와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간 불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12] 우리사회의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④+⑤	평균	
전체		500	0.6	6.0	23.7	50.8	18.9	69.7	2.19	
성별	여성	257	0.4	5.1	24.5	51.4	18.7	70.1	2.17	
	남성	243	0.8	7.1	22.8	50.2	19.1	69.3	2.20	
연령대	20대 이하	92	0.0	7.6	22.8	51.1	18.5	69.6	2.20	
	30대	95	1.1	6.3	27.4	50.5	14.7	65.2	2.28	
	40대	107	0.0	5.6	25.2	45.8	23.4	69.2	2.13	
	50대	100	0.0	3.0	14.1	64.6	18.2	85.8	2.02	
	60대 이상	106	1.9	7.6	28.6	42.9	19.0	61.9	2.30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7	0.0	2.1	31.9	59.6	6.4	66.0	2.30
		30대	50	0.0	4.0	26.0	46.0	24.0	70.0	2.10
		40대	55	0.0	9.1	20.0	49.1	21.8	70.9	2.16
		50대	50	0.0	4.0	16.0	62.0	18.0	80.0	2.06
		60대 이상	55	1.8	5.5	29.1	41.8	21.8	63.6	2.24
	남성	20대 이하	45	0.0	13.3	13.3	42.2	31.1	73.3	2.09
		30대	45	2.2	8.9	28.9	55.6	4.4	60.0	2.49
		40대	52	0.0	1.9	30.8	42.3	25.0	67.3	2.10
		50대	50	0.0	2.0	12.2	67.3	18.4	85.7	1.98
		60대 이상	51	2.0	10.0	28.0	44.0	16.0	60.0	2.3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0.0	3.6	21.8	59.1	15.5	74.6	2.14	
	방배권	93	2.2	8.6	28.0	43.0	18.3	61.3	2.33	
	서초권	218	0.5	5.5	24.0	50.7	19.4	70.1	2.17	
	양재/내곡권	78	0.0	7.7	20.5	48.7	23.1	71.8	2.13	
경제활동	취업	369	0.5	6.8	22.3	50.3	20.1	70.4	2.17	
	비취업	131	0.8	3.8	27.7	52.3	15.4	67.7	2.22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0.6	5.4	24.4	48.2	21.4	69.6	2.15	
	기혼	325	0.6	6.5	23.1	52.6	17.2	69.8	2.21	
	기타	7	0.0	0.0	40.0	20.0	40.0	60.0	2.00	
자녀유무	있다	317	0.6	7.0	22.2	51.7	18.4	70.1	2.20	
	없다	183	0.5	4.4	26.2	49.2	19.7	68.9	2.17	

주: 본 문항의 평균값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역코딩(1점 매우 심각하다~5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하여 산출된 값으로, 평균값이 낮을수록 매우 심각함을 의미함

(3)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노력과 경력에 대한 대우

‘우리사회에서 노력과 경력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23.5%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37.5%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79점임. 성별로 여성은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38.9%로 남성 36.1% 비해 2.8%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44.5%, 다음이 30대 40.0%, 60대이상 38.1%순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30대가 48.0%로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성은 50대가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13] 노력과 경력에 대한 대우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불공정하다	② 약간 불공정하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8.8	28.7	37.5	39.0	21.3	2.2	2.79	
성별	여성	257	7.8	31.1	38.9	40.1	18.3	2.7	2.77	
	남성	243	10.0	26.1	36.1	37.8	24.5	1.7	2.82	
연령대	20대 이하	92	6.5	27.2	33.7	34.8	28.3	3.3	2.95	
	30대	95	8.4	31.6	40.0	41.1	16.8	2.1	2.73	
	40대	107	6.5	25.2	31.7	45.8	20.6	1.9	2.86	
	50대	100	9.1	35.4	44.5	31.3	21.2	3.0	2.74	
	60대 이상	106	13.3	24.8	38.1	41.0	20.0	1.0	2.70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4.3	25.5	29.8	42.6	23.4	4.3	2.98
		30대	50	12.0	36.0	48.0	38.0	12.0	2.0	2.56
		40대	55	7.3	36.4	43.7	41.8	12.7	1.8	2.65
		50대	50	4.0	32.0	36.0	38.0	22.0	4.0	2.90
		60대 이상	55	10.9	25.5	36.4	40.0	21.8	1.8	2.78
	남성	20대 이하	45	8.9	28.9	37.8	26.7	33.3	2.2	2.91
		30대	45	4.4	26.7	31.1	44.4	22.2	2.2	2.91
		40대	52	5.8	13.5	19.3	50.0	28.8	1.9	3.08
		50대	50	14.3	38.8	53.1	24.5	20.4	2.0	2.57
		60대 이상	51	16.0	24.0	40.0	42.0	18.0	0.0	2.62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4.5	25.5	30.0	42.7	24.5	2.7	2.95	
	방배권	93	9.7	28.0	37.7	39.8	21.5	1.1	2.76	
	서초권	218	10.1	31.8	41.9	33.6	21.2	3.2	2.76	
	양재/내곡권	78	10.3	25.6	35.9	47.4	16.7	0.0	2.71	
경제활동	취업	369	8.7	28.8	37.5	38.9	21.2	2.4	2.80	
	비취업	131	9.2	28.5	37.7	39.2	21.5	1.5	2.78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7.1	28.0	35.1	40.5	22.0	2.4	2.85	
	기혼	325	9.5	28.9	38.4	38.5	20.9	2.2	2.77	
	기타	7	20.0	40.0	60.0	20.0	20.0	0.0	2.40	
자녀유무	있다	317	10.2	27.3	37.5	38.1	21.9	2.5	2.79	
	없다	183	6.6	31.1	37.7	40.4	20.2	1.6	2.79	

▷ 소득이나 자산형성

‘우리사회에서 소득이나 자산형성’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16.1%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52.2%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48점임. 성별로 여성은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55.6%로 남성 48.6%와 7.0%p 차이가 나타남. 연령별로 ‘불공정하다’는 부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60.6%, 40대 57.9%, 30대 47.3% 순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40대가 56.4%로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성도 40대가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14] 소득이나 자산형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불공정하다	② 약간 불공정하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17.9	34.3	52.2	31.7	14.1	2.0	2.48	
성별	여성	257	20.2	35.4	55.6	28.4	15.6	0.4	2.40	
	남성	243	15.4	33.2	48.6	35.3	12.4	3.7	2.56	
연령대	20대 이하	92	14.1	34.8	48.9	29.3	16.3	5.4	2.64	
	30대	95	16.8	30.5	47.3	34.7	16.8	1.1	2.55	
	40대	107	16.8	41.1	57.9	29.9	11.2	0.9	2.38	
	50대	100	24.2	36.4	60.6	24.2	12.1	3.0	2.33	
	60대 이상	106	17.1	28.6	45.7	40.0	14.3	0.0	2.51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12.8	42.6	55.4	27.7	14.9	2.1	2.51
		30대	50	24.0	34.0	58.0	30.0	12.0	0.0	2.30
		40대	55	18.2	38.2	56.4	27.3	16.4	0.0	2.42
		50대	50	24.0	38.0	62.0	20.0	18.0	0.0	2.32
		60대 이상	55	21.8	25.5	47.3	36.4	16.4	0.0	2.47
	남성	20대 이하	45	15.6	26.7	42.3	31.1	17.8	8.9	2.78
		30대	45	8.9	26.7	35.6	40.0	22.2	2.2	2.82
		40대	52	15.4	44.2	59.6	32.7	5.8	1.9	2.35
		50대	50	24.5	34.7	59.2	28.6	6.1	6.1	2.35
		60대 이상	51	12.0	32.0	44.0	44.0	12.0	0.0	2.5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0.9	31.8	42.7	36.4	20.9	0.0	2.67	
	방배권	93	14.0	34.4	48.4	36.6	15.1	0.0	2.53	
	서초권	218	20.7	36.9	57.6	27.6	10.1	4.6	2.41	
	양재/내곡권	78	24.4	30.8	55.2	30.8	14.1	0.0	2.35	
경제활동	취업	369	17.1	35.3	52.4	30.4	14.7	2.4	2.50	
	비취업	131	20.0	31.5	51.5	35.4	12.3	0.8	2.42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5.5	35.7	51.2	31.0	15.5	2.4	2.54	
	기혼	325	19.1	33.8	52.9	32.0	13.2	1.8	2.45	
	기타	7	20.0	20.0	40.0	40.0	20.0	0.0	2.60	
자녀유무	있다	317	19.0	33.0	52.0	32.1	14.0	1.9	2.47	
	없다	183	15.8	36.6	52.4	31.1	14.2	2.2	2.50	

▷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우리 사회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18.5%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45.4%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66임. 성별로 여성은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51.7%로 남성 38.5%와 13.2%p 차이가 나타남. 연령별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53.5%, 20대 47.8%, 30대 42.1% 순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40대가 56.4%로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성은 50대가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15]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불공정하다	② 약간 불공정하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11.3	34.1	45.4	36.1	14.9	3.6	2.66	
성별	여성	257	13.6	38.1	51.7	34.2	11.3	2.7	2.51	
	남성	243	8.8	29.7	38.5	38.1	18.8	4.6	2.81	
연령대	20대 이하	92	8.7	39.1	47.8	31.5	16.3	4.3	2.68	
	30대	95	13.7	28.4	42.1	34.7	16.8	6.3	2.74	
	40대	107	11.2	31.8	43.0	40.2	15.9	0.9	2.64	
	50대	100	10.1	43.4	53.5	31.3	11.1	4.0	2.56	
	60대 이상	106	12.6	28.2	40.8	41.7	14.6	2.9	2.67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8.5	42.6	51.1	29.8	12.8	6.4	2.66
		30대	50	16.0	36.0	52.0	32.0	12.0	4.0	2.52
		40대	55	18.2	38.2	56.4	32.7	10.9	0.0	2.36
		50대	50	8.0	46.0	54.0	36.0	8.0	2.0	2.50
		60대 이상	55	16.4	29.1	45.5	40.0	12.7	1.8	2.55
	남성	20대 이하	45	8.9	35.6	44.5	33.3	20.0	2.2	2.71
		30대	45	11.1	20.0	31.1	37.8	22.2	8.9	2.98
		40대	52	3.8	25.0	28.8	48.1	21.2	1.9	2.92
		50대	50	12.2	40.8	53.0	26.5	14.3	6.1	2.61
		60대 이상	51	8.3	27.1	35.4	43.8	16.7	4.2	2.81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0.0	36.4	46.4	40.0	11.8	1.8	2.59	
	방배권	93	10.8	30.1	40.9	40.9	15.1	3.2	2.70	
	서초권	218	10.6	36.4	47.0	32.3	16.1	4.6	2.68	
	양재/내곡권	78	15.8	28.9	44.7	35.5	15.8	3.9	2.63	
경제활동	취업	369	11.4	32.3	43.7	36.1	16.0	4.1	2.69	
	비취업	131	10.9	39.1	50.0	35.9	11.7	2.3	2.5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0.7	33.3	44.0	34.5	17.3	4.2	2.71	
	기혼	325	11.1	34.7	45.8	36.8	13.9	3.4	2.64	
	기타	7	40.0	20.0	60.0	40.0	0.0	0.0	2.00	
자녀유무	있다	317	10.9	34.2	45.1	36.7	14.1	4.2	2.66	
	없다	183	12.0	33.9	45.9	35.0	16.4	2.7	2.64	

▷ 정치와 사회참여

‘정치와 사회참여’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19.7%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39.7%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2.72점임. 성별로 여성은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45.1%로 남성 34.0%와 11.1%p 차이가 나타남. 연령별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46.4%, 60대 45.7%, 40대 39.2% 순으로 나타남,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40대가 50.9%로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남성도 50대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16] 정치와 사회참여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불공정하다	② 약간 불공정하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11.0	28.7	39.7	40.6	16.7	3.0	2.72	
성별	여성	257	12.8	32.3	45.1	37.7	14.4	2.7	2.62	
	남성	243	9.1	24.9	34.0	43.6	19.1	3.3	2.83	
연령대	20대 이하	92	4.3	27.2	31.5	45.7	18.5	4.3	2.91	
	30대	95	12.6	22.1	34.7	34.7	23.2	7.4	2.91	
	40대	107	8.4	30.8	39.2	43.0	15.9	1.9	2.72	
	50대	100	12.1	34.3	46.4	41.4	11.1	1.0	2.55	
	60대 이상	106	17.1	28.6	45.7	38.1	15.2	1.0	2.54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4.3	34.0	38.3	38.3	21.3	2.1	2.83
		30대	50	14.0	34.0	48.0	30.0	16.0	6.0	2.66
		40대	55	12.7	38.2	50.9	34.5	12.7	1.8	2.53
		50대	50	14.0	30.0	44.0	44.0	10.0	2.0	2.56
		60대 이상	55	18.2	25.5	43.7	41.8	12.7	1.8	2.55
	남성	20대 이하	45	4.4	20.0	24.4	53.3	15.6	6.7	3.00
		30대	45	11.1	8.9	20.0	40.0	31.1	8.9	3.18
		40대	52	3.8	23.1	26.9	51.9	19.2	1.9	2.92
		50대	50	10.2	38.8	49.0	38.8	12.2	0.0	2.53
		60대 이상	51	16.0	32.0	48.0	34.0	18.0	0.0	2.5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0.0	31.8	41.8	36.4	15.5	6.4	2.76	
	방배권	93	8.6	28.0	36.6	41.9	20.4	1.1	2.77	
	서초권	218	10.6	29.5	40.1	41.9	15.7	2.3	2.70	
	양재/내곡권	78	16.7	23.1	39.8	41.0	16.7	2.6	2.65	
경제활동	취업	369	10.3	29.1	39.4	39.1	17.9	3.5	2.75	
	비취업	131	13.1	27.7	40.8	44.6	13.1	1.5	2.62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7.7	26.2	33.9	42.3	19.0	4.8	2.87	
	기혼	325	12.6	29.8	42.4	39.7	15.7	2.2	2.65	
	기타	7	20.0	40.0	60.0	40.0	0.0	0.0	2.20	
자녀유무	있다	317	11.7	28.6	40.3	40.3	16.5	2.9	2.70	
	없다	183	9.8	29.0	38.8	41.0	16.9	3.3	2.75	

(4) 서초구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구민중심의 정책결정

‘서초구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민중심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34.1%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18.5%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14점임. 성별로 여성은 ‘공정하다’는 응답률이 26.8%로 남성 41.9% 비해 15.1%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공정하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5점 척도 일 때 3.31점이며 다음이 20대 3.22점, 30대 3.17점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20대가 3.15점으로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 3.54점으로 긍정적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반포/잠원권과 서초권이 구민중심의 정책결정에 대한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17] 구민중심의 정책결정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4.4	14.1	47.4	30.9	3.2	3.14	
성별	여성	257	3.9	14.4	54.9	24.5	2.3	3.07	
	남성	243	5.0	13.7	39.4	37.8	4.1	3.22	
연령대	20대 이하	92	2.2	17.4	40.2	37.0	3.3	3.22	
	30대	95	4.2	16.8	42.1	31.6	5.3	3.17	
	40대	107	0.9	12.1	45.8	37.4	3.7	3.31	
	50대	100	6.1	12.1	53.5	27.3	1.0	3.05	
	60대 이상	106	8.6	12.4	54.3	21.9	2.9	2.98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7	0.0	14.9	55.3	29.8	0.0	3.15
		30대	50	4.0	22.0	44.0	24.0	6.0	3.06
		40대	55	0.0	16.4	60.0	21.8	1.8	3.09
		50대	50	6.0	12.0	54.0	26.0	2.0	3.06
		60대 이상	55	9.1	7.3	60.0	21.8	1.8	3.00
	남성	20대 이하	45	4.4	20.0	24.4	44.4	6.7	3.29
		30대	45	4.4	11.1	40.0	40.0	4.4	3.29
		40대	52	1.9	7.7	30.8	53.8	5.8	3.54
		50대	50	6.1	12.2	53.1	28.6	0.0	3.04
		60대 이상	51	8.0	18.0	48.0	22.0	4.0	2.9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8	10.0	53.6	31.8	2.7	3.24	
	방배권	93	5.4	18.3	52.7	20.4	3.2	2.98	
	서초권	218	3.7	15.7	41.5	35.9	3.2	3.19	
	양재/내곡권	78	9.0	10.3	48.7	28.2	3.8	3.08	
경제활동	취업	369	3.8	15.2	45.1	31.8	4.1	3.17	
	비취업	131	6.2	10.8	53.8	28.5	0.8	3.07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8	16.7	46.4	31.0	4.2	3.19	
	기혼	325	5.5	12.9	48.0	30.8	2.8	3.12	
	기타	7	20.0	0.0	40.0	40.0	0.0	3.00	
자녀유무	있다	317	6.7	12.4	46.7	30.8	3.5	3.12	
	없다	183	0.5	16.9	48.6	31.1	2.7	3.19	

▷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서초구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33.8%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17.7%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17점임. 성별로 여성은 ‘공정하다’는 응답률이 31.5%로 남성 36.3% 비해 4.8%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공정하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와 20대 이하가 5점 척도일 때 각각 3.26점이며 다음이 30대 3.23점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20대 이하가 3.21점으로 가장 높고, 남성은 30대 3.36점으로 긍정적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18]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5.0	12.7	48.5	28.0	5.8	3.17	
성별	여성	257	4.7	14.0	49.8	27.2	4.3	3.12	
	남성	243	5.4	11.3	47.1	28.8	7.5	3.22	
연령대	20대 이하	92	1.1	13.0	50.0	30.4	5.4	3.26	
	30대	95	2.1	12.6	51.6	27.4	6.3	3.23	
	40대	107	1.9	15.0	43.0	35.5	4.7	3.26	
	50대	100	9.1	8.1	54.5	22.2	6.1	3.08	
	60대 이상	106	10.6	14.4	44.2	24.0	6.7	3.02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10.6	55.3	27.7	4.3	3.21
		30대	50	4.0	20.0	42.0	28.0	6.0	3.12
		40대	55	0.0	20.0	52.7	25.5	1.8	3.09
		50대	50	6.0	10.0	56.0	24.0	4.0	3.10
		60대 이상	55	10.9	9.1	43.6	30.9	5.5	3.11
	남성	20대 이하	45	0.0	15.6	44.4	33.3	6.7	3.31
		30대	45	0.0	4.4	62.2	26.7	6.7	3.36
		40대	52	3.8	9.6	32.7	46.2	7.7	3.44
		50대	50	12.2	6.1	53.1	20.4	8.2	3.06
		60대 이상	51	10.2	20.4	44.9	16.3	8.2	2.92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7	10.9	52.7	27.3	6.4	3.24	
	방배권	93	8.6	14.0	49.5	25.8	2.2	2.99	
	서초권	218	4.1	13.4	45.6	29.5	7.4	3.23	
	양재/내곡권	78	6.5	11.7	49.4	27.3	5.2	3.13	
경제활동	취업	369	4.6	13.9	48.4	26.9	6.3	3.16	
	비취업	131	6.2	9.3	48.8	31.0	4.7	3.19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2	11.9	54.2	27.4	5.4	3.24	
	기혼	325	6.8	13.3	45.1	28.7	6.2	3.14	
	기타	7	20.0	0.0	80.0	0.0	0.0	2.60	
자녀유무	있다	317	7.6	12.7	43.6	29.3	6.7	3.15	
	없다	183	0.5	12.6	56.8	25.7	4.4	3.21	

▷ 정보공개: 결정 과정 및 결정된 내용의 공개

‘서초구 결정 과정 및 결정된 내용의 공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37.5%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17.9%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23점임. 성별로 여성은 ‘공정하다’는 응답률이 34.2%로 남성 41.0%에 비해 6.8%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공정하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5점 척도일 때 3.42점이며 다음이 20대 3.32점, 40대 3.30점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20대가 3.28점으로 가장 높고, 남성은 30대 3.62점으로 긍정적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19] 정보공개: 결정 과정 및 결정된 내용의 공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3.8	14.1	44.6	30.0	7.5	3.23	
성별	여성	257	3.9	12.1	49.8	28.4	5.8	3.20	
	남성	243	3.8	16.3	38.9	31.8	9.2	3.26	
연령대	20대 이하	92	0.0	14.1	50.0	26.1	9.8	3.32	
	30대	95	3.2	12.6	32.6	42.1	9.5	3.42	
	40대	107	2.8	12.1	45.8	30.8	8.4	3.30	
	50대	100	3.0	14.1	47.5	30.3	5.1	3.20	
	60대 이상	106	9.7	17.5	46.6	21.4	4.9	2.94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0.0	12.8	55.3	23.4	8.5	3.28
		30대	50	4.0	16.0	38.0	36.0	6.0	3.24
		40대	55	1.8	16.4	50.9	25.5	5.5	3.16
		50대	50	2.0	6.0	56.0	30.0	6.0	3.32
		60대 이상	55	10.9	9.1	49.1	27.3	3.6	3.04
	남성	20대 이하	45	0.0	15.6	44.4	28.9	11.1	3.36
		30대	45	2.2	8.9	26.7	48.9	13.3	3.62
		40대	52	3.8	7.7	40.4	36.5	11.5	3.44
		50대	50	4.1	22.4	38.8	30.6	4.1	3.08
		60대 이상	51	8.3	27.1	43.8	14.6	6.3	2.8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8	11.9	44.0	32.1	10.1	3.37	
	방배권	93	6.5	16.1	45.2	28.0	4.3	3.08	
	서초권	218	1.8	14.7	45.6	28.6	9.2	3.29	
	양재/내곡권	78	9.1	13.0	41.6	33.8	2.6	3.08	
경제활동	취업	369	2.7	15.8	42.1	31.5	7.9	3.26	
	비취업	131	7.0	9.4	51.6	25.8	6.3	3.1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2	13.1	44.6	33.3	7.7	3.33	
	기혼	325	5.0	14.6	44.6	28.8	7.1	3.19	
	기타	7	20.0	20.0	40.0	0.0	20.0	2.80	
자녀유무	있다	317	5.8	14.4	44.1	28.1	7.7	3.18	
	없다	183	0.5	13.7	45.4	33.3	7.1	3.33	

▷ 결정된 내용이 구민에 미칠 영향의 설명

‘서초구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구민에 미칠 영향의 설명’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정하다(약간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는 31.8%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약간 불공정하다)는 18.1%로 나타남. 5점 척도로는 3.16점임. 성별로 여성은 ‘공정하다’는 응답률이 28.4%로 남성 35.4% 비해 7.0%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공정하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5점 척도일 때 3.25점이며 다음이 30대 3.24점, 40대 3.21점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여성 20대가 3.21점으로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 3.33점으로 긍정적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20] 결정된 내용이 구민에 미칠 영향의 설명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전체		500	3.8	14.3	50.1	25.4	6.4	3.16	
성별	여성	257	4.3	13.2	54.1	22.6	5.8	3.12	
	남성	243	3.3	15.4	45.8	28.3	7.1	3.20	
연령대	20대 이하	92	1.1	12.0	53.3	28.3	5.4	3.25	
	30대	95	2.1	16.8	43.2	30.5	7.4	3.24	
	40대	107	2.8	15.9	46.7	27.1	7.5	3.21	
	50대	100	4.0	15.2	49.5	25.3	6.1	3.14	
	60대 이상	106	8.7	11.5	57.7	16.3	5.8	2.99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	8.5	59.6	25.5	4.3
30대			50	2.0	18.0	48.0	24.0	8.0	3.18
40대			55	3.6	14.5	56.4	20.0	5.5	3.09
50대			50	4.0	14.0	50.0	26.0	6.0	3.16
60대 이상			55	9.1	10.9	56.4	18.2	5.5	3.00
남성		20대 이하	45	0.0	15.6	46.7	31.1	6.7	3.29
		30대	45	2.2	15.6	37.8	37.8	6.7	3.31
		40대	52	1.9	17.3	36.5	34.6	9.6	3.33
		50대	50	4.1	16.3	49.0	24.5	6.1	3.12
		60대 이상	51	8.2	12.2	59.2	14.3	6.1	2.9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8	8.3	56.0	25.7	8.3	3.30	
	방배권	93	4.3	19.4	48.4	25.8	2.2	3.02	
	서초권	218	2.8	17.1	48.4	24.4	7.4	3.17	
	양재/내곡권	78	9.0	9.0	48.7	26.9	6.4	3.13	
경제활동	취업	369	2.7	15.5	48.4	26.4	7.1	3.20	
	비취업	131	7.0	10.9	55.0	22.5	4.7	3.07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2	17.3	47.6	27.4	6.5	3.21	
	기혼	325	4.9	13.0	51.5	24.1	6.5	3.14	
	기타	7	20.0	0.0	40.0	40.0	0.0	3.00	
자녀유무	있다	317	5.4	13.1	49.7	24.5	7.3	3.15	
	없다	183	1.1	16.4	50.8	26.8	4.9	3.18	

3) 활동참여 경험 및 참여계획

(1) 서초구민 활동참여 경험

▷ 의견 혹은 정책제안(구청장/구청 온라인 소통창, 홈페이지, 전화 등)

‘서초구민으로서 의견 혹은 정책제안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경험 있다’가 30.8% ‘참여경험 없다’가 69.2%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33.2%로 남성 28.2%보다 5%p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38.9%, 50대 28.3%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50.9%로 참여경험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가 4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여성 60대는 68.8%, 남성은 90.0%가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취업을 한 경우, 기혼과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IV-3-21] 의견 혹은 정책제안(구청장/구청 온라인 소통창, 홈페이지, 전화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전체		500	30.8	69.2	
성별	여성	257	33.2	66.8	
	남성	243	28.2	71.8	
연령대	20대 이하	92	21.7	78.3	
	30대	95	38.9	61.1	
	40대	107	43.0	57.0	
	50대	100	28.3	71.7	
	60대 이상	106	20.4	79.6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47	21.3	78.7
		30대	50	32.0	68.0
		40대	55	50.9	49.1
		50대	50	28.0	72.0
		60대 이상	55	31.3	68.8
	남성	20대 이하	45	22.2	77.8
		30대	45	46.7	53.3
		40대	52	34.6	65.4
		50대	50	28.6	71.4
		60대 이상	51	10.0	9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31.8	68.2	
	방배권	93	31.4	68.6	
	서초권	218	29.5	70.5	
	양재/내곡권	78	32.1	67.9	
경제활동	취업	369	34.6	65.4	
	비취업	131	19.4	80.6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6.2	73.8	
	기혼	325	33.3	66.7	
	기타	7	20.0	80.0	
자녀유무	있다	317	33.4	66.6	
	없다	183	26.2	73.8	

▷ 정치사회적 의견달기(트윗, 보도물에 리플이나 댓글 달기 등)

‘서초구민으로서 정치사회적 의견달기(트윗, 보도물에 리플이나 댓글 달기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경험 있다’가 34.9% ‘참여경험 없다’가 65.1%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33.7%로 남성 36.1%보다 2.4%p 참여경험이 낮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46.3%, 20대 이하 29.3%로 나타남. 여성 50대는 78.0%, 남성 60대 이상은 82%가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표 IV-3-22] 정치사회적 의견달기(트윗, 보도물에 리플이나 댓글 달기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경험있다	참여 경험없다	
전체		500	34.9	65.1	
성별	여성	257	33.7	66.3	
	남성	243	36.1	63.9	
연령대	20대 이하	92	29.3	70.7	
	30대	95	46.3	53.7	
	40대	107	50.5	49.5	
	50대	100	26.3	73.7	
	60대 이상	106	20.6	79.4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3	78.7
		30대	50	46.0	54.0
		40대	55	52.7	47.3
		50대	50	22.0	78.0
		60대 이상	55	23.4	76.6
	남성	20대 이하	45	37.8	62.2
		30대	45	46.7	53.3
		40대	52	48.1	51.9
		50대	50	30.6	69.4
		60대 이상	51	18.0	82.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5.7	74.3	
	방배권	93	37.2	62.8	
	서초권	218	37.3	62.7	
	양재/내곡권	78	38.5	61.5	
경제활동	취업	369	37.6	62.4	
	비취업	131	26.8	73.2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35.1	64.9	
	기혼	325	34.7	65.3	
	기타	7	40.0	60.0	
자녀유무	있다	317	35.5	64.5	
	없다	183	33.9	66.1	

▷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동 차원의 지역활동)

‘서초구민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동 차원의 지역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 경험 있다’가 31.1% ‘참여경험 없다’가 68.9%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32.7%로 남성 29.4%보다 3.3%p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40대 36.4%, 20대 이하 31.5%로 나타남. 여성 50대는 74.0%, 남성 60대 이상은 74.5%가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표 Ⅳ-3-23]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동 차원의 지역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전체		500	31.1	68.9	
성별	여성	257	32.7	67.3	
	남성	243	29.4	70.6	
연령대	20대 이하	92	31.5	68.5	
	30대	95	37.9	62.1	
	40대	107	36.4	63.6	
	50대	100	22.2	77.8	
	60대 이상	106	26.9	73.1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7.7	72.3
		30대	50	40.0	60.0
		40대	55	40.0	60.0
		50대	50	26.0	74.0
		60대 이상	55	28.3	71.7
	남성	20대 이하	45	35.6	64.4
		30대	45	35.6	64.4
		40대	52	32.7	67.3
		50대	50	18.4	81.6
		60대 이상	51	25.5	74.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4.8	75.2	
	방배권	93	38.1	61.9	
	서초권	218	30.9	69.1	
	양재/내곡권	78	32.9	67.1	
경제활동	취업	369	31.3	68.7	
	비취업	131	30.3	69.7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33.3	66.7	
	기혼	325	30.4	69.6	
	기타	7	0.0	100.0	
자녀유무	있다	317	30.4	69.6	
	없다	183	32.2	67.8	

▷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

‘서초구민으로서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경험 있다’가 13.4% ‘참여경험 없다’가 86.6%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13.7%로 남성 13.0%보다 0.7%p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가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40대 15.9%, 20대 이하가 14.1%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이 17.4%로 참여경험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가 2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취업,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활동 참여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24]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전체		500	13.4	86.6	
성별	여성	257	13.7	86.3	
	남성	243	13.0	87.0	
연령대	20대 이하	92	14.1	85.9	
	30대	95	18.9	81.1	
	40대	107	15.9	84.1	
	50대	100	8.1	91.9	
	60대 이상	106	9.7	90.3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6.4	93.6
		30대	50	14.0	86.0
		40대	55	16.4	83.6
		50대	50	14.0	86.0
		60대 이상	55	17.4	82.6
	남성	20대 이하	45	22.2	77.8
		30대	45	24.4	75.6
		40대	52	15.4	84.6
		50대	50	2.0	98.0
		60대 이상	51	2.1	97.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2.8	87.2	
	방배권	93	22.4	77.6	
	서초권	218	12.0	88.0	
	양재/내곡권	78	8.0	92.0	
경제활동	취업	369	15.5	84.5	
	비취업	131	6.7	93.3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3.1	86.9	
	기혼	325	13.7	86.3	
	기타	7	0.0	100.0	
자녀유무	있다	317	14.9	85.1	
	없다	183	10.9	89.1	

▷ 지역 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

‘서초구민으로서 지역 동아리, 동호회, 모임 참여 경험에 있는가’에 대해 ‘참여경험 있다’가 40.3% ‘참여경험 없다’가 59.7%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41.2%로 남성 39.4%보다 1.8%p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47.4%, 20대 이하가 35.9%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54.5%로 참여경험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20대 이하가 5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취업,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활동 참여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25] 지역 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전체		500	40.3	59.7	
성별	여성	257	41.2	58.8	
	남성	243	39.4	60.6	
연령대	20대 이하	92	35.9	64.1	
	30대	95	47.4	52.6	
	40대	107	50.5	49.5	
	50대	100	32.3	67.7	
	60대 이상	106	34.7	65.3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1.3	78.7
		30대	50	46.0	54.0
		40대	55	54.5	45.5
		50대	50	46.0	54.0
		60대 이상	55	35.4	64.6
	남성	20대 이하	45	51.1	48.9
		30대	45	48.9	51.1
		40대	52	46.2	53.8
		50대	50	18.4	81.6
		60대 이상	51	34.0	66.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33.9	66.1	
	방배권	93	43.7	56.3	
	서초권	218	42.4	57.6	
	양재/내곡권	78	39.7	60.3	
경제활동	취업	369	41.1	58.9	
	비취업	131	37.9	62.1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38.1	61.9	
	기혼	325	41.5	58.5	
	기타	7	40.0	60.0	
자녀유무	있다	317	42.9	57.1	
	없다	183	36.1	63.9	

▷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댓글 및 게시글)

‘서초구민으로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댓글 및 게시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경험 있다’가 42.5% ‘참여경험 없다’가 57.5%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45.6%로 남성 39.4%보다 6.2%p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47.4%, 20대 이하가 44.6%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67.3%로 참여경험이 가장 높았고, 남성도 40대가 5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서초권과 양재/내곡권, 취업, 비혼, 자녀가 없는 경우, 활동 참여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26]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전체		500	42.5	57.5	
성별	여성	257	45.6	54.4	
	남성	243	39.4	60.6	
연령대	20대 이하	92	44.6	55.4	
	30대	95	47.4	52.6	
	40대	107	63.6	36.4	
	50대	100	34.3	65.7	
	60대 이상	106	20.8	79.2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44.7	55.3
		30대	50	50.0	50.0
		40대	55	67.3	32.7
		50대	50	40.0	60.0
		60대 이상	55	21.7	78.3
	남성	20대 이하	45	44.4	55.6
		30대	45	44.4	55.6
		40대	52	59.6	40.4
		50대	50	28.6	71.4
		60대 이상	51	20.0	8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33.9	66.1	
	방배권	93	40.7	59.3	
	서초권	218	46.5	53.5	
	양재/내곡권	78	45.5	54.5	
경제활동	취업	369	47.3	52.7	
	비취업	131	28.5	71.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47.0	53.0	
	기혼	325	40.5	59.5	
	기타	7	20.0	80.0	
자녀유무	있다	317	39.9	60.1	
	없다	183	47.0	53.0	

▷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

‘서초구민으로서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경험 있다’가 31.6% ‘참여경험 없다’가 68.4%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30.6%로 남성 32.5%보다 1.9%p 참여경험이 낮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0대 이하가 31.5%, 50대 가 28.3%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40.0%로 참여경험이 가장 높았고, 남성도 40대가 4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방배권, 기촌, 자녀가 있는 경우, 지역자원봉사 활동 참여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27]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전체		500	31.6	68.4	
성별	여성	257	30.6	69.4	
	남성	243	32.5	67.5	
연령대	20대 이하	92	31.5	68.5	
	30대	95	26.3	73.7	
	40대	107	43.0	57.0	
	50대	100	28.3	71.7	
	60대 이상	106	27.4	72.6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23.4	76.6
		30대	50	22.0	78.0
		40대	55	40.0	60.0
		50대	50	38.0	62.0
		60대 이상	55	28.3	71.7
	남성	20대 이하	45	40.0	60.0
		30대	45	31.1	68.9
		40대	52	46.2	53.8
		50대	50	18.4	81.6
		60대 이상	51	26.5	73.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24.5	75.5	
	방배권	93	40.0	60.0	
	서초권	218	32.3	67.7	
	양재/내곡권	78	30.3	69.7	
경제활동	취업	369	33.3	66.7	
	비취업	131	26.2	73.8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7.4	72.6	
	기혼	325	34.0	66.0	
	기타	7	20.0	80.0	
자녀유무	있다	317	34.8	65.2	
	없다	183	26.2	73.8	

▷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

‘서초구민으로서 지역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경험 있다’가 20.9% ‘참여경험 없다’가 79.1%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21.7%로 남성 20.0%보다 1.7%p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60대 이상 21.9%, 50대 21.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27.3%로 참여경험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가 2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방배권과 양재/내곡권,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지역시민단체 활동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IV-3-28]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 경험 있다	참여 경험 없다	
전체		500	20.9	79.1	
성별	여성	257	21.7	78.3	
	남성	243	20.0	80.0	
연령대	20대 이하	92	15.2	84.8	
	30대	95	21.1	78.9	
	40대	107	24.3	75.7	
	50대	100	21.2	78.8	
	60대 이상	106	21.9	78.1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7	10.6	89.4
		30대	50	20.0	80.0
		40대	55	27.3	72.7
		50대	50	24.0	76.0
		60대 이상	55	25.5	74.5
	남성	20대 이하	45	20.0	80.0
		30대	45	22.2	77.8
		40대	52	21.2	78.8
		50대	50	18.4	81.6
		60대 이상	51	18.4	81.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5.6	84.4	
	방배권	93	30.2	69.8	
	서초권	218	18.9	81.1	
	양재/내곡권	78	23.4	76.6	
경제활동	취업	369	21.3	78.7	
	비취업	131	19.7	80.3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14.9	85.1	
	기혼	325	23.4	76.6	
	기타	7	60.0	40.0	
자녀유무	있다	317	24.5	75.5	
	없다	183	14.8	85.2	

(2) 구정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경험이 없는 이유

▷ 구정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경험 없는 이유

‘참여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참여 방법을 몰라서’ 30.0%, ‘관련 정보가 없다’가 19.3%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참여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38.4%로 남성 21.4%보다, 17%p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적 여유가 없다’의 경우, 남성이 44.6%로 여성 30.6%보다 14%p 높게 나타남. ‘관심이 없다’의 경우도 남성(9.8%)이 여성(4.3%)보다 5.6%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참여방법을 모른다’가 54.1%,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40대, 20대 이하가 각각 50.0%, 49.4% 높게 나타남. 양재/내곡권, 취업, 비혼(또는 미혼), 자녀가 있을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V-3-29] 구정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관련 정보가 없다	② 참여 방법을 모른다	③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④ 관심이 없다	⑤ 코로나 시국에 활동하기 어렵다	⑥ 기타
전체		456	19.3	30.0	37.5	7.0	5.9	0.2
성별	여성	232	22.4	38.4	30.6	4.3	4.3	0.0
	남성	224	16.1	21.4	44.6	9.8	7.6	0.4
연령대	20대 이하	87	14.9	21.8	49.4	8.0	5.7	0.0
	30대	85	29.4	54.1	16.5	0.0	0.0	0.0
	40대	98	21.4	28.6	50.0	0.0	0.0	0.0
	50대	96	13.5	15.6	45.8	19.8	5.2	0.0
	60대 이상	90	17.8	32.2	23.3	6.7	18.9	1.1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5	15.6	37.8	46.7	0.0	0.0
		30대	44	29.5	61.4	9.1	0.0	0.0
		40대	49	32.7	40.8	26.5	0.0	0.0
		50대	48	16.7	20.8	45.8	16.7	0.0
		60대 이상	46	17.4	32.6	23.9	4.3	21.7
	남성	20대 이하	42	14.3	4.8	52.4	16.7	11.9
		30대	41	29.3	46.3	24.4	0.0	0.0
		40대	49	10.2	16.3	73.5	0.0	0.0
		50대	48	10.4	10.4	45.8	22.9	10.4
		60대 이상	44	18.2	31.8	22.7	9.1	15.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02	19.6	32.4	27.5	9.8	10.8	0.0
	방배권	76	17.1	36.8	30.3	5.3	10.5	0.0
	서초권	204	21.6	27.9	39.7	7.4	3.4	0.0
	양재/내곡권	74	14.9	25.7	52.7	4.1	1.4	1.4
경제활동	취업	336	17.9	29.5	44.0	4.8	3.6	0.3
	비취업	120	23.3	31.7	19.2	13.3	12.5	0.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58	19.0	31.6	39.2	7.0	3.2	0.0
	기혼	293	19.1	29.0	37.2	6.8	7.5	0.3
	기타	5	40.0	40.0	0.0	20.0	0.0	0.0
자녀유무	있다	282	16.7	29.1	39.7	6.7	7.4	0.4
	없다	174	23.6	31.6	33.9	7.5	3.4	0.0

주: 서초구민 활동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

(3) 서초구민 활동참여 계획

▷ 의견 혹은 정책제안 참여계획

‘서초구민으로서 의견 혹은 정책제안 활동에 참여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계획 있다’가 55.1% ‘참여계획 없다’가 44.9%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60.4%로 남성 50.0%보다 10.4%p ‘참여계획 있다’가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62.1%, 20대 이하가 55.6%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81.5%로 참여계획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가 5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여성 60대는 60.0%, 남성은 50대 62.9%가 참여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표 IV-3-30] 의견 혹은 정책제안 참여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계획 있다	참여계획 없다	
전체		340	55.1	44.9	
성별	여성	167	60.4	39.6	
	남성	173	50.0	50.0	
연령대	20대 이하	72	55.6	44.4	
	30대	58	62.1	37.9	
	40대	61	67.2	32.8	
	50대	71	49.3	50.7	
	60대 이상	78	42.9	57.1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37	54.1
30대			34	64.7	35.3
40대			27	81.5	18.5
50대			36	61.1	38.9
60대 이상			33	40.0	60.0
남성		20대 이하	35	57.1	42.9
		30대	24	58.3	41.7
		40대	34	55.9	44.1
		50대	35	37.1	62.9
		60대 이상	45	44.7	55.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75	52.8	47.2	
	방배권	59	55.6	44.4	
	서초권	153	58.0	42.0	
	양재/내곡권	53	49.0	51.0	
	경제활동	취업	240	55.6	44.4
비취업		100	53.5	46.5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24	55.6	44.4	
	기혼	212	54.8	45.2	
	기타	4	50.0	50.0	
자녀유무	있다	205	54.2	45.8	
	없다	135	56.3	43.7	

주: 의견 혹은 정책제안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참여계획

‘서초구민으로서 정치사회적 의견달기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계획 있다’가 45.4% ‘참여계획 없다’가 54.6%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50.6%로 남성 39.9%보다 10.7%p ‘참여계획 있다’가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0대 이하 49.2%, 30대 49.0%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20대가 56.8%로 참여계획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40대가 4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서초권, 취업, 기혼, 자녀가 없는 경우, 활동 참여계획이 높게 나타남.

[표 IV-3-31]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참여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계획 있다	참여계획 없다	
전체		319	45.4	54.6	
성별	여성	165	50.6	49.4	
	남성	154	39.9	60.1	
연령대	20대 이하	65	49.2	50.8	
	30대	51	49.0	51.0	
	40대	53	50.9	49.1	
	50대	73	42.5	57.5	
	60대 이상	77	37.1	62.9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37	56.8	43.2
		30대	27	55.6	44.4
		40대	26	53.8	46.2
		50대	39	53.8	46.2
		60대 이상	36	29.6	70.4
	남성	20대 이하	28	39.3	60.7
		30대	24	41.7	58.3
		40대	27	48.1	51.9
		50대	34	29.4	70.6
		60대 이상	41	42.9	57.1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81	44.9	55.1	
	방배권	54	34.7	65.3	
	서초권	136	55.3	44.7	
	양재/내곡권	48	28.9	71.1	
경제활동	취업	229	48.2	51.8	
	비취업	90	36.8	63.2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09	44.0	56.0	
	기혼	207	46.4	53.6	
	기타	3	33.3	66.7	
자녀유무	있다	198	43.2	56.8	
	없다	121	48.8	51.2	

주: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계획

‘서초구민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참여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계획 있다’가 38.3% ‘참여계획 없다’가 61.7%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43.5%로 남성 33.3%보다 10.2%p ‘참여계획 있다’가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47.5%, 50대 36.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60.5%로 참여계획이 가장 높았고, 남성도 40대가 4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반포/잠원권과 서초권,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활동 참여계획이 높게 나타남.

[표 IV-3-32]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계획 있다	참여계획 없다	
전체		335	38.3	61.7	
성별	여성	167	43.5	56.5	
	남성	168	33.3	66.7	
연령대	20대 이하	63	30.2	69.8	
	30대	59	47.5	52.5	
	40대	68	50.0	50.0	
	50대	77	36.4	63.6	
	60대 이상	68	27.1	72.9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34	26.5	73.5
		30대	30	56.7	43.3
		40대	33	60.6	39.4
		50대	37	48.6	51.4
		60대 이상	33	22.2	77.8
	남성	20대 이하	29	34.5	65.5
		30대	29	37.9	62.1
		40대	35	40.0	60.0
		50대	40	25.0	75.0
		60대 이상	35	31.3	68.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82	43.0	57.0	
	방배권	52	25.5	74.5	
	서초권	150	42.9	57.1	
	양재/내곡권	51	30.6	69.4	
경제활동	취업	252	38.2	61.8	
	비취업	83	38.7	61.3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12	33.0	67.0	
	기혼	218	41.1	58.9	
	기타	5	40.0	60.0	
자녀유무	있다	211	40.6	59.4	
	없다	124	34.7	65.3	

주: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계획

‘서초구민으로서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계획 있다’가 40.9% ‘참여계획 없다’가 59.1%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46.9%로 남성 34.8%보다 12.1%p ‘참여계획 있다’가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44.2%, 50대 40.7%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58.7% 참여계획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가 4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반포/잠원권과 서초권, 비취업,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활동 참여계획이 높게 나타남.

[표 IV-3-33]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계획 있다	참여계획 없다	
전체		421	40.9	59.1	
성별	여성	214	46.9	53.1	
	남성	207	34.8	65.2	
연령대	20대 이하	79	32.9	67.1	
	30대	77	44.2	55.8	
	40대	90	48.9	51.1	
	50대	91	40.7	59.3	
	60대 이상	84	36.6	63.4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4	36.4	63.6
		30대	43	46.5	53.5
		40대	46	58.7	41.3
		50대	43	51.2	48.8
		60대 이상	38	38.7	61.3
	남성	20대 이하	35	28.6	71.4
		30대	34	41.2	58.8
		40대	44	38.6	61.4
		50대	48	31.3	68.8
		60대 이상	46	35.0	65.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95	42.4	57.6	
	방배권	66	39.3	60.7	
	서초권	191	42.0	58.0	
	양재/내곡권	69	37.3	62.7	
경제활동	취업	310	40.5	59.5	
	비취업	111	42.4	57.6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46	31.5	68.5	
	기혼	270	46.3	53.7	
	기타	5	40.0	60.0	
자녀유무	있다	258	44.9	55.1	
	없다	163	35.0	65.0	

주: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 지역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계획

‘서초구민으로서 지역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계획 있다’가 39.4% ‘참여계획 없다’가 60.6%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39.0%로 남성 39.9%보다 참여계획이 약간 저조하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47.5%, 50대 36.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56.0%로 참여계획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가 5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34] 지역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계획 있다	참여계획 없다	
전체		293	39.4	60.6	
성별	여성	147	39.0	61.0	
	남성	146	39.9	60.1	
연령대	20대 이하	59	33.9	66.1	
	30대	50	52.0	48.0	
	40대	53	50.9	49.1	
	50대	67	35.8	64.2	
	60대 이상	64	27.3	72.7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37	29.7	70.3
		30대	27	51.9	48.1
		40대	25	56.0	44.0
		50대	27	40.7	59.3
		60대 이상	31	20.0	80.0
	남성	20대 이하	22	40.9	59.1
		30대	23	52.2	47.8
		40대	28	46.4	53.6
		50대	40	32.5	67.5
		60대 이상	33	33.3	66.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72	29.0	71.0	
	방배권	49	41.7	58.3	
	서초권	125	39.7	60.3	
	양재/내곡권	47	52.2	47.8	
경제활동	취업	216	41.7	58.3	
	비취업	77	32.4	67.6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04	39.4	60.6	
	기혼	186	40.1	59.9	
	기타	3	0.0	100.0	
자녀유무	있다	176	38.9	61.1	
	없다	117	40.2	59.8	

주: 지역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계획

‘서초구민으로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계획 있다’가 44.4% ‘참여계획 없다’가 55.6%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47.2%로 남성 41.7%보다 5.5%p ‘참여계획 있다’가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40대 48.7%, 50대 44.6%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30대가 76.0%로 참여계획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40대가 5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서초권, 취업,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계획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35]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계획 있다	참여계획 없다	
전체		281	44.4	55.6	
성별	여성	135	47.2	52.8	
	남성	146	41.7	58.3	
연령대	20대 이하	51	35.3	64.7	
	30대	50	60.0	40.0	
	40대	39	48.7	51.3	
	50대	65	44.6	55.4	
	60대 이상	76	36.1	63.9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26	34.6	65.4
		30대	25	76.0	24.0
		40대	18	38.9	61.1
		50대	30	53.3	46.7
		60대 이상	36	32.1	67.9
	남성	20대 이하	25	36.0	64.0
		30대	25	44.0	56.0
		40대	21	57.1	42.9
		50대	35	37.1	62.9
		60대 이상	40	39.4	60.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72	42.0	58.0	
	방배권	51	45.7	54.3	
	서초권	116	48.2	51.8	
	양재/내곡권	42	35.9	64.1	
경제활동	취업	193	47.2	52.8	
	비취업	88	37.0	63.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89	39.3	60.7	
	기혼	188	48.0	52.0	
	기타	4	0.0	100.0	
자녀유무	있다	184	46.2	53.8	
	없다	97	41.2	58.8	

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계획

‘서초구민으로서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계획 있다’가 42.7% ‘참여계획 없다’가 57.3%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45.1%로 남성 40.3%보다 4.8%p ‘참여계획 있다’가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51.4%, 20대 이하 39.7%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60.6%로 참여계획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가 4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36]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계획 있다	참여계획 없다	
전체		334	42.7	57.3	
성별	여성	172	45.1	54.9	
	남성	162	40.3	59.7	
연령대	20대 이하	63	39.7	60.3	
	30대	70	51.4	48.6	
	40대	61	54.1	45.9	
	50대	71	38.0	62.0	
	60대 이상	69	29.3	70.7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36	36.1	63.9
		30대	39	53.8	46.2
		40대	33	60.6	39.4
		50대	31	45.2	54.8
		60대 이상	33	24.0	76.0
	남성	20대 이하	27	44.4	55.6
		30대	31	48.4	51.6
		40대	28	46.4	53.6
		50대	40	32.5	67.5
		60대 이상	36	33.3	66.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83	40.5	59.5	
	방배권	51	34.7	65.3	
	서초권	147	47.9	52.1	
	양재/내곡권	53	39.2	60.8	
	경제활동	취업	244	42.6	57.4
	비취업	90	43.0	57.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22	41.8	58.2	
	기혼	208	43.1	56.9	
	기타	4	50.0	50.0	
자녀유무	있다	199	42.6	57.4	
	없다	135	43.0	57.0	

주: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계획

‘서초구민으로서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계획 있다’가 32.0% ‘참여계획 없다’가 68.0%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34.2%로 남성 29.3%보다 4.9%p ‘참여계획 있다’가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30대 42.7%, 50대와 20대 이하가 각각 24.4%로 유사하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40대가 52.5%로 참여계획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가 4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서초권, 비취업,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지역시민단체 활동 참여계획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37]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계획 있다	참여계획 없다	
전체		387	32.0	68.0	
성별	여성	195	34.2	65.8	
	남성	192	29.8	70.2	
연령대	20대 이하	78	24.4	75.6	
	30대	75	42.7	57.3	
	40대	81	44.4	55.6	
	50대	78	24.4	75.6	
	60대 이상	75	22.2	77.8	
성별 *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42	21.4	78.6
		30대	40	45.0	55.0
		40대	40	52.5	47.5
		50대	38	26.3	73.7
		60대 이상	35	22.2	77.8
	남성	20대 이하	36	27.8	72.2
		30대	35	40.0	60.0
		40대	41	36.6	63.4
		50대	40	22.5	77.5
		60대 이상	40	22.2	77.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92	27.0	73.0	
	방배권	60	24.6	75.4	
	서초권	176	39.5	60.5	
	양재/내곡권	59	24.6	75.4	
경제활동	취업	289	30.6	69.4	
	비취업	98	36.8	63.2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43	25.9	74.1	
	기혼	242	36.1	63.9	
	기타	2	0.0	100.0	
자녀유무	있다	231	33.8	66.2	
	없다	156	29.5	70.5	

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4)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의 활동참여 변화

▷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의 활동참여 변화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의 활동참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참여방식이 달라졌다(온라인/비대면 등)’이 3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참여 횟수가 줄었다’ 23.6%, ‘참여관심 분야가 달라졌다(건강, 안전문제 등)’이 14.5%로 나타남. ‘참여관심 분야’에 대해 여성이 18%로 남성(10.9%)보다 7.1%p 높게 나타났고, ‘변화가 없다’의 경우, 남성이 18.8%로 응답하여 여성(9.4%)보다 9.4%p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참여방식 변화’에 대해 40대가 55.1%, 30대가 44.2%, 20대 이하가 33.7%로 높게 응답함. 50대와 60대 남성은 ‘변화가 없다’에 대해 각각 26.5%, 27.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38]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 활동참여 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참여 횟수가 줄었다	② 참여 방식이 달라졌다 (온라인 /비대면 등)	③ 참여관심 분야가 달라졌다 (건강, 안전문제 등)	④ 변화가 없다	⑤ 관심이 없다	
전체		500	23.6	38.0	14.5	13.9	9.9	
성별	여성	257	24.2	39.1	18.0	9.4	9.4	
	남성	243	23.0	36.8	10.9	18.8	10.5	
연령대	20대 이하	92	25.0	33.7	19.6	10.9	10.9	
	30대	95	28.4	44.2	9.5	10.5	7.4	
	40대	107	18.7	55.1	14.0	9.3	2.8	
	50대	100	20.2	29.3	17.2	20.2	13.1	
	60대 이상	106	26.5	26.5	12.7	18.6	15.7	
성 별 * 연 령 별	여성	20대 이하	47	21.3	38.3	21.3	10.6	8.5
		30대	50	30.0	40.0	14.0	10.0	6.0
		40대	55	20.0	56.4	18.2	1.8	3.6
		50대	50	20.0	34.0	22.0	14.0	10.0
		60대 이상	55	29.6	25.9	14.8	11.1	18.5
	남성	20대 이하	45	28.9	28.9	17.8	11.1	13.3
		30대	45	26.7	48.9	4.4	11.1	8.9
		40대	52	17.3	53.8	9.6	17.3	1.9
		50대	50	20.4	24.5	12.2	26.5	16.3
		60대 이상	51	22.9	27.1	10.4	27.1	12.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7.4	42.2	13.8	15.6	11.0	
	방배권	93	16.5	39.6	20.9	11.0	12.1	
	서초권	218	30.9	34.1	12.4	15.2	7.4	
	양재/내곡권	78	20.5	41.0	14.1	11.5	12.8	
경제활동	취업	369	23.1	40.5	14.4	13.6	8.4	
	비취업	131	25.2	30.7	15.0	15.0	14.2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2.6	39.9	16.7	10.7	10.1	
	기혼	325	24.5	37.0	13.4	15.5	9.6	
	기타	7	0.0	40.0	20.0	20.0	20.0	
자녀유무	있다	317	23.4	37.5	14.1	15.1	9.9	
	없다	183	24.0	38.8	15.3	12.0	9.8	

4) 구정참여를 위한 정책수요

▷ 가장 필요한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 지원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서초구민은 ‘지역 소식 홍보 다각화’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이 ‘온라인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 활성화(게시판, 어플 등)’이 26.0%, ‘정보의 공개 및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24.0% 순임. 성별로 남성이 ‘지역소식 홍보 다각화’에서 32.6%로 여성(30.7%)보다 1.9%p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온라인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 활성화’에서 28.0%로 남성(23.8%)보다 4.2%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여성 20대 이하가 온라인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이 46.8%가 높게 나타남.

[표 IV-3-39] 가장 필요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정보의 공개 및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② 지역 소식 홍보 다각화	③ 온라인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 활성화 (게시판, 어플 등)	④ 지역 주민간담회, 정책설명회 활성화	⑤ 구민 모니터링 활성화	⑥ 기타	
전체		500	24.0	31.7	26.0	13.3	4.4	0.6	
성별	여성	257	23.7	30.7	28.0	12.5	4.3	0.8	
	남성	243	24.3	32.6	23.8	14.2	4.6	0.4	
연령대	20대 이하	92	14.1	32.6	37.0	15.2	1.1	0.0	
	30대	95	23.2	35.8	32.6	5.3	3.2	0.0	
	40대	107	26.2	32.7	24.3	9.3	5.6	1.9	
	50대	100	31.3	25.3	24.2	15.2	4.0	0.0	
	60대 이상	106	24.3	32.0	13.6	21.4	7.8	1.0	
	성별 * 연령대	20대 이하	47	10.6	34.0	46.8	8.5	0.0	0.0
성별 * 연령대	여성	30대	50	28.0	32.0	28.0	8.0	4.0	0.0
		40대	55	30.9	29.1	23.6	9.1	5.5	1.8
		50대	50	22.0	30.0	22.0	20.0	6.0	0.0
		60대 이상	55	25.5	29.1	21.8	16.4	5.5	1.8
		20대 이하	45	17.8	31.1	26.7	22.2	2.2	0.0
	남성	30대	45	17.8	40.0	37.8	2.2	2.2	0.0
		40대	52	21.2	36.5	25.0	9.6	5.8	1.9
		50대	50	40.8	20.4	26.5	10.2	2.0	0.0
		60대 이상	51	22.9	35.4	4.2	27.1	10.4	0.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30.3	32.1	21.1	11.0	4.6
방배권	93		22.8	31.5	26.1	17.4	1.1	1.1	
서초권	218		20.7	33.2	29.0	12.9	3.7	0.5	
양재/내곡권	78		25.6	26.9	24.4	12.8	10.3	0.0	
경제활동	취업	369	22.3	33.2	28.0	11.7	4.1	0.8	
	비취업	131	28.9	27.3	20.3	18.0	5.5	0.0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0.2	33.3	33.3	10.1	2.4	0.6	
	기혼	325	26.0	31.3	21.7	15.2	5.3	0.6	
	기타	7	20.0	0.0	60.0	0.0	20.0	0.0	
자녀유무	있다	317	25.2	28.8	23.0	16.6	5.8	0.6	
	없다	183	21.9	36.6	31.1	7.7	2.2	0.5	

▷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초구에서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와 관련하여 서초구민은 ‘지역구 활동 및 인적네트워크 기회 확대’를 전체 응답자의 38.0%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이 ‘여성, 청년 정치활동가 지원’이 20.4%, ‘여성후보자 공천확대’ 15.8% 순임. 성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지역구 활동 및 인적네트워크 기회 확대가 각 34.6%, 41.6%로 남성이 여성보다 7%p 높게 나타남. 이 문항에 대해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42.4%, 40.0%로 높게 응답함.

[표 IV-3-40]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여성, 청년 정치활동가 지원	②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③ 지역구 활동 및 인적 네트워크 기회 확대	④ 정치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⑤ 주민자치 활동가의 활동 지원 등	⑥ 기타	
전체		500	20.4	15.8	38.0	10.1	14.5	1.2	
성별	여성	257	24.9	15.6	34.6	8.6	15.2	1.2	
	남성	243	15.5	16.0	41.6	11.8	13.9	1.3	
연령대	20대 이하	92	18.5	19.6	42.4	13.0	5.4	1.1	
	30대	95	27.4	17.9	40.0	6.3	7.4	1.1	
	40대	107	23.4	19.6	35.5	10.3	9.3	1.9	
	50대	100	18.2	13.1	34.3	12.1	22.2	0.0	
	60대 이상	106	14.7	8.8	38.2	8.8	27.5	2.0	
	성별 * 연령별	여성	20대 이하	47	25.5	17.0	42.6	10.6	4.3
30대			50	32.0	14.0	38.0	8.0	6.0	2.0
40대			55	32.7	21.8	23.6	7.3	10.9	3.6
50대			50	22.0	16.0	34.0	6.0	22.0	0.0
60대 이상			55	12.7	9.1	36.4	10.9	30.9	0.0
남성		20대 이하	45	11.1	22.2	42.2	15.6	6.7	2.2
		30대	45	22.2	22.2	42.2	4.4	8.9	0.0
		40대	52	13.5	17.3	48.1	13.5	7.7	0.0
		50대	50	14.3	10.2	34.7	18.4	22.4	0.0
		60대 이상	51	17.0	8.5	40.4	6.4	23.4	4.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1	18.3	11.9	38.5	9.2	20.2	1.8	
	방배권	93	20.9	16.5	38.5	7.7	14.3	2.2	
	서초권	218	19.4	18.9	38.2	11.5	11.1	0.9	
	양재/내곡권	78	25.6	11.5	35.9	10.3	16.7	0.0	
경제활동	취업	369	21.8	16.1	37.9	9.8	13.1	1.4	
	비취업	131	16.4	14.8	38.3	10.9	18.8	0.8	
결혼여부	비혼 또는 미혼	168	23.8	16.1	41.7	7.7	9.5	1.2	
	기혼	325	18.9	14.9	36.6	11.5	16.8	1.2	
	기타	7	0.0	60.0	0.0	0.0	40.0	0.0	
자녀유무	있다	317	18.9	15.7	36.9	11.5	15.7	1.3	
	없다	183	23.0	15.8	39.9	7.7	12.6	1.1	

4

의사결정분야 특성

1) 서초구 의사결정분야에서 여성참여 현황

- 서초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당선자 수를 제18대에서 제21대 보궐선거까지 살펴보면, 서초구 당선인은 서초구 갑, 을의 2명 중, 제19대를 제외하고 여성의원 1명(50.0%)으로 성비균형을 유지해 옴. 서초구 구청장의 경우, 제8회까지의 당선자를 살펴보면, 제6회와 제7회에 걸쳐 여성구청장이 당선된 바 있음. 서초구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 당선인 비율은 제8회 기준 전체 14명 중 여성 4명으로 28.6%에 불과함.
- 최근 3년간(2019년~2021년)의 서초구 성별 및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성대비 여성 공무원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57.0%에서 2021년 60.0%로 증가 추이에 있음. 한편 전체 공무원 중 남성 공무원은 2019년 43.0%에서 2021년 40.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까지는 여성비율이 높고, 5급 이상부터는 남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초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2019~2021)을 살펴보면, 남성위원 비율이 다수로 나타나며, 위원장의 비율은 대부분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년 전체 위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2.0%, 2021년 40.0%로 나타남. 위원장의 경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매해 전체 위원장 총 18명 중 여성위원장은 1명(6%)에 불과함.
- 한편, 「서초통계연보」에 의하면, 서초구 자원봉사자 현황은 최근 3년간(2018~2020) 여성과 남성 각각 참여 현황 비율을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여성은 58.7%, 남성은 41.3%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4p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2020년의 경우 20대가 3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9세 이하로 27.3%를 차지함.
- 또한 서울 서베이 데이터 자료에 근거한 ‘지역사회 소속감’과 관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에 대해 ‘잘 알고 지내는 편’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여성이 29.3%로 남성 26.7%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서

을시 전체의 긍정적 응답률이 20.7%인데 비해 서초구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또한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대해, 여성이 14.6%, 남성보다 (13.8%)로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여 여성이 비교적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서베이」(2021)자료에 근거한 서초구 사회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사회적 의견달기(19.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민원제안 및 제기(15.1%), 정책제안(6.8%)으로 나타남. 한편 서울시의 경우, 정치사회적 의견달기(15.5%)보다 민원제안 및 제기(16.1%)가 더 높게 나타남. 해당 활동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초구 구정참여 관련한 서초구민의 인식

- “서초구 지역뉴스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3%이며, 여성이 65.7%로 남성보다 9.2%p 높게 나타남.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에 대해 61.4%가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지역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여성의 응답률이 63.5%로 남성보다 4.3%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5점 척도일 때 3.81점이며 다음이 30대와 20대 이하 순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 40대의 평균점수(3.96점)가 가장 높고, 남성은 20대 이하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신 구정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지에 대해, ‘서초구 소식지’와 ‘서초구청 홈페이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은 서초구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남성보다 많이 접하는 반면, 신문기사와 지역방송은 남성들이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구정참여 경험여부와 계획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권(정책)제안(33.2%)과 주민자치센터 활동(32.7%)의 경험이 남성에 비해 많았고, 남성은 정치사회적 의견달기(36.1%)에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초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서초구민은 ‘지역소식 홍보의 다각화’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 활성화(게시판, 어플 등)’이 26.0%, ‘정보의 공개 및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24.0% 순임. 성별로 살펴볼 때, 남성이 ‘지역소식 홍보 다각화’에서 여성보다 1.9%p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견수렴 활성화’에서 남성보다 4.2%p 높게 나타남.

3) 서초구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차이(양극화, 불평등)’, ‘젠더갈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5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평균값이 낮을수록 매우 심각함을 의미함) 전체적으로 3점 이하의 점수가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경제적 계층의 차이’로 5점 만점 중 평균 2.12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세대간 불평등’ 2.19점, ‘젠더갈등의 문제’도 2.2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경제적 계층의 차이’이며, 남녀간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젠더갈등의 문제’로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조사하여 점수화한 결과, ‘경력에 대한 대우’가 평균 2.79점으로 4개 항목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치와 사회참여’ 2.72점, ‘남녀성별에 따른 대우’ 2.66점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형성’이 2.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여성은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소득이나 자산형성임. 남녀간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남녀성별에 따른 대우’로서 여성이 남성과 점수 차이가 나타남.
-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서초구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5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 ‘정보공개’가 평균 3.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구민 중심의 정책결정’과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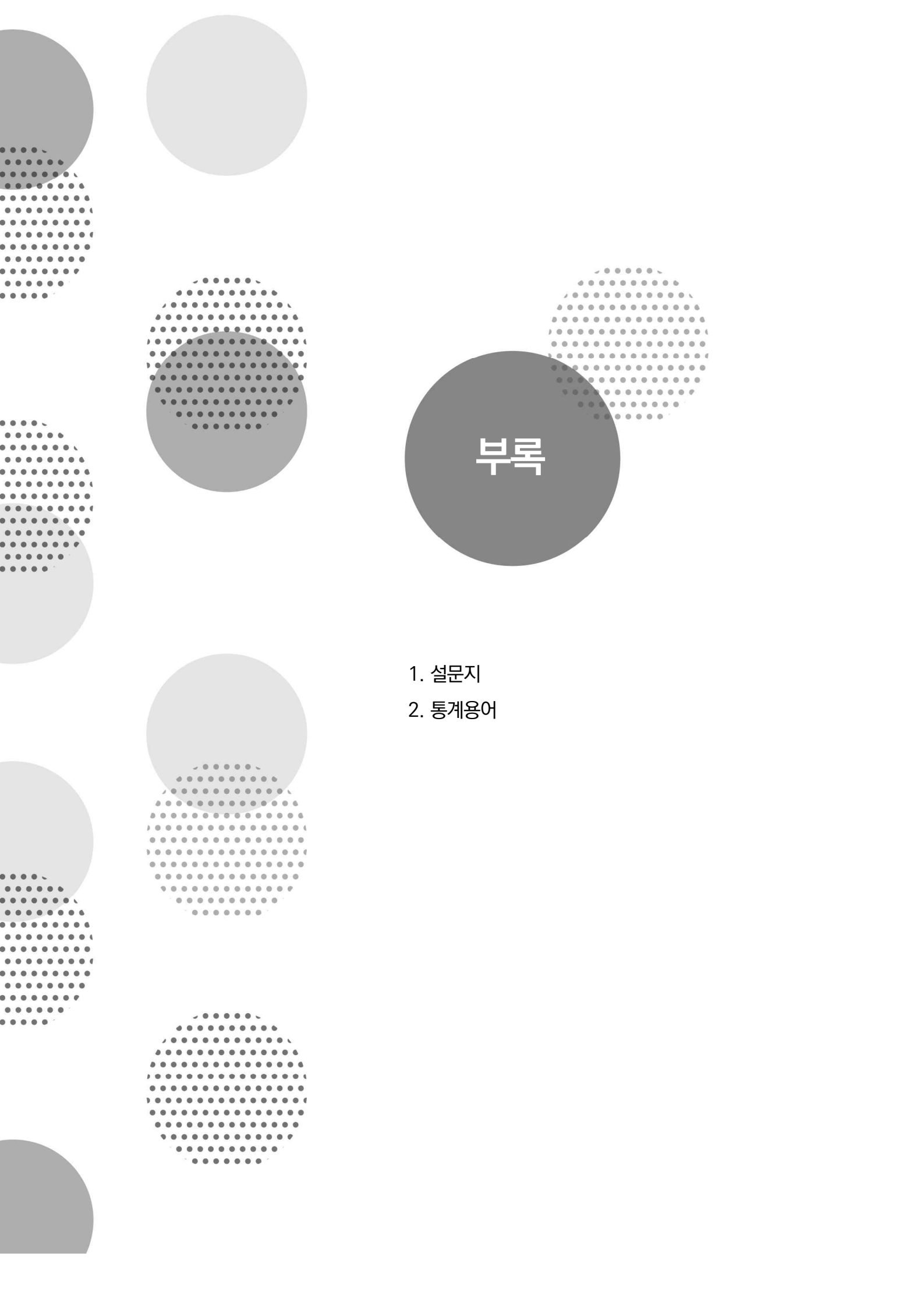
- 김경희 외 (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서초구(2022). ‘공무원 성별 직급별, 부서별 현황자료’. 서초구 내부자료(2022년 8월).
- 서초구(2022). 『제33회 서초통계연보(2021)』.
- 서초구(2020).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 서초구(2019). 『2019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 여성가족부(2018). 『성인지통계생산 및 활용 안내서』.
- 주재선 외(2020). 『2020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알기 쉬운 성인지통계」.

〈승인통계 원자료〉

- 서울특별시(2021). 「2021년 서울서베이」. 시민데이터, 가구원데이터 원자료.
- 통계청(2021).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웹페이지〉

- 성인지통계 시스템(gsis.kwdi.re.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jumin.mois.go.kr). 연령별 인구현황 월간자료(22년 4월).



부록

1. 설문지
2. 통계용어

1

설문지

서초구 성인지통계 작성을 위한 설문지: 경제활동분야, 의사결정분야

안녕하십니까?

서초구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양성평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매년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이래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성인지 통계*(경제활동분야, 의사결정분야)를 만들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

응답자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 령	① 15세 이상~19세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거주지역	① 반포/잠원권 ② 방배권 ③ 서초권 ④ 양재/내곡권 ⑤ 그 외 지역 ⇒ 설문조사 종료	
거주기간	① 서초구 지역에서 ()년 거주	
경제활동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결혼여부	① 비혼 또는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자녀유무	① 있다 ② 없다	

* 성인지통계는? 성별이 분리된 통계로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통계로 제시하여 불평등요소를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I

경제활동 분야

□ 서초구민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어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1-1.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	1-2.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 ()
-----------------------------	-------------------------------

<보기>

- ① 안정적인 일자리(정규직)
- ② 급여가 높은 일자리
- ③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 ④ 당장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
- ⑤ 개인,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 ⑥ 출퇴근 거리가 짧은 일자리
- ⑦ 일생활 균형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 ⑧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사회적 약자지원, 환경, 성평등 등)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초구의 일자리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초구는 일자리가 풍부하다					
2) 서초구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					
3) 서초구는 일자리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4) 서초구는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가 좋은 편이다					
5) 서초구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다					

□ 평일 및 주말 시간활용 현황

3-(1~2) 다음은 평일과 주말 평균시간 활용을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는 평일과 주말 하루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분은 30분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 * 가사활동: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
- * 돌봄활동: 자녀양육, 교육지원, 아프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 돌봄 등
- * 근로활동: 소득활동 및 가족이 하는 자영업에서 무보수 근로도 포함
- * 출·퇴근 : 근무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왕복 시간
- * 학습, 자기개발: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
- * 문화 및 여가활동 : 미디어 사용, 독서, 운동 등
- * 교제 및 참여활동 : 대면교제, 종교활동, 봉사 등
- * 기타: 기타 해당하지 않는 활동

총 계	수면	가사 활동	돌봄 활동	근로 활동	출·퇴근	학습, 자기개발	문화 및 여가 활동	교제 및 참여 활동	기타
1) 평일 평균 (시간: 분)									
2) 주말 등 공휴일 평균 (시간: 분)									

□ 서초구민 소득활동 상태

4. 귀하의 주요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비중이 큰 것 한 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근로소득 (☞문5) ② 사업소득 (☞문9)
- ③ 연금소득 (☞문9) ④ 자산소득(예금 이자, 주식 등)(☞문9)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9)
- ⑥ 소득활동하지 않음 (☞문8)

- * 근로소득: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 * 사업소득: 개인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영위하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기초 연금 등)이나 민간연금으로 얻는 소득
- * 자산소득: 예금, 임대소득, 주식 등을 통해 얻는 소득

※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답해 주십시오.

5.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와 직무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찾아 해당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고용형태	직업군
<보기> ① 정규직 ② 한시직/기간제/계약직 ③ 시간제(1주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④ 일용직(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 ⑤ 특수형태 근로(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 예) 학습지교사, 공부방 혹은 개인과외,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쿼터서비스 배달원, 프리랜서 등)	<보기> ① 경영·회계·사무 ② 금융·보험 ③ 교육서비스 및 강사 ④ 법률·경찰·소방 ⑤ 보건·의료 ⑥ 사회복지·상담·종교 ⑦ 문화·예술·디자인·방송·출판 ⑧ 영업·판매 ⑨ 용역(청소·가사·세탁·돌봄) ⑩ 이용·미용·피부관리·체형관리 ⑪ 레저, 스포츠 ⑫ 음식 서비스 및 식품 가공 ⑬ 섬유·의복 ⑭ 정보통신(IT 관련) ⑮ 미술, 공예, 가구, 조경 ⑯ 환경, 에너지, 안전 ⑰ 연구 ⑱ 운전, 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⑲ 기타 (_____)

☞ 응답 후 6번으로 이동

□ 취업 및 근무환경 실태

6. 귀하는 현재의 근무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①, ②응답자는 6-1번으로 이동/☞ ③응답자는 7번으로 이동/☞ ④, ⑤응답자는 6-2번으로 이동

6-1. 귀하는 다음 근무환경 중 무엇에 가장 만족하십니까?(위 질문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응답)(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업무 내용(직무) ② 급여 ③ 근로시간 ④ 고용안정성 ⑤ 일의 자율성과 권한
- ⑥ 출퇴근 거리 ⑦ 업무강도 ⑧ 일생활균형 ⑨ 복리후생 ☞ 응답 후 7번으로 이동

6-2. 귀하는 다음 근무환경 중 무엇에 가장 불만족하십니까?(위 질문에서 ④,⑤번 응답자만 응답)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업무 내용(직무) ② 급여 ③ 근로시간 ④ 고용안정성 ⑤ 일의 자율성과 권한
⑥ 출퇴근 거리 ⑦ 업무강도 ⑧ 일생활균형 ⑨ 복리후생

7. 귀하는 이번 코로나19로 고용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6번 응답자 모두 응답)

- ① 변화 없음 ② 임금 증가 ③ 휴 직 ④ 임금 감소 ⑤ 해고 또는 계약종료

☞ 응답 후 9번으로 이동

※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답해 주십시오.

□ 실업 및 취업희망 실태

8. 귀하는 근로활동에 대한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문8-1) / 없다 (☞문9)

8-1.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귀하가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자녀 양육 및 교육 ② 어르신/가족 돌봄 ③ 적절한 일자리 부족
④ 학력/기술(기능) 부족 ⑤ 경력 부족 ⑥ 취업 정보 부족
⑦ 나이(고령)로 인한 차별 ⑧ 질병 또는 장애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8-2. 귀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아보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워크넷 등 공공 구직사이트 ②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벼룩시장 등 민간 구직사이트
③ 중개업소, 헤트헌터, 사설 컨설팅 업체 ④ 가족, 친지, 이웃 등 지인의 소개
⑤ 해당 기업 홈페이지 ⑥ 서초구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⑦ 서초일자리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응답자 모두 답해 주십시오.

□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9. 귀하는 서초구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음 항목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	보통	조 금 급	매 우 급
1)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취업박람회, 취업 설명회, 온라인취업 정보사이트 등)					
2) 기술(IT, 자격증) 및 경력관리(커리어) 교육 확대					
3) 서초구 일자리 플랫폼 조성 및 일자리 연계					
4) 돌봄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여건 지원					
5)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회적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등) 확대					
6) 은퇴 등 이·전직 지원서비스 확대					
7) 청년인턴(행정인턴,공공부문인턴) 프로그램 지원					
8) 서초구 사업체 고용지원금 지원					

9-1. 이외에 서초구민을 위한 취업 지원을 위해 어떠한 시책이 필요한지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II

의사결정참여 분야

□ 서초구 구정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1. [구정활동에 대한 인식]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초구 지역뉴스를 관심 갖고 보고 있다(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2) 우리지역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3) 우리지역 주민은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4)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지역 활동에 참여)					
5) 나의 의견이 구정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의 성비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귀하는 최신 구정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서초구 소식지 ② 서초구청 홈페이지 ③ 신문기사 ④ 지역방송
 ⑤ 현수막 또는 게시판 ⑥ 주민센터 ⑦ 지역주민 ⑧ 기타 (_____)

3. 다음의 구정행정 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보건/복지 ② 도시환경 ③ 도로/교통 ④ 주택/건설
 ⑤ 경제/산업 ⑥ 문화/예술 ⑦ 민원행정 ⑧ 기타 (_____)

□ 서초구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4. 귀하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공정하다 ② 약간 불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5. 귀하는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1) 경제적 계층의 차이 (양극화, 불평등)					
2) 우리사회의 젠더갈등의 문제					
3) 우리사회의 세대간 불평등의 문제					

6.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항목이 어느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불공정 하다	약간 불공정 하다	보통 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노력과 경력에 대한 대우					
2) 소득이나 자산형성					
3) 남녀 성별에 따른 대우					
4) 정치와 사회참여					

7. 서초구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불공정 하다	약간 불공정 하다	보통 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구민중심의 정책결정					
2)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정보공개: 결정과정 및 결정된 내용의 공개					
4) 결정된 내용이 구민에 미칠 영향의 설명					

□ 서초구민 활동 참여경험 및 정책수요

8. 귀하는 서초구민으로서 아래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앞으로 참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참여 경험		참여계획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구 정 참 여	1) 의견 혹은 정책제안 (구청장/구청 온라인 소통창, 홈페이지, 전화 등)				
	2)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트윗/ 보도물에 리플이나 댓글 달기 등)				
	3)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동 차원의 지역활동)				
	4) 구정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 참 여	1) 지역 동아리/동호회/모임 참여				
	2)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댓글 및 게시글)				
	3) 지역 자원봉사 활동 참여				
	4) 지역 시민단체 활동 참여				

* ☞ 8번 참여경험에서 '경험 없다'가 한 개라도 있을 때 8-1번으로 이동

8-1. [8번에서 경험없다 선택시] '경험 없다'에 한 개라도 해당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련 정보가 없다 ② 참여 방법을 모른다 ③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④ 관심이 없다 ⑤ 코로나 시국에 활동하기 어렵다 ⑥ 기타 (_____)

9.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의 활동 참여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참여 횟수가 줄었다 ② 참여방식이 달라졌다(온라인/비대면 등)
 ③ 참여관심 분야가 달라졌다(건강, 안전문제 등) ④ 변화가 없다 ⑤ 관심이 없다

□ 구정참여를 위한 정책 수요

10.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보의 공개 및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② 지역 소식 홍보 다각화
- ③ 온라인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 활성화(게시판, 어플 등)
- ④ 지역주민 간담회, 정책 설명회 활성화 ⑤ 구민 모니터링 활성화
- ⑥ 기타 (_____)

11. 서초구에서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수의 성비균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여성, 청년 정치활동가 지원 ②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 ③ 지역구 활동 및 인적네트워크 기회 확대 ④ 정치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⑤ 주민자치 활동가의 활동지원 등 ⑥ 기타 (_____)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통계용어

개별지표	용어해설, 산식, 자료원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의 생산가능한 인구 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군인, 재소자, 외국인은 제외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경제활동참가율	- 만15세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산 식 : $(\text{경제활동인구} \div \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만15세 이상인 자(학생, 군인, 연소자, 노령자, 장애인, 주부 등).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구분됨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고용률	- 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산 식: $(\text{취업자} \div \text{만 15세이상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월평균 임금	- 임금근로자가 지난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임금공제전 월평균 총수령액 기준 (각종 상여금 및 현물 등 포함) - 자료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KOSIS.
임금격차	- 여성 월평균 임금을 남성 월평균 임금으로 나누어 분율로 나타낸 수치(수치가 높을 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작음) - 산 식: $(\text{여성 월평균임금} \div \text{남성 월평균임금} \times 100)$ - 자료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KOSIS.
산업	- 조사대상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기준에 의해 구분함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사업체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 단위 - 자료원 :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KOSIS.

개별지표	용어해설, 산식, 자료원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기간 중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휴가,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직업	◦ 조사대상주간 중 취업자가 '수행하는 일의 형태'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하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개정)기준에 의해 구분함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다음 5가지로 구분함 1)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유급종사원과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2)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 3)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 등 4)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사업완료기간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자 등 5)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자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위에서 1)~2)를 비임금근로자, 3)~5)를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비정규직 근로자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 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산 식 : $(\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개별지표	용어해설, 산식, 자료원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¹(통계청 기준 정의): 비취업자중 15~54세 기혼이면서 현재 비취업(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포함)인 여성으로서 ① 결혼, ② 임신 및 출산, ③ 자녀교육(초등학생), ④ 가족돌봄(육아 제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함 ◦ 경력단절여성² : 서울시와 서초구 비교를 위해 시-구 비교 가능한 항목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재분류함. 비취업자중 15~54세 기혼이면서 현재 비취업(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포함)인 여성으로서 ① 개인·가족적 이유, ② 육아 ③ 가사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함 ◦ 산식 : 경력단절여성 구성비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 100 ◦ 자료원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연구보고 2022-1

서초구 성인지통계
- 경제활동·의사결정(정치/사회참여) 분야 -

발행일 : 2022년 11월

발행인 : 조영미

발행처 :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 <http://seochoequality.org>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8길 38

전 화 : 02-522-0292(代)

인 쇄 : 경성문화사(02-786-299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